

IMF 관리체제하의 농업동향과 대응방안

유철호	부원장
윤호섭	연구위원
이두순	연구위원
김명환	연구위원
정기환	부연구위원
최세균	부연구위원
김용택	부연구위원
전창곤	부연구위원
허덕	부연구위원
신승열	부연구위원
이성호	책임연구원
최윤국	책임연구원



연구담당자	담 당 분 야
유 철 호 윤 호 섭 김 명 환 허 덕 이 두 순 이 성 호 신 승 열 전 창 곤 최 세 균 김 용 택 정 기 환 최 윤 국	연구 총괄 농업경제 동향, 외국의 사례 곡물 축산 시설원예 농업자재산업 축산관련산업 유통 수출 농업재정·금융 농촌사회 및 농가경제의 변화 외국의 사례

머 리 말

IMF 관리체제가 시작되면서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환율과 이자율 상승에 따른 자재가격의 상승 및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신규차입의 어려움 등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농업관련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외부 자금의 차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신용경색과 무역금융의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IMF 관리체제 이후 나타난 환율과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영향과 주요 품목에 대한 단기 대책을 중심으로 1998년 2월에 1차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998년 3월 이후 환율과 이자율이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IMF 관리체제가 시작되기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공급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한 1차 보고서를 보완하고, 분석 대상도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공급 측면과 함께 수요 측면을 검토하고, 1차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축산관련산업과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던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완하고, 농촌 및 농가 경제와 농정에 대한 농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2차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자료와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농림부와 농업관련단체 관계자 및 농업인에게 감사드리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 연구원의 성명환, 김경덕, 박현태 부연구위원 및 김철민 책임연구원과 김태훈 연구원에게 감사드린다.

이 보고서가 앞으로의 관련 연구에 참고자료로 이용되고 특히, IMF 관리체제하에서 농업 부문의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

1998.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 상 우

빈 면

목 차

요약 및 정책 제언	1
I. 경제 동향과 농업지표 전망	17
1. 경제지표 및 농업 동향	17
2. 농업지표 전망	23
3. 외환위기에 의한 1998년 농업부문의 영향	24
II. 주요 품목에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안	27
1. 곡물	27
2. 축산	40
3. 시설원예	58
III. 농업관련산업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안	77
1. 농업자재산업	77
2. 축산관련산업	92
3. 유통	101
4. 수출	116
IV. 농업 재정 · 금융부문의 영향과 대응방안	130
1. 농업 재정	130
2. 농업 금융	140

V. 농촌사회 및 농가경제의 변화	149
1. 농촌사회의 변화	149
2. 농가경제의 변화	155
3. 농가의 대응과 정책 수요	159
VI. 외국의 금융·외환위기와 농업정책	164
1. 멕시코	164
2. 태국	167
3. 인도네시아	169
4. 인도	172
5. 영국	176
6. 미국의 대공황	180
7. 시사점	181

표 목 차

표 1- 1	정부-IMF간 주요 경제지표 수정안 변화, 1997. 12~98. 5	17
표 1- 2	주요 경제지표 변화, 1997. 10~98. 5	18
표 1- 3	농업성장을 전망, 1993~2001	23
표 1- 4	농축산물 실질가격 변동 전망, 1993~2001	24
표 1- 5	농업노임의 변화, 1993~2001	24
표 1- 6	외환위기의 파급효과	25
표 2- 1	곡물 재배면적 추이, 1990~97	27
표 2- 2	곡물 재배업의 조수입, 경영비, 소득 추이, 1990~97	28
표 2- 3	곡물 수급 추이, 1990~97	29
표 2- 4	주요 곡물 수입량 추이, 1990~98. 5	30
표 2- 5	곡물 및 곡물가공제품의 가격 변동, 1997. 10~98. 6	31
표 2- 6	주요 곡물의 국내외 가격 비교, 1990~98. 4	32
표 2- 7	주요 곡물 가공품의 생산, 출하, 재고량 변동, 1990~98. 5	33
표 2- 8	곡물 재배업의 조수입, 경영비, 소득 전망, 1998	35
표 2- 9	벼 재배규모별 경영비 전망, 1998	36
표 2-10	곡물 소비량 전망, 1998	37
표 2-11	곡물 수급 전망, 1998	38
표 2-12	전업규모 축산농가수, 1992~97	41
표 2-13	축종별 경영비와 사료비 비중, 1997	41
표 2-14	사료가격 변화율	42
표 2-15	축종별 경영비 변화	43
표 2-16	축산물 소비실적 비교, 1997~98(1~5월)	44

표 2-17	쇠고기 판매장 형태별 월 판매두수, 매출액 및 가격 변화율	46
표 2-18	한육우 및 쇠고기 생산, 소비, 수입 동향	46
표 2-19	비육우 소득 전망	47
표 2-20	돼지 및 돼지고기 생산, 소비, 수출입 동향	48
표 2-21	양돈 소득 전망	50
표 2-22	육계 및 닭고기 생산, 소비, 수입 동향	51
표 2-23	양계 소득 전망	52
표 2-24	우유 생산, 소비 동향	54
표 2-25	낙농 소득 전망	55
표 2-26	시설원예의 현황과 비중, 1997	59
표 2-27	시설원예 품목별 주요 중간재비의 비중, 1996	59
표 2-28	시설원예 경영비 변화	61
표 2-29	주요 시설원예 산지의 동향 사례	62
표 2-30	시설원예작물의 가격 추이, 1997. 1~98. 5	63
표 2-31	농업현장의 에너지 절약 사례	65
표 2-32	원예작물 수출 실적, 1998	66
표 2-33	환율 상승에 따른 장미의 대일본 수출 경쟁력	67
표 2-34	유리온실 10a당 소득 분포, 1997	70
표 2-35	시설원예사업의 정책 전환 방향	76
표 3- 1	주요 농기계 공급실적의 변화, 1997~98. 4	78
표 3- 2	농기계 OEM 생산 현황, 1998	79
표 3- 3	비료가격 인상과 정부 재정보조, 1991~98	82
표 3- 4	환율 상승에 따른 농약 제조원가 인상요인	85
표 3- 5	농약 소비 현황, 1996~98	86
표 3- 6	환율 상승에 따른 종자업체의 추가부담액과 가격상승 지수	89
표 3- 7	1998년 1월 인상 이후의 주요 동물약품 소비자 가격	97
표 3- 8	축산시설환경기계 매출액 변화, 1994~97	99

표 3- 9	청과물 부류별 도매시장 거래실적, 1997~98. 5	102
표 3-10	청과물 부류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 1997~98. 5	102
표 3-11	주요 청과물의 품목별 가격 변동, 1997~98. 5	103
표 3-12	소 및 돼지의 도매시장 거래두수 변동, 1997~98. 5	104
표 3-13	한우 및 돼지의 가격변동, 1997~98. 5	104
표 3-14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수입 변화, 1997~98. 5	105
표 3-15	과일, 채소 중도매인의 영업수익 변화 비교, 1997~98. 5	106
표 3-16	도매시장의 수입농산물 거래실적, 1997~98. 5	107
표 3-17	환율변동이 출하단계 유통비용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108
표 3-18	환율변동이 소비지단계 유통비용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109
표 3-19	도매시장법인 자금운용 실태 비교, 1997. 5/1998. 5	111
표 3-20	농산물 수출동향, 1998. 1~5월	117
표 4- 1	국가예산과 농림예산의 변화, 1992~98	130
표 4- 2	농림부문 추경예산의 기능별 변화 추이, 1997~98	131
표 4- 3	농림부문 기금 운용 및 여유재원 현황	133
표 4- 4	농림사업별 투자내역, 1997~98년(추경)	134
표 4- 5	1998년 농림부문 추경예산의 투자 방향	135
표 4- 6	농업 투융자 규모의 조정 방안	137
표 4- 7	농림회계제도의 정비 방안(1안)	138
표 4- 8	농림정책자금의 규모, 1997~98	140
표 4- 9	상호금융의 예수금과 대출금 규모의 변화, 1997. 12~98. 4	142
표 4-10	회원농협과 시중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 변화, 1997. 12~98. 2	142
표 4-11	농협의 합병실적 및 계획, 1997~2001	144
표 4-12	농신보, 일반신보, 기술신보의 운영 비교	144
표 4-13	현행 자금지원방식과 종합자금지원제도와 특징 비교 ...	145
표 5- 1	농림부문 취업률 변화, 1996~98	149

표 5- 2	귀농가구 증가 추이, 1995~98	150
표 5- 3	농촌임료금 변화, 1997~98	151
표 5- 4	농가 가구원의 농외취업의 변화, 1997. 12~98. 3	151
표 5- 5	농가의 영농규모 변동 의사, 1997~98	152
표 5- 6	영농규모별 임차농지 면적 변화, 1997~98	153
표 5- 7	경영주 연령별 임차농지 면적 변화, 1997~98	153
표 5- 8	농가판매가격 지수 변화, 1997~98. 5	156
표 5- 9	농가구입가격 지수 변화, 1997~98. 5	156
표 5-10	농가의 수입·지출 변동에 대한 농가 조사 결과, 1998. 3/1997. 12	157
표 5-11	농가 계층별 수입·지출의 변동 상황	158
표 5-12	IMF 관리체제하의 농가의 대응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	159
표 5-13	농가소득 증대 달성 방안에 대한 농가의 의향	160
표 5-14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 조사결과	161
표 5-15	품목별 농가의 주요정책의 우선순위 조사결과	162
표 5-16	농가경영주 연령별 주요정책의 우선순위 조사결과	163
표 6- 1	국별 IMF 자금지원 규모	164
표 6- 2	인도 경제개혁의 주요분야 및 내역	174
표 6- 3	영국 농업의 주요 지표 변화, 1975~81	177
표 6- 4	영국의 농업투입물 지출, 1977~82	178
표 6- 5	영국의 농산물 가격 추이, 1976~81	178

그 립 목 차

그림 2-1	목표 시장 대응 전략적 수출체계	74
그림 5-1	농가 교역지수 변화, 1997. 6~98. 5	156

요약 및 정책 제언

1. 농업 동향과 전망

가. 농업 동향

- 1998년 농림예산은 당초 8조5,276억원에서 추경 7조7,324억원으로 7,952억원이 삭감되어 42조 구조개선사업의 마무리에도 차질을 빚게 되고, 1999년도의 농림예산확보도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환율상승으로 농업 경영비가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억제 및 농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농가의 경영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축산업의 경우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경영비가 크게 증가하고, 축산물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되어 최악의 경영여건에 직면하고 있다. 시설원예의 경우도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경영비가 크게 상승하고, 소비도 위축되어 경영이 매우 어려우며, 특히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크다. 이에 따라 일부 한계 농가가 영농을 포기하고, 농업생산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소득 하락으로 도시가계는 농산물 소비를 축소하여 농산물 유통량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이자율의 상승으로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농산물 유통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도매시장 거래량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통업 참가인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자금사정의 악화로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자금 부족으로 유통업자의 경영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 IMF 체제 이후 정책자금의 이자율이 1.5% 상승되었고, 상호금융의 이자율도 3% 정도 인상되었다. 금융기관이 신규대출을 억제하면서 많은 농가들이 단기영농자금을 차입하지 못하는 신용경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환율상승에 따라 농산물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과실, 채소, 화훼, 인삼 등 농산물과 돼지고기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경쟁의 심화에 따른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수출액 증가율이 수출물량 증가율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나. 농업지표 전망

- 1998년의 농업성장률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와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3.4%를 기록할 전망이다. 축산업은 환율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5.9~6.8% 감소하고, 재배업은 3.3% 감소할 전망이다. 1998~2001년 기간 중의 농업성장률은 연평균 0.8~0.9% 감소할 전망이다.
- 1998년의 농축산물 가격(실질가격 기준)은 전년 대비 2.1~2.8% 감소될 전망이다. 경종작물의 가격은 3.5~4.0% 감소될 전망이나, 축산물 가격은 사료가격 인상으로 상승요인이 크지만, 수요위축으로 0.2~0.5% 정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1998~2001년 기간의 농축산물 가격은 연평균 2.9~3.5% 상승될 전망이다.
- 1998년의 농업노임은 실업 증가에 따른 이농 감소와 귀농 증가에 따라 4.4~5.5% 감소될 전망이다. 1998~2001년에는 -0.1~3.3% 수준이 될 전망이다.

- 외환위기로 인한 농가의 총 손실액은 소득감소분이 1조4,994억3,900만원, 이자상승에 따른 부담증가액이 5,241억5,100만원으로써 총 2조235억9,000만원으로 추산된다.

2. 주요 품목에의 파급영향과 대응방안

가. 곡 물

- 1998년의 10a당 쌀 경영비는 자재가격 등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12~18% 증가하고 소득은 9~12% 감소할 것이며, 특히 생산요소를 집중 투입하는 중농계층의 경영비 상승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국내산 쌀, 콩, 옥수수의 1998년 6월 농가판매가격은 1997년 12월 대비 1~2% 상승하였으나, 수입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밀가루, 라면, 두부, 간장의 소비자 가격은 동기간에 20~54% 상승하였다. 1998년 곡물 총소비량은 1,881~1,937만톤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되고, 자급률은 30~32%로 높아질 전망이다.
- 1998년 1~5월의 월평균 곡물 수입량은 114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되었고, 1998년의 수입량은 5~9% 감소된 1,290~1,350만톤이 될 전망이다. 수입액은 US\$22~23억(이하 달러로 표기하며, 이는 미국 달러임)으로 전년대비 5~6억 달러가 감소될 것이다. 곡물수입의 원활화를 위하여 GSM-102 자금이 사용되고 있는데, 옥수수의 경우 사료용과 가공용에 대한 자금 배분이 따로 되어 사료용 자금은 남고 가공용 자금은 부족한 상황이다.
- 환율 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의 최소화를 위하여 비료, 농약 등이 적정량 시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비료와 농약을 덜 쓰는 「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실시에 차질이 없

도록 투입량 기준, 점검 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한 실행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경영비가 적게 드는 곡물 재배를 늘리기 위하여 영농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자연재해보상 직접지불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쌀 가격의 현실화를 위하여 현재 부정기적으로 방출하고 있는 정부양곡 공매를 정기적으로(예: 월 2회 원칙) 실시하여 산지가격의 계절진폭을 선도하고, 목표 계절진폭(예: 7월 10%)이 형성되지 않으면 차기 공매량을 축소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환율상승으로 곡물생산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된 상황을 활용하여 경영비 절감, 단수 증대, 규모 확대 등의 경쟁력제고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국내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콩과 맥류 생산단지에 대한 기계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1998년 GSM-102 자금배정액 중 사료업계 미사용 분을 가공업체로 추가 배정하고, 1999년 GSM-102 자금 배분 시에는 옥수수의 사료용과 가공용 자금을 통합·운영하여 효율화를 제고해야 한다. 환율 불안정에 대처하여 수입곡물의 선적시기와 환율을 점검하면서 환차손 위험을 분산하고, 국영무역 쿼터 물량의 실수요자 공매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나. 축 산

- 송아지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비육우 경영비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한우 산지가격이 경영비보다 낮아 한우 농가는 적자경영 상태에 있다. 경기침체로 쇠고기 소비가 12%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과 수입량 등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재고누적이 심화되고 있다.
- 돼지의 경우 산지가격 상승률이 경영비 상승률보다 낮으나, 산지가격이

경영비보다는 높아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다. 사료비 부담이 적은 소규모 부업농가와 시장변화에 대응력이 높은 대규모 농가는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파급 영향이 타 축산부문에 비해 양호하지만,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 양계의 경우 생산요소가격 인상으로 경영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육계 및 계란 가격은 하락하여 농가의 경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계열화업체의 경영난으로 계약농가에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시설리스자금 외환차입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하고 있다.
- 낙농의 경우 원유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영비가 상승하고 소비도 감소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압박이 심화되고 분유재고도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1999년부터 원유의 계획생산제 도입이 예고됨에 따라, 낙농가는 할당량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 사육두수를 줄이지 않고 있다.
- 한우대책으로는 수입쇠고기의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한육우 사육두수를 조절하여야 한다. 아울러 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정육점 판매가격 담합 및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직거래를 확대해야 한다. 비축쇠고기의 대북지원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정수준의 생산기반을 위하여 저능력우 도태, 조사료 등 부존자원의 이용 확대 및 가축진료비와 인공수정료의 인하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 돼지고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용 규격돈 생산에 대한 지원 및 규격돈 구매자금을 확대해야 한다.
- 양계 계열화업체에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해외리스자금 차입이자 및 원

금상환의 유예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 원유의 성분별, 용도별, 계절별 가격차별제를 도입하여 분유재고의 해소를 유도하면서, 원유계획생산제 도입을 유보하여 사육두수 감축을 유도한다. 그리고 재고분유의 대북지원도 검토해야 한다.

다. 시설원에

- 시설원예는 유류가격 인상으로 보충 난방시설 설치 및 저가연료 시설 대체 농가가 증가하였으나 생산성이 떨어지고 저품위 생산물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가격 하락과 운영자금 부족 및 판로 문제 등으로 많은 농가가 적정소득에 미달하고 있으며, 융자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채소류보다 화훼류의 가격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격은 전년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회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 시설원예 농가에 대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경영 부실농가 대책을 통하여 시설 유희화를 방지하면서 경영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경영실적이 우수한 농가와 수출농가에게 경영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경영 부실농가의 시설 매각 및 3자 인수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 고비용 시설은 수출품목 위주로, 일반 시설은 내수품목 위주로 발전시키고, 기존시설의 열효율 개선을 도모하면서 저온재배 기술을 보급해야 한다. 농업용 면세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절감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 화훼류 수출은 증가되고 있으나 규격품 생산의 미흡, 저가품 위주의 수출, 수출체제 미흡, 수출시장의 일본 편중 등 수출의 지속적 확대에 문제가 있다.

- 고품질·규격품의 물량 확보를 위해 생산단지를 규모화·조직화하고, 수출촉진자금의 한도 인상 및 수출업자의 과당경쟁 방지 등 수출 촉진책을 추진해야 한다. 원거리 수출을 위한 항공료 지원 방안(항공사와 저가 장기계약)도 수립·집행되어야 하며, 수출국의 다변화와 수출 유망품목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수출 관련업무 수행기관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되어야 하며, 생산자 단체에 대한 신용대출도 확대되어야 한다.
- 시설 현대화는 경쟁력강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수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고비용 시설보다 저비용 시설을 보급하고, 다품목 생산체제에서 소품목 전문화와 품질 고급화로 전업농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시설의 설치보다 기존시설의 보완·개보수와 경영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경영의식을 기준으로 사업대상농가를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3. 농업관련산업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안

가. 농업자재산업

- 농기계업체의 경우 원자재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외주업체의 부도로 부품 조달이 곤란하고, 기술제휴선의 다양화에 따라 농기계 부품의 표준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부실 채권 및 차입금 증가(대리점의 부도)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 비료가격 인상에 따라 비료소비는 10~20% 감소하고, 태국과 베트남 등 수출대상국의 환율 불안정으로 수출수요가 감소하여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 농약업계는 원재의 외국산 의존도가 높아 환율상승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된 가운데 다국적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 및 합병이 증가하고 있다.
- 종자업체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종묘상에 현금결제를 요구하면서 덤핑 판매가 확산되는 등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자본시장 개방과 국내 업체의 경영악화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국내 회사의 인수가 진행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국내시장을 지배할 경우 종자 수급에 차질이 예상될 수 있으나, 국제기준에 의한 보증 종자의 유통은 촉진될 것이다.
- 농기계업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기종별 시장 점유율 1, 2위 기종 및 OEM 생산 기종에 대한 융자율을 높이고, 국산화율 70% 이하 기종 및 고유모델 개발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표준화·공용화 부품 구매자금도 지원하고, 수출 주력기종 개발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비촉자금의 지원도 필요하다.
- 비료가격의 대폭적인 인상 억제를 위해 당분간 가격차에 대한 재정보전은 지속되어야 하며, 연지급 수입 신용장이 확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외의존도가 높은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유기질 비료의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농약업계에 원료 구입자금의 긴급 지원, 제조업체의 생산 기피 품목에 대한 공급 대책 마련, 병해충에 대비한 원재나 농약 비축 및 농약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종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종자수매, 신품종 육성 및 육·채종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내 유전자원의 종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품종육성체계를 확립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체의 자구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나. 축산관련산업

- 배합사료 원료의 수입비중(90%)이 높아 환율변동과 국제가격에 민감하며, IMF 관리체제 이후 발생한 환차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GSM-102 자금의 이용으로 원료구입을 위한 자금난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료가격이 IMF 체제 이후 30% 이상 상승하였으나, 판매량이 감소하여 사료업체는 침체되어 있다. 축산농가는 사료효율의 저하 및 사료구입자금 부족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동물약품은 1997년 12월~1998년 1월에 가수요가 발생하여 판매량이 30% 증가하고, 가격은 전년대비 40% 정도 상승하였다. 1998년의 판매량은 전년대비 40% 정도 감소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약품제조업체의 가동률은 40~50%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 축산시설환경기자재는 농가의 구매력 감소로 1998년도 매출이 전년 대비 약 50% 감소될 전망이다. 수입원자재 가격 및 이자율 상승으로 30~40%의 가격인상 요인이 있으나, 실제로는 10~15% 인상되었다. 생산업체는 미수금 증가로 경영난이 심화되었으며, 업체의 30~40%가 정리될 전망이다. 따라서 양축농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 사료곡물의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해 GSM-102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료안정화기금을 부활해야 한다. 사료가격의 실질적인 자율화를 위하여 사료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 및 품질검사 기능을 강화하며, 축종별 전문사료 생산체제의 도입으로 업체·공장별 제품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사료 생산업체의 자율적인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동물약품업계의 경우 공급과잉의 해소를 위하여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인수·합병을 통한 업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축산시설환경기자재의 경우 전문·표준화 및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관련법규를 제정하며, 동남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다. 유통

- 실질소득 감소에 따라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청과물의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감소, 미수금의 증가, 이자부담 증가,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유통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환율상승으로 유류대, 교통세, 포장재 등의 물류비용이 증가하여 농가수취율이 하락하고 소비자 지불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수입 청과물의 도매시장 거래량이 50% 이상 감소함에 따라 중도매인 등 일부 유통업자의 탈락이 예상되고 있다.
- 다양한 직거래 유형의 확산으로 유통마진의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직거래 비중이 7% 이하에서 1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환율상승으로 농산물수입이 감소되고 국내산 가공원료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으며, 일부 국내산 원료농산물의 소비가 확대되고 가격지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 농업부문 예산축소로 산지 농산물포장센터와 소비지 필수 유통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유통시설의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농산물 소매시장에 외국자본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도산과 탈락이 급증하여 소매시장의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있다
- 생산자 단체 중심의 산지유통 혁신과 직거래 기반 조기 구축을 위하여 산지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이 확대되어야 한다. 소비지 유통경로의 다양화에 의한 경쟁촉진과 민간유통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 단체와

민간유통업체의 물류센터 건설이 촉진되어야 한다. 산지 농산물 포장센터와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와의 연계, 유통업체와 물류센터 및 도매시장과의 직배송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관리·운영의 개선과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다양한 거래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출하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법인과 중도매인의 규모화도 추진하면서 하역 및 수수료 체계의 개선으로 도매시장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도매시장 자금난의 완화와 원활한 정산을 위하여 우수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농안기금에서 단기융자를 확대하고,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물류표준화가 조기에 추진되어야 한다.

라. 농산물 수출

- 1998년 1~5월의 농산물 수출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달러 표시 수출액은 감소하였다. 이는 수출업체간 과당경쟁과 밀어내기식 수출 및 시장편중에 따른 가격협상력 약화 등으로 수출단가가 전년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 1998년 하반기 농산물 수출은 무역금융, 일본 및 동남아의 경제여건 변화, 환율변동 등에 따라 변화할 것이나,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액 증가율은 물량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수출업체의 금융비용 부담 및 자금부족 현상, 연지급 신용장과 후불 송금방식에 따른 거래 위험 및 금융비용 증가, 환차손 문제 등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단가 하락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출업체 및 관련기관 협조체제 구축으로 과당경쟁 방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가격 협상력을 강화하며, 시장개척의 효율성을 증진해야 한다.

-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품목별로 생산, 유통, 가공, 수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열화 사업 도입, 생산자와 바이어간 직거래 형태의 수출 확대, 가격상승위험 보험 등 농산물 수출보험 제도 개선 및 수출용 농산물 수매비축자금 확대 등 금융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 수출단지 및 수출품목을 육성하고, 시장개척 활동도 강화되어야 한다. 새로운 품목보다는 내수 기반이 튼튼하고 특성있는 품목을 수출상품으로 육성하며, 기존 수출단지에 대한 후속지원을 강화하고, 유리온실 설치 등 수출단지 지원사업의 수행시 단지별 특성과 작목을 고려하여 지원도 차등화해야 한다.

4. 재정 및 금융

가. 재 정

- 농림예산의 감축, 세출증대 및 세입결손으로 투자재원의 확보가 어려우며, 농업투융자 재원의 조달방법이 복잡하고, 기금도 품목별·사업부서별로 운영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다. 1998년 추경예산에서 농업·축산경영자금이 확대되고, 이차보전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경지정리, 유리온실, 축사신규설치 및 농기계구입 관련예산도 축소되었다. 그리고 1998년 세제개편에서 농특세의 일반조세화, 농림부문 조세감면의 축소, 농지전용부담금의 폐지, 농지조성비 유지 등의 세부 안이 검토 중에 있다.
- 정책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투자우선순위가 조정되어야 하며, 특히 경제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심사한 후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유사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 위주로 투자하면서 교육, 훈련 및 정보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어야 한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연기되어야 하며, 부채농가의 원금과 이자 상환 연기 및 운영자금 등은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 농업경영자금과 농기계자금 등 일부 사업에 시행되고 있는 이차보상제를 확대 실시하며, 단계적으로 포괄보조금 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

-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농특세를 유지하고, 일반회계 지원비율도 확대하며, 고정지출 예산은 축소되어야 한다. 농특회계의 융자사업은 기금으로 편입하고, 기금은 기능별로 단순화하여 정비해야 한다.

나. 금 융

- 정책자금 및 상호금융의 이자율이 인상되고, 농업경영비가 상승함으로써 농가의 재무구조는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축산·시설원에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의 상환 및 농·축협 상호금융대출금의 상환이 연기되었다. 농·축협의 신용사업 수지 악화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농업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농업인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권을 행정기관에서 농업금융기관으로 이관하여 사업의 심사·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는 신용제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품목별·사업별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경영체 발전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자금(중장기/단기 운영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종합자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농가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가의 경영성과 평가를 토대로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을 재조정하며, 농신보의 활용도를 높여 농가 자금공급의 애로도 해소되어야 한다.
- 농·축협 중앙회의 구조조정은 경영평가를 토대로 추진하고, 단위조합의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

5. 농촌사회 및 농가경제의 변화

- 1998년 5월말 농림업부문 취업자는 2,725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1998년 1~5월 귀농가구는 3,51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6배 증가하였다. 농지 수요가 증가하고 임차료도 상승하고 있다. 1998년 5월의 남자 농업노임은 전년 동월대비 2.9%, 여자 농업노임은 7.9% 하락하고 농기계 이용료는 약 상승 추세에 있다.
- 농가의 영농규모 증가는 30~40대의 대농층을 중심으로 임차지 확대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고, 노령농가와 중농층의 경영규모는 축소되고 있다. 농외취업자의 실직 증가와 영농규모 변동은 대농층보다는 중소농과 노령층의 농가 소득에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농지 임차료 상승은 농업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농가교역조건은 영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1997년 10월의 0.961에서 1998년 5월 0.837로 악화되었다.
- 가계비 지출에서 문화활동비, 외식비, 부식구입비 등은 크게 감소할 전망인데 반해, 자녀교육비 및 부조금 지출은 감소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영농비 지출에서는 구입 자재비 및 농지 등 자본적 투자가 축소될 전망이다.
- 농가가 희망하는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는 부채상환기간 연장(48.1%), 쌀 수매가 인상(37.8%), 영농자금 금리 인하(30.3%), 농산물 최저가격제 실시(23.7%), 농가경영안정 자금 지원(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일반 경종농가는 쌀 수매가 인상을, 시설투자가 높은 축산, 과수, 시설원

예농가는 부채상환기간 연장을 우선정책으로 희망하고 있다. 3·40대의 경영주는 부채상환 기간 연장과 농가경영 안정 관련 정책에, 50대 이상의 경영주는 쌀 수매가 인상 등 소득안정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6. 외국의 금융·외환 위기와 농업정책

- 멕시코는 1994년 위기 이후 환율, 이자율 상승으로 농업부문이 침체되었으나 구조조정과 수출증대로 농업성장은 회복되었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내업체의 도산이 증가하였다. 정부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업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직접지불제가 확대되고, 농업하부구조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 태국은 환율상승에 따른 농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농산물생산비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업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이 비료를 매입·판매하고, 정부는 가격안정을 위해 6.4억 바트를 지원하였다.
- 인도네시아는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농업부문의 구조조정과 기본 식료품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국영무역회사였던 BULOG사의 수입 독점권(쌀과 설탕은 제외)을 폐지하였으며, 옥수수에 최저가격제를 도입하였다.
- 영국은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 EEC 회원국으로서 농정을 CAP 체제로 전환중이었으므로 농정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
- 미국은 대공황시 생산제한을 통하여 농업자의 구매력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AAA(농업조정법)를 제정하였으며, 농민구제정책을 실시하였다.

- 멕시코의 외환 위기 원인 중 하나는 1994년 농민봉기이며,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는 농산물수급 불안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고조되었으므로,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의 안정이 중요하다.
- 멕시코는 1982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농업생산이 1996년까지 침체되었으며, 미국의 대공황시에도 제2차대전시까지 농업생산이 침체된 점등을 고려할 때, 농업생산이 일단 침체되면 단기간내에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영국은 국내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부분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위기 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있는 농업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미국은 대공황 중에도 국민들에게 농산물을 저가로 공급할 수 있었는데, 이는 농업생산의 하부구조가 확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위기 시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농업이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이 극대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미국정부와 국회는 농업조정법(AAA)의 위헌 판결 이후에도 농민의 구매력 제고를 위해 제2의 농업조정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농정의 일관성 유지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은 사료, 농약, 종자 등 농업투입재의 가격이 상승하여 축산, 사료산업, 농약산업, 식품가공산업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며, 따라서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투입재의 가격안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I. 경제 동향과 농업지표 전망

1. 경제지표 및 농업 동향

가. IMF와의 합의 내용

- 1997년 12월 3일 정부와 IMF간에 경제운용에 대한 합의사항이 발표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금융부문의 개혁조치를 단행하고 금융산업을 구조조정하며, 자본자유화를 가속화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합의사항 중 일부는 그 이후 양측의 합의에 따라 수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표 1-1과 같다.
- IMF 자금지원의 효과를 요약하면, 금융산업과 기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고금리로 기업의 투

표 1-1 정부-IMF간 주요 경제지표 수정안 변화, 1997. 12~98. 5

경제지표	1997. 12	1998. 1	1998. 2	1998. 5
성 장 률	3%	1~2%	1%	- 1%
물 가	5%이내	9%	9%대	한자리 수
경상수지	43억달러적자	30억달러흑자	80억달러 이상 흑자	210~230억 달러 흑자
재정적자	균형/소폭흑자	적자 불가피	GDP의 0.8% (3.6조원)	GDP의 1.75% (7.9조원)

자가 위축되고, 환율 상승 및 주식가격 하락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경영권이 쏠 가격에 외국자본에 인수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단기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불안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실업이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기초가 건실하기 때문에 IMF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극복하는데 대하여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며, IMF 자금지원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국면을 조속히 수습해나가야 한다.

나. 경제지표 변동

- 환율상승과 금융불안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어, 경제는 1998년 1/4분기에 부(負)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경상수지는 1997년 11월 이후 흑자로 전환

표 1-2 주요 경제지표 변화, 1997. 10~98. 5

항 목	'97. 10	'97. 11	'97. 12	'98. 1	'98. 2	'98. 3	'98. 4	'98. 5
경제성장률(%)	3.9p			-3.8p			-	
실업률(%)	2.1	2.6	3.1	4.5	5.9	6.5	6.7	6.9
경상수지(백만 달러)	-663.1	477.9	3,456.5	3051.6 ^p	3,912.6 ^p	3,651.2 ^p	3,812.2 ^p	-
수출	12,465	11,834	12,428	9,007	11,224	12,077	12,148	11,437
수입	12,591	11,710	10,216	7,530	8,011	8,365	8,240	7,670
무역수지	-126	124	2,212	1,477	3,213	3,712	3,908	3,767
생산자물가 '90=100								
총지수	123.6	124.5	134.7	141.3	145.3	144.8	145.4	143.1
농림수산물	136.3	138.5	139.4	144.3	145.0	146.1	147.7	146.2
소비자물가 '95=100								
총지수	110.6	110.7	113.5	116.2	118.2	118.0	118.4	117.8
식료품	109.6	109.0	110.3	113.6	115.4	116.7	117.5	118.0
환율 (원/달러)	921.9	1,025.6	1,484.1	1,706.8	1,623.1	1,505.3	1,392.0	1,394.6
외환보유액(백만달러)	30,509	24,404	20,406	23,515	26,715	29,749	35,544	38,761
회사채수익률(3년, %)	12.53	14.08	24.31	23.36	19.78	18.94	18.10	17.89
주가지수	584.1	494.1	390.3	475.2	525.2	523.0	444.2	356.3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합과 동시에 증가 추세에 있으며, 환율은 1998년 1월 1,706.8원/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 국면에 있고,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의 흑자 기조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실업률은 1997년 11월 2.6%에서 1998년 5월 현재 6.9%로 증가하였다.

- 물가는 생산자물가 기준으로 1997년 1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상승하고 그 이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농림수산품의 경우 1997년 5월부터 상승세가 멈추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1998년 4월을 기준으로 상승세가 멈추었으나 식료품 물가는 1998년 5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 이자율은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1997년 12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추세에 있으며, 주가지수는 1997년 12월에 급락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1998년 2월 이후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 농업 부문 동향

- 1998년 농림예산은 당초 8조5,276억원에서 추경 7조7,324억원으로 7,95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세출증대 및 세입결손으로 투자재원의 확보가 곤란하고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많은 재정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농업예산의 축소로 농업성장이 저하되고 농업 및 농촌 경제가 침체될 전망이다. 42조 구조개선사업의 마무리에도 차질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9년도의 농림예산확보가 침체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농가의 경영구조는 농업경영비의 상승과 정책자금 및 상호금융의 이자율 인상 등 지출비는 증가하는 가운데 축산물과 낙농품 등 소득탄력성이 높은 농산물부터 소비가 위축됨으로써 경영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실업 증가 및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도시가계의 실질소득과 실질자산이 감소하면서 지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농산물의 소비가 단 시일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환율상승에 따라 수입에 의존하는 농업용 원자재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농업경영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축산업의 경우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경영비는 증가하였으나 도시가계의 소득감소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경영여건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우는 경영 악화로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양돈은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사육두수와 생산량이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시설원예 등의 경영비는 크게 상승하였으나, 소비는 위축됨으로써 경종농가의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화훼류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여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이 확산되면서 일부 한계 농가가 영농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농업생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실업증가 및 자산가치의 하락 등에 따라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육류, 낙농품 및 과일류 등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의 소비 감소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등 농산물 소비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환율 상승으로 수입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농산물의 소비도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소득탄력성이 비교적 낮은 품목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소득탄력성이 부(負)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쌀의 소비와 관련하여 1인당 소비량이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과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의 쌀 정책과 관련하여 주요한 정책적 관심 사항으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 도시가계의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농산물의 유통량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이자율의 상승으로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농산물 유통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일부 품목의 도매시장 거래량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환율상승으로 외국 농산물의 수입량도 감소하였

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 농산물 유통업 참가인들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자금사정의 악화로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자율의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운영자금 부족으로 유통업자의 경영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한편, 농산물 직거래의 증가와 대형 할인점 등의 농산물 유통시장 진출 등 농산물 유통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1997년 말 현재 농가 호당 부채는 13,012천원이며, 1992~96년의 농가호수 감소율을 감안할 경우 1997년 말의 총 농가부채는 18.7조원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IMF 관리체제 이후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부채를 갖고 있는 농가의 이자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즉, 정책자금의 이자율은 1.5% 상승하였고 상호금융의 이자율도 3% 정도 인상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있으므로 많은 농가들이 단기영농자금을 차입하지 못하는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자본자유화의 가속화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로 일부 농업관련산업은 외국인 지배하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력과 기술이 앞선 외국자본이 농업관련산업에 진출할 경우 국내 농업관련기업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묘업의 경우 1998년에 들어와서 국내 상위의 종묘회사들이 외국자본에 인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종묘시장이 외국자본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유전자원의 보존 및 확보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도소매점 및 할인점 등에도 외국자본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외국의 대형 유통자본들은 공산품의 시장 몫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의 인하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규모가 영세한 국내 유통참가인들의 탈락이 증가하면서 농산물 유통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 6월 현재 농업 부문에서 외국인 투

자가 제한된 업종은 육우 사육업, 고기 도매업 및 보통작물 생산업 등 3개 업종뿐이다.

- 환율상승에 따라 농산물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수출은 증대하고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과일, 채소, 화훼, 인삼 등 농산물과 돼지고기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상승이라는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무역금융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수출에 차질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수출업체의 금융비용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환율이 1998년 1월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업체에 환차손이 발생하였으며, 수출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단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출액 증가율이 수출물량 증가율을 못 따르고 있다.
- 농업금융기관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국제결제은행 기준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는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자기자본화하고 1997년말 잉여금을 재적립하였으며, 후순위 차입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화긴축과 고금리 수준에 따라 기업의 부도가 증가하면서 부실 채권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업금융기관들도 자본을 확충하고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금융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협동조합 신용사업의 통합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 경기침체 및 비농업부문의 실업증가로 농림부문 신규 취업자 및 귀농자가 증가하면서 농림부문 취업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노임은 하락하고, 농지 및 임차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차료는 상승하고 있다.

- 농촌지역 병·의원들도 환율상승으로 고가 의료장비 리스대금에 대한 환차손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농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농어촌특별세에서 농촌지역 병원에 지원된 자금도 1998년부터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병원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 병·의원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일부 병원은 진료과목을 축소하였고, 의원급 병원들의 휴폐업도 증가하는 등 농민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2. 농업지표 전망

- 1998년의 농업성장률은 투입재 가격상승과 축산업 위축으로 -3.4% 성장할 전망이다. 축산업은 환율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5.9~6.8% 감소하고, 재배업 3.3%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1998년~2001년 기간중의 농업성장률은 연평균 0.8~0.9% 감소 전망이다. 축산업의 성장률은 -1.6~0.5%, 그리고 재배업의 성장률은 -0.8~-0.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1998년의 농축산물 가격(실질가격 기준)은 전년 대비 2.1~2.8% 감소될 전망이다. 경종작물의 가격은 3.5~4.0% 감소될 전망이나, 축산물가격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상요인이 크지만 수요위축으로 0.2~0.5% 정도 소

표 1-3 농업성장률 전망, 1993~2001

단위: %

	1993~96	1997~98	1998~2001
농업전체	3.3	-3.4~-3.5	-0.8~-0.9
재배업	3.2	-3.3	-0.8~-0.9
축산업	3.9	-5.9~-6.8	0.5~-1.6

주: 1998년 환율은 1,400원/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 8.7~9.7%, 경제성장률 -3.6~-4.7% 가정, 2001년의 경우 1,200~1,400원/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 3.4~5.0%, 경제성장률 1.4~5.3%로 가정

표 1-4 농축산물 실질가격 변동 전망, 1993~2001

단위: %

	1993~96	1997~98	1998~2001
농 산 물 전 체	2.3	-2.1 ~ -2.8	2.9 ~ 3.5
경 종 작 물	3.4	-3.5 ~ -4.0	4.1 ~ 5.5
축 산 물	-0.8	0.2 ~ 0.5	-0.7 ~ -2.8

표 1-5 농업노임의 변화, 1993~2001

단위: %

농 업 노 임	1993~96	1997~98	1998~2001
	1.5	-4.4~-5.5	- 0.1~3.3

주: 1990년 기준 실질가격지수임.

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998~2001년 기간의 농축산물 가격은 연평균 2.9~3.5% 증가할 전망이다, 그 중 경종작물의 가격은 4.1~5.5% 증가하지만 축산물가격은 0.7~2.8% 감소할 전망이다.

- 1993~96년 기간 중 농업노임은 연평균 1.5% 증가했으나, 1998년에는 실업 증가에 따른 이농 감소와 귀농 증가에 따라 4.4~5.5%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1998~2001년에는 경제여건의 호전에 따라 -0.1~3.3% 수준이 될 전망이다.

3. 외환위기에 의한 1998년 농업부문의 영향

가. 농업소득에 미친 영향

- 외환위기 때문에 농업 총생산액은 외환위기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9,510

억1,0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축산물 소비 감소로 쌀 수요가 증가하여 쌀 가격이 상승한 결과 곡물 생산액이 8,288억9,200만원 증가한데 기인한다.

- 외환위기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총비용은 2조4,504억4,900만원(23.2%)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품목별로 볼 때, 곡물 비용에서 8,380억3,400만원, 축산비용에서 8,027억9,700만원, 채소 4,18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외환위기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총농업소득은 1조4,994억3,900만원(8.4%)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역은 과수에서 5,442억7500만원, 축산에서 4,811억100만원, 채소에서 2,626억2,300만원 감소하는데 기인한다.

표 1-6 외환위기의 파급효과

단위: 백만원

	외환위기가 없었을 경우			외환위기 영향을 고려한 경우			차 액		
	생산액	비용	소득	생산액	비용	소득	생산액	비용	소득
곡물	9,882,644	2,352,418	7,530,226	1,071,1536	3,190,452	7,521,084	828,892	838,034	-9,141
채소	6,902,407	1,776,334	5,126,073	7,058,385	2,194,934	4,863,451	155,977	418,600	-262,623
과수	3,307,162	678,135	2,629,027	2,951,605	866,853	2,084,752	-355,556	188,718	-544,275
축산	5,902,285	4,929,666	972,618	6,223,982	5,732,464	491,518	321,697	802,797	-481,101
특용	2,489,105	804,762	1,684,343	2,489,105	1,007,062	1,482,043	0	202,300	-202,300
계	28,483,602	1,0541,315	17,942,287	29,434,613	12,991,765	16,442,848	951,010	2,450,449	-1,499,439

나. 금리부담에 의한 영향

- 농가가 대출받은 금융의 종류는 정책자금과 상호금융, 일반금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책금융의 금리 상승에 의한 부담증가액은 1,286억 3,4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상호금융 이자 상승에 의한 부담증가액은 3,363억9,600만원, 일반금융 이자 상승에 의한 부담증가액은 591억2,100만원으로, 이자 상승에 의한 연간 총 부담증가액은 5,241억5,100만원에 이른다.

다. 외환위기에 의한 1998년 농가의 손실액

- 외환위기로 인한 농가의 총 손실액은 2조235억9,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소득감소분은 1조4,994억3,900만원이고 이자상승에 따른 농가의 총 부담증가액이 5,241억5,100만원이다.

II. 주요 품목에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안

1. 곡 물

가. 현 황

1) 재배 동향

- 1990년에 163만ha이던 곡물* 재배면적은 1995년에는 130만ha로 빠르게 감소하였으나, 1995년 이후에는 안정세로 전환되었다. 1997년의 곡물 재배면적은 127만ha로써 전년 대비 2만ha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맥류 재배면적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1997년 곡물 재배면적의 구성은 미곡 105만ha, 두류 12만ha, 맥류 7만ha, 잡곡 3만ha 등이다.

표 2-1 곡물 재배면적 추이, 1990~97

단위: 천ha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쌀	1,244	1,208	1,157	1,136	1,103	1,056	1,050	1,052
맥류	160	127	103	117	85	90	95	70
잡곡	37	34	33	27	32	28	27	30
두류	188	155	135	146	147	133	122	122
계	1,629	1,524	1,428	1,426	1,367	1,295	1,294	1,274

* 이 장에서의 곡물은 쌀, 맥류, 잡곡 이외에 두류를 포함한 개념이며 서류는 제외됨.

2) 경영비 및 소득 동향

- 1990~97년에 곡물 재배업의 10a당 조수입은 품목에 따라 연평균 2~7% 상승하였다. 경영비의 연평균 상승률은 3~6%, 소득은 2~8% 상승되어 왔다.
- 품목별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쌀의 경우 7.9%, 보리 4.7%, 옥수수 1.7%, 콩 6.5%로서 1990~97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5.8%와 비교해볼 때 쌀과 콩의 경우는 물가상승률을 상회하였고, 보리와 옥수수는 물가상승률을 하회하였다.

표 2-2 곡물 재배업의 조수입, 경영비, 소득 추이, 1990~97

단위: 천원/10a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90~97 연평균 증감률(%)
쌀	조수입	581	603	651	620	679	737	890	928	6.9
	경영비	170	179	178	182	188	198	217	228	4.3
	소득	410	424	473	438	491	539	673	700	7.9
겉보리	조수입	198	220	265	249	259	317	296	272	4.6
	경영비	74	81	90	93	88	96	115	101	4.5
	소득	124	139	175	156	171	221	181	171	4.7
옥수수	조수입	318	283	336	324	319	328	345	370	2.2
	경영비	114	111	122	128	126	131	142	141	3.1
	소득	203	171	213	197	194	197	203	229	1.7
콩	조수입	225	237	275	295	303	355	385	345	6.3
	경영비	70	76	85	91	90	100	105	104	5.8
	소득	155	161	190	204	214	255	280	241	6.5

자료: 쌀, 겉보리는 농림부, 「1997년 농산물생산비통계」, 1998, 옥수수, 콩은 농촌진흥청, 「1997 농축산물 표준소득」을 이용.

3) 수급 동향

- 곡물 생산량은 1990년 675만톤이던 것이 1996년에는 527만톤으로 감소하였으나, 1997년 생산량은 기상여건의 호전에 힘입어 579만톤으로 전년 대비 10%가 증가하였다. 이중 쌀이 532만톤으로 92%를 차지한다.
- 곡물 소비량은 1990년에 1,601만톤이던 것이 1996년에 2,063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97년에는 1,959만톤으로 감소하였다. 용도별로 보면 식용이 1990년 623만톤에서 1997년 590만톤으로 감소하였으나, 가공용은 314만톤에서 396만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료용은 629만톤에서 938만톤으로 증가하였다.
- 곡물 자급률은 1990년에 42%이던 것이 1996년에는 26%로 하락하였으며, 1997년에는 생산 증가에 힘입어 30%로 상승하였다. 1997년 품목별 자급률은 쌀이 105%인 반면, 수입에 의존하는 밀, 옥수수, 콩 등 쌀 이외의 곡물은 3%에 불과하다.

표 2-3 곡물 수급 추이, 1990~97

	1990	1995	1996	1997(잠정)
소비량 (천톤)	16,008	19,782	20,633	19,585
생산량 (천톤)	6,751	5,627	5,271	5,790
수입량 (천톤)	10,010	14,255	14,277	14,159
이월량 (천톤)	3,656	3,119	2,034	2,398
재고율 (%)	22.8	15.8	9.9	12.2
자급률 (%)	42.2	28.4	25.5	29.6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1998.

4) 수입 동향

- 곡물 수입량은 1990년 1,001만톤(16억 달러)에서 1997년에는 1,416만톤(28

억 달러)으로 증가하였다. 1997년의 곡물 수입량 중 옥수수가 59%를 차지하며, 밀 23%, 콩 11%로 이들 세 품목이 93%를 점한다.

- IMF 구제금융 이후인 1998. 1~5월의 곡물 월평균 수입량은 114만톤으로 1997년 동기 대비 7.1% 감소하였다. 품목별로는 옥수수가 11.5%, 콩이 18.9% 감소하였으며, 밀은 32.5%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료용 밀의 수입량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다.
- IMF 구제금융 직후 외환 부족과 수입 신용장 개설이 안 되어 단기적으로 곡물수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1997. 12. 29일에 미국 농산물 수출금융인 GSM-102 자금 10억 6천만 달러를 활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곡물 수입이 원활하게 되었으며, 6월말까지 7억 2천만 달러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곡물 수입이 전반적으로 원활해 졌으나, 옥수수의 경우 사료용과 가공용에 대한 GSM-102 자금 배분이 따로 되어 있어 사료용 자금은 남고 가공용 자금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표 2-4 주요 곡물 수입량 추이, 1990~98. 5

단위: 천톤

	1990	1995	1996	1997	1998. 1	1998. 2	1998. 3	1998. 4	1998. 5
밀	2,239	2,860	3,107	3,339	353	331	351	400	409
옥수수	6,189	8,879	8,428	8,634	626	642	686	567	662
콩	1,092	1,435	1,467	1,628	74	107	113	141	113
계*	10,010	14,255	14,277	14,736	1,103	1,117	1,168	1,106	1,209

주: * 기타 곡물 포함.

자료: 농림부, 「양정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5) 가격 동향

- 국내산 쌀, 콩, 옥수수의 1998. 6월 현재 농가판매가격은 IMF 관리체제

직전인 1997. 10월 가격에 비하여 1~2% 상승에 그쳐 실질가격은 하락하였다. 단경기에 쌀가격이 적정하게 오르지 않아 쌀 유통에 있어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들이 적자경영상태에 있다.

- 수입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밀가루, 라면, 두부, 간장의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동기간에 20~54%에 달하였다.
- 1990년대에 국내산 곡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국제가격에 비하여 4배 이상 높았으나, 1998년에는 국제곡물가격의 안정과 환율 상승에 따라 가격 격차가 줄어들었다.
- 쌀의 경우 1997년까지 국내산 가격이 캘리포니아 중립종 국제가격(FOB)에 비하여 4~5배에 달하였으나, 1998년에는 3배 내외로 줄어들었다.

표 2-5 곡물 및 곡물가공제품의 가격 변동, 1997. 10~98. 6

	단 위	1997.10	1997.11	1997.12	1998.1	1998.2	1998.3	1998.4	1998.5	1998.6
곡물류										
쌀 ¹⁾	원/40kg	68,463	67,944	67,704	68,032	68,426	68,582	68,983	69,044	69,771
보리 ²⁾	원/40kg	24,850	24,850	24,850	26,280	26,280	26,280	26,280	26,280	27,730
옥수수 ³⁾	원/40kg	19,293	19,430	19,475	19,475	19,475	19,475	19,475	19,475	19,475
콩 ⁴⁾	원/40kg	70,670	70,034	69,608	69,820	70,330	70,841	71,642	71,059	71,059
곡물가공품										
밀가루 ⁵⁾	원/3kg	1,452	1,452	2,330	2,464	2,637	2,610	2,527	2,308	2,232
라면 ⁶⁾	원/봉지	321	321	321	372	411	427	427	427	423
두부 ⁷⁾	원/500g	500	500	500	566	566	566	566	606	606
간장 ⁸⁾	원/1ℓ	1,416	1,416	1,416	1,550	1,765	1,765	1,815	1,820	1,807

주: 1) 농가판매가격, 일반미, 정곡, 중품, 2) 정부수매가격, 조곡, 2등품, 3) 농가판매가격, 중품, 4) 농가판매가격, 백태, 중품, 5) 서울 소비자가격, 중력분, 6) 서울 소비자가격, 봉지라면, 7) 서울 소비자가격, 공장제품, 8) 서울 소비자가격, 진간장.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

표 2-6 주요 곡물의 국내외 가격 비교, 1990~98. 4

	1990	1995	1996	1997	1998. 1	1998. 2	1998. 3	1998. 4
쌀								
국내가격(A) ¹⁾	1,135	1,442	1,674	1,693	1,701	1,711	1,715	1,725
국제가격(B) ²⁾	237	321	378	404	624	651	547	517
A/B(배)	4.8	4.5	4.4	4.2	2.7	2.6	3.1	3.3
보리								
국내가격(A) ³⁾	548	686	711	686	745	745	745	745
국제가격(B) ⁴⁾	85	112	128	121	177	179	N.A.	N.A.
A/B(배)	6.4	6.1	5.6	5.7	4.2	4.2	N.A.	N.A.
밀								
국제가격 ⁵⁾	96	143	167	153	219	230	192	174
콩								
국내가격(A) ¹⁾	944	1,719	1,760	1,748	1,746	1,758	1,771	1,791
국제가격(B) ⁶⁾	175	209	245	284	429	443	365	N.A.
A/B(배)	5.4	8.2	7.2	6.2	4.1	4.0	4.8	N.A.
옥수수								
국내가격(A) ¹⁾	265	439	472	484	487	487	487	487
국제가격(B) ⁷⁾	78	100	133	113	180	186	157	143
A/B(배)	3.4	4.4	3.6	4.3	2.7	2.6	3.1	3.4

주: 1) 농가판매가격, 중품, 2)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2, F.O.B., 3) 쌀보리 기준 수매 가격, 1등급, 4) Western Portland, #2, F.O.B., 5) 미국 Gulf, 겨울밀, 강력, 적색, #1, F.O.B., 6) 네덜란드 로테르담, C.I.F., 7) 미국 Gulf, 황색종, #2, F.O.B.

6) 곡물 가공제품 수급 및 가동률 동향

- 1997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던 주요 곡물 가공식품 소비량은 1998년에는 원가 상승과 수요 위축에 따라 소비와 생산이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주요 곡물 가공품의 1998. 1~5월 월평균 출하량을 보면, 밀가루의 경우 136천톤으로 1997년의 145천톤에 비하여 6% 감소하였고, 라면은 40천톤으로 전년과 비슷한 출하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재고량은 전년의 2배 수준이다. 대두유는 18천톤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으며, 맥주는 115천톤으로 전년보다 18% 감소하였고, 재고량은 증가하였다.

표 2-7 주요 곡물 가공품의 생산, 출하, 재고량 변동, 1990~98. 5

	1990*	1995*	1996*	1997*	1998.1	1998.2	1998.3	1998.4	1998.5
밀가루(천톤)									
생산량	135	140	141	146	153	143	124	142	137
출하량	132	137	136	145	150	127	121	142	140
재고량	45	38	46	60	37	48	49	46	41
라면(천톤)									
생산량	38	38	40	41	42	47	42	38	37
출하량	36	38	40	41	41	44	41	38	38
재고량	3	3	3	5	8	10	11	11	9
대두유(천kl)									
생산량	15	18	19	23	19	14	11	20	16
출하량	15	18	19	23	31	11	12	16	19
재고량	5	13	10	12	5	8	7	11	8
맥주(천kl)									
생산량	109	144	143	140	124	131	90	109	126
출하량	108	146	144	141	118	140	82	106	129
재고량	11	17	16	15	21	13	21	23	19

주: * 월평균 수치임.

자료: 통계청, 「산업생산통계」.

- IMF 관리체제 직후 외환 부족과 수입 신용장 개설이 안되어 곡물수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국내은행들이 수입 신용장 개설에 100% 담보(현금예금 등)를 요구하고 부동산 담보 평가 기준이 강화되어 일부 업체들의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다.
- 곡물가공업계는 전반적인 수요 감퇴로 가동률이 저하되고 경영수지가 악화되었다. 제분업계의 경우 1998년 1~4월의 가동률은 68%로서 전년 동기의 70% 보다 저하되었으며, 1998년 1~3월의 환차손은 259억원으로서 1997년 연간 607억원의 43%에 달하였다. 대두유업계의 경우 1998년 1~5월의 가동률은 76%로서 전년 동기의 99%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나. 영향 및 전망

1) 곡물 재배업 소득

- 1998년 곡물 재배업의 조수입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경영비는 생산요소가격의 상승에 따라 오를 것이며, 소득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쌀의 경우 1997년의 단수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한데 비하여 1998년에는 기상여건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재고량이 충분하여 가격도 약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0a당 조수입은 전년 대비 약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영비는 환율 수준에 따라 12~18% 상승할 것이며, 소득은 9~1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리의 경우 1998년산이 흉작을 기록함에 따라 10a당 조수입은 전년 대비 약 2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영비는 12~19% 상승하여 소득은 44~49% 대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콩의 경우 1998년 10a당 조수입은 전년 대비 약 1% 감소하고, 경영비는 15~24% 상승하여 소득은 8~1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의 경우 1998년 10a당 조수입은 전

년 대비 약 4% 증가하고, 경영비는 14~22% 상승하여 소득은 2~7%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8 곡물 재배업의 조수입, 경영비, 소득 전망, 1998

단위 : 천원/10a

	1997	1998년 환율 수준 (원/달러)		
		1,300	1,400	1,500
쌀	조수입 ¹⁾	928	888 (-4.3) ⁴⁾	888 (-4.3)
	경영비 ²⁾	228	254 (11.5)	270 (18.2)
	소득 ³⁾	700	634 (-9.4)	618 (-11.7)
겉보리	조수입 ¹⁾	272	208 (-23.5)	208 (-23.5)
	경영비 ²⁾	101	113 (12.1)	121 (19.1)
	소득 ³⁾	171	95 (-44.4)	87 (-49.1)
콩	조수입 ¹⁾	345	341 (-1.2)	341 (-1.2)
	경영비 ²⁾	104	120 (14.9)	129 (23.6)
	소득 ³⁾	241	221 (-8.3)	212 (-12.0)
옥수수	조수입 ¹⁾	370	386 (4.3)	386 (4.3)
	경영비 ²⁾	141	161 (14.2)	173 (22.3)
	소득 ³⁾	229	225 (-1.7)	213 (-7.0)

주: 1) 10a당 조수입은 단수와 가격에 의하여 결정됨. 단수의 경우 농림부 1998년 생산 계획치를 적용하고 겉보리의 경우는 98년산 잠정치(쌀 470kg/10a, 겉보리 175kg, 콩 147kg, 옥수수 406kg). 가격은 수매가격 인상률 5.5%를 일률적으로 적용함. 환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조수입을 가정함.

2) 경영비 항목별 1997. 1~6월 대비 1998. 1~6월 농가구입가격지수 증감율을 적용함. 단, 농지 임차료는 2% 상승(현지조사자료)을 가정함.

3) 소득은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수치임. 4) () 안은 1997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 농림부, 「1997 농산물생산비통계」.

농촌진흥청, 「1997 농축산물표준소득」.

2) 벼 재배농가의 경영비

- 벼 재배농가의 규모별 10a당 경영비 상승률은 5.0ha 이상의 대농이 1997년 대비 9~15%, 0.5ha 이하의 소농계층이 11~18%, 중농계층이 12~20%로 중농계층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대농계층의 경우 농기계의 작업효율이 높아 감가상각비 상승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생산요소 투입을 집중적으로 하는 중농계층은 투입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상승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표 2-9 벼 재배규모별 경영비 전망, 1998

단위 : 천원/10a

	1997	1998년 환율 수준 (원/달러)		
		1,300	1,400	1,500
0.5ha 이하	214	238 (11.3)	245 (14.7)	252 (17.9)
0.5~1.0ha	205	229 (11.9)	236 (15.4)	243 (18.8)
1.0~1.5ha	212	238 (11.8)	245 (15.4)	252 (18.7)
1.5~2.0ha	231	258 (11.5)	266 (15.0)	273 (18.2)
2.0~2.5ha	225	252 (12.3)	261 (16.0)	268 (19.5)
2.5~3.0ha	241	269 (11.7)	278 (15.2)	286 (18.5)
3.0~5.0ha	251	280 (11.7)	289 (15.2)	298 (18.5)
5.0ha 이상	312	342 (9.5)	351 (12.3)	359 (15.0)

주: () 안은 1997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농림부, 「1997 농산물생산비통계」, 농촌진흥청, 「1997 농축산물표준소득」.

3) 소 비

- 1990년대 들어서 1997년까지 줄어들던 쌀의 총소비량은 1998년에는 육류 소비의 증가 둔화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1997년의 508만톤 보다 약간 늘어난 510~52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0 곡물 소비량 전망, 1998

단위: 천톤

	1997	1998 환율 수준 (원/달러)		
		1,300	1,400	1,500
식용	5,895	5,802	5,873	5,943
가공용	3,958	3,621	3,545	3,469
사료용	9,379	9,545	9,273	9,002
종자, 감모 등	353	400	400	400
계	19,585	19,368	19,091	18,814

- 1998년 곡물 총소비량은 1,881~1,937만톤으로 1997년의 1,959만톤보다 1~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용도별로는, 식용 소비량이 1997년 590만톤에서 1998년에는 580~594만톤으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공용 소비량은 수입가격의 상승에 따라 1997년 396만톤에서 1998년에는 347~362만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료용 소비량 역시 축산업의 위축에 따라 1997년 938만톤에서 1998년에는 900~955만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생산 및 수급

- 1997년산 쌀의 대풍에 힘입어 1998 양곡년도의 소비를 위한 국내 생산량은 전년 대비 7~13만톤이 늘어난 586~592만톤으로 전망된다.
- 1997년 30%이던 곡물 자급률은 1998년에는 생산 증가와 수입 감소에 따라 30~3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1998 양곡년도말 미곡 재고량은 약 100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총소비량 대비 재고율은 약 20%로서 적정 수준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1 곡물 수급 전망, 1998

	1997 (실적)	1998 (전망)
소비량 (천톤)	19,585	18,810 ~ 19,370
생산량 (천톤)	5,790	5,860 ~ 5,920
수입량 (천톤)	14,159	12,890 ~ 13,510
자급률 (%)	29.6	30.3 ~ 31.5

5) 수 입

- 환율 상승으로 곡물 수입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998년 곡물 수입량은 1997년의 1,416만톤보다 5~9% 감소한 1,290~1,35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1997년 28억 달러에 달하던 곡물 수입액은 1998년에는 국제곡물가격의 안정과 수입량 감소로 22~23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환율 상승에 따라 원화 지출액은 1997년의 2조 7천억원보다 환율 수준에 따라 2~8천억원 가량 늘어난 2조 9천억~3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6) 가 격

- 1998년 국내산 곡물 가격은 1997년산 쌀의 풍작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약 4~6%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곡물의 수입가격은 환율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30~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입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곡물가공품 가격은 20~5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대응방안

1) 쌀 시장가격지지를 위한 계절진폭 유지

- 부정기적으로 방출하고 있는 정부 보유미의 공매를 정기적으로(예: 월 2회 원칙) 실시하여 산지가격의 계절진폭을 선도하고, 목표 계절진폭(예: 7월 10%)이 형성되지 않으면 차기 공매량을 축소하는 방출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2) GSM-102 자금의 탄력적 배분

- 1998년 GSM-102 자금배정액 중 사료업체 미사용분을 가공업체로 추가 배정한다. 1999년에도 GSM-102 자금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금 배분 시에 옥수수의 사료용과 가공용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운영자금난을 겪고 있는 곡물가공업체들의 신용보증기금 보증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수출입은행 등의 신용대출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3) 경영비 절감 노력 강화

- 환율 상승에 따른 곡물 재배업 경영비의 상승을 줄이기 위하여 비료, 농약 등의 적정량 시용 및 이에 대한 홍보,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환경보전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곡물 증산체제 강화

- 콩, 맥류 생산단지에 대한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국내산 곡물의 증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5) 직접지불제 확대로 농가소득 보전

- 곡물 재배업은 소득은 낮으나 경영비가 적게 들므로 소득의 안전성만 보

장되면 농가들의 재배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영농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의 재해지원을 강화하거나, 「자연재해보상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 비료, 농약을 덜 쓰는 「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투입량 기준, 점검 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한 실행방법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6) 곡물 수입의 효율화

- 환율 불안정에 대처하여 쌀, 보리 등 국영무역에 의한 수입곡물의 선적시기와 환율을 모니터링하여 수입대금 결제 환차손 위험을 분산하여야 할 것이다.
- 곡물수입을 일괄입찰방식(flat buying)에서 국제 선물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고, 국영무역의 쿼터를 시범적으로 실수요자에게 공매함으로써 곡물 수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2. 축 산

가. 축산업 현황 및 영향

1) 현 황

- 육류 소비량은 1990년 86만톤에서 1997년 138.4만톤으로 연평균 7.7% 늘어나고 있다. 1997년 육류 소비량 중 쇠고기는 36.2만톤, 돼지고기는 73만톤, 닭고기는 27.9만톤을 차지한다.

- 육류 자급률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95% 이상인 반면, 쇠고기의 경우 54%이다. 2001년까지 쇠고기는 30%,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90% 이상 자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축산농가 호당 사육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업농이 증가하고 있다. 1980년부터 1997년까지 17년간 한육우는 1.4두에서 5.9두로, 젖소는 9.4두에서 30.6두로, 돼지는 3.5두에서 263두로, 닭은 58마리에서 545마리로 각각 확대되었다.
- 중소가축 및 우유의 사료비 비중이 크다.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사료비의 비중을 보면, 비육우는 32.2%, 비육돈은 62.3%, 육계와 계란은 각각 71.1%, 우유는 78.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2 전업규모 축산농가수, 1992~97

단위: 호

	1992	1995	1997
한우 (50두 이상)	1,190	2,458	4,053
돼지 (1천두 이상)	527	1,113	1,663
닭 (3만마리 이상)	32	663	846
젖소 (50두 이상)	717	1,325	2,331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표 2-13 축종별 경영비와 사료비 비중, 1997

	단 위	경영비(A)	사료비(B)	사료비 비중(B/A, %)
비 육 우	천원/500kg	2,478	798	32.2
비 육 돈	천원/100kg	138	86	62.3
육 계	원/kg	949	675	71.1
계 란	원/10개	575	409	71.1
우 유	원/kg	322	252	78.3

자료: 축협중앙회, 「축산물 생산비 조사보고」, 1997.

2) 영 향

- 1997년 12월 환율상승으로 2차에 걸쳐 배합사료 가격이 40.4% 인상되었으나, 4월 하순 이후 환율과 사료원료 공급의 안정으로 4차례에 걸쳐 23% 정도 가격을 인하하였다.
- 종래에는 2~3개월 결제 조건으로 농가가 사료를 외상 구입하였으나, 1997년 12월부터 이전의 외상 청산은 물론이고 사료대금 선납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사료사정이 호전되어 사료 외상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사료대금을 선납할 경우 사료 구입단가는 낮아진다.
- 배합사료가격의 상승으로 남은 음식물 사료화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사료결제조건의 변화와 농가의 자금압박으로 농가는 1998년 말 이후 경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환율 상승으로 비육우를 제외한 축산경영비의 상승폭이 크며, 특히 배합사료 의존도가 높은 양계 및 양돈 경영비 상승폭이 크다. 비육우의 경영

표 2-14 사료가격 변화율

	인상전 (’97.12.9)	1차 인상 (’97.12.10)	2차 인상 (’97.12.22)	1차 인하 (’98.4월하순)	2차 인하 (’98. 6.1)	3차 인하 (’98.7.20)	4차 인하 (’98.8.13)
변화율(%)	-	10.0	27.6	-5.2	-3.1	-5.0	-4.0
육성돈 사료가격(원/kg)	274 (100.0)	301.4 (110.0)	384.6 (140.4)	364.6 (133.1)	353.3 (128.9)	335.6 (122.5)	322.2 (117.6)

주: () 안은 인상 전 대비 지수임.

비 변화가 적은 이유는 산지가격 하락에 의해 송아지 구입비(가축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며; 경영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이 경영비 이하에서 형성되고 있어 한육우 농가의 손실이 크다.

- 축산물 소비 감소가 심각하다. 닭고기, 우유의 소비는 12~21% 감소하였다. 특히 수입쇠고기 소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반면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량은 10~14% 증가하였다.
- 소비 감소의 요인은 소득감소에 의한 부분이 크지만, 산지가격이 하락한 만큼 정육점의 쇠고기 판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확대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쇠고기 소비 부진은 수입육 소비 부진에 기인하는 바가 크게 나타났다. 돼지고기 도축량이 늘어난 것은 수출물량 확대와 타 육류(특히 쇠고기)를 국내 돼지고기로 대체에 의한 소비 확대에 기인하며, 우유 소비부진의 이유는 소득 감소와 가격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5 축종별 경영비 변화

	1997	환율 수준 (원/달러)		
		1,300	1,400	1,500
비육우(천원/500kg·두)	2,478	2,288 (-7.0)	2,356 (-4.9)	2,426 (-2.1)
비육돈(천원/100kg·두)	138	149 (8.0)	157 (13.8)	166 (20.3)
육계(원/생체kg)	949	1,208 (27.3)	1,277 (34.6)	1,343 (41.5)
계란(원/10개)	575	756 (31.5)	797 (38.6)	836 (43.4)
우유(원/kg)	322	408 (26.7)	427 (32.6)	447 (38.8)

주: 가축비는 1998년 5월 자축가격을 적용함. ()안은 1997년 대비 경영비 상승률임.

비육우의 경우 비육기간이 20개월 정도이므로 1999년도 경영비에 해당함.

자료: 축협중앙회, 「축산물 생산비조사보고」, 1998.

표 2-16 축산물 소비실적 비교, 1997~98(1~5월)

단위: 천톤

	1997. 1~5월	1998. 1~5월	변화율(%)
쇠고기 국내산	91.4	101.7	11.3
수입육	52.5	24.1	-54.1
쇠고기계	143.9	125.8	-12.1
돼지고기 ¹⁾	4,363	4,974	14.0
닭고기 ¹⁾	129.0	113.3	-12.2
우유 ²⁾	825	625	-21.0

주: 1) 도축실적임(돼지고기 천두, 닭고기 백만수), 2) 1~4월 통계임.

자료: 축협중앙회, 「축협조사월보」.

- 환율상승으로 국내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되었다. 돈육 수출실적을 보면, 1997년 1~5월 사이 16,756톤이었으나, 1998년 1~5월 사이에는 31,768톤으로 8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축산물 수입실적을 보면, 쇠고기는 1997년 1~5월 동안 54,773톤에서 1998년 1~5월에는 24,968톤으로 54.4% 감소하였으며, 돼지고기 수입량은 1997년 1~5월에는 34,033톤이었으나, 1998년 1~5월에는 17,317톤으로 49.1% 감소하고, 닭고기 수입량은 1997년 1~5월 동안 월 평균 1,152톤을 수입하던 것이 1998년 1~5월 동안에는 906톤으로 2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축종별 현황과 영향 및 전망

1) 한육우

가) 현 황

- 한우 산지가격은 1997년 11월 240.6만원(수소 500Kg)하던 것이 1998년 8

월에는 200만원으로, IMF 구제금융 이전인 1997년 11월에 비해 두당 40만원 이상 하락되었다:

- 제한수매로 중간상인들이 수매가 완료될 때까지 소를 구입하지 않고 관망하기 때문에 수매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수매대상(호당 1~2두) 이외의 소를 따로 출하하기 때문에 운송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WTO의 De-Minimis 규정에 의하여 1998년에는 105,600두 정도까지 수매가 가능하지만, 6월까지 이미 79,447두를 수매하여 앞으로 수매물량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매방식을 일정가격 큰소 수매에서 시가수매 및 중소 수매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 영 향

- 한우산지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송아지 가격도 하락하여 한우 경영비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이 경영비보다 낮아 한우농가는 적자경영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 번식위주의 소규모 농가는 농후사료를 조사료로 대체 가능하므로 규모를 현상 유지하지만, 비육위주의 일부 중·대규모 농가는 소득 하락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 IMF체제의 영향으로 쇠고기 가격 인하 판매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현상은 특히 브랜드 판매점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브랜드직매점의 판매량 및 매출량 감소가 커서 IMF의 피해가 가장 큰 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 송아지가격 하락에 의해 경영비가 다소 하락하였지만, 산지가격 하락 폭

과 소비 감소율이 커서 한육우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표 2-17 쇠고기 판매장 형태별 월 판매두수, 매출액 및 가격 변화율
단위: %

	월 판매두수 변화	월 매출액 변화	가격 인하율 (특상등급, 양지)
백화점	- 8.8	- 20.0	- 13.1
양판점	- 12.7	- 16.7	- 15.2*
브랜드직매점	- 40.0	- 50.7	- 35.2
축협직매장	+ 42.8	+ 9.3	- 42.9
축협소매점	- 18.8	- 29.7	- 16.7
정육점	- 34.0	- 41.7	- 13.0*

주: * 상등급 판매가격 인하율임.

표 2-18 한육우 및 쇠고기 생산, 소비, 수입 동향

	생 산		소비 (천톤)	수입 (톤)
	가격 (천원/500kg)	경영비 (천원/500kg)		
1997. 1~5	2,441	2,478 ¹⁾	143.9	54,773
1998. 1~5	2,131	2,356 ²⁾	125.8	24,968
증감 (%)	-12.7	-4.9	-12.1	-54.4

주: 1) 1997. 1~5월의 경영비는 1997년도 생산비 조사결과 보고치임, 2) 추정치임.
자료: 축협중앙회, 「축협 조사월보」 및 「축산물 생산비조사보고」.

다) 전 망

- 한육우 및 쇠고기 수급을 전망해 보면, 199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한육우 사육두수는 4.7% 내지 9.1% 감소하여 250~270만두로 전망된다. 전반기

에 도축이 증가하여 1998년 쇠고기 생산은 2~13% 증가할 전망이며, 이월 수입쇠고기 재고 4만2천톤과 수입쿼터량 증가, 수입쇠고기 판매부진으로 재고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UR협상결과에 따라 1998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2만톤 증가한 18.7만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여야 하지만, 이중 수요자 자율구매(SBS)에 의한 수입물량은 유동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한육우의 산지가격을 전망해 보면, 후반기에 약간 상승하여 200만원 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두당 소득은 1997년도 74천원에서 1998년도에는 35만6천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실의 폭은 규모가 클수록 크게 나타났다.

사 육 두 수: ('97) 273.5만두 → ('98) 250~270만두로 1~9% 감소 전망
 쇠고기 생산: ('97) 23.3만톤 → ('98) 23.8~26.3만톤으로 2~13% 증가 전망
 수입 할당량: ('97) 16.7만톤 → ('98) 18.7만톤
 공 급 량: ('97) 40.4만톤 → ('98) 46.7~49.2만톤으로 15~22% 증가 전망
 재 고: ('97) 4.2만톤 → ('98) 12.0만톤

표 2-19 비육우 소득 전망

단위: 천원

구 모	5두 미만	5~20두	20두 이상	평 균
가격(조수입) 전망	2,000			
경 영 비 (추 정)	2,250	2,397	2,421	2,356
소 득 (추 정)	-250	-397	-421	-356

주: 가축비는 1998년 5월 자축가격을 적용함. 비육우의 경우 비육기간이 20개월 정도이므로 1999년도 경영비에 해당함.

2) 양 돈

가) 현 황

- 1997년 11월 14.6만원하던 산지 성돈가격은 12월 13.6만원까지 하락하다가 1998년 3월 평균가격 20.1만원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1998년 5월에는 17.4만원이 되었다.
- 소규모 부업농가와 중규모 전업농가는 경영비 상승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대규모 농가의 경우 시장정보에 대한 분석 및 예측능력이 있어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 돼지가격 상승률보다 사료 등 생산요소가격 인상에 따른 경영비 상승률이 커 경영이 어려우나, 아직까지는 산지가격보다 경영비 수준이 낮아 사육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영 향

- 환율 상승으로 수입은 감소되고, 수출과 소비는 증가되어 타 축산부문에 비해 경영여건이 양호하지만, 수출의 지속적 확대가 관건일 것으로 판단

표 2-20 돼지 및 돼지고기 생산, 소비, 수출입 동향

	생 산		소비 ³⁾ (천두)	수 출 입	
	가격 (천원/100kg)	경영비 (천원/100kg)		수 출	수 입
1997. 1~5	174.8	138 ¹⁾	4,368	16,756	34,033
1998. 1~5	184.8	157 ²⁾	4,974	31,768	17,317
증감 (%)	5.7	13.8	14.0	89.1	-49.1

주: 1) 1997. 1~5월의 경영비는 「1997년도 생산비 조사결과」 보고치임.

2) 추정치, 3) 도축실적임.

자료: 축협중앙회, 「축협 조사월보」 및 「축산물 생산비조사보고」.

된다. 수출조건이 유리해져 1998년 돼지고기 수출은 전년도보다 37% 증가한 7만톤이 될 전망이다.

- 수입산과 국내산 돼지고기간 가격 역전현상으로 고급육 수입량은 전년도보다 감소하지만, GSM-102자금 수여로 저급육 수입은 늘어나 전체 수입량은 2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전 망

- 돼지 및 돼지고기의 수급을 전망해 보면, 가격이 경영비 이상에서 형성되어 1998년 돼지 사육두수는 전년도에 비해 18.4% 증가한 772만두가 될 전망이다.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하지만, 사육두수가 전년도에 비해 8.7% 증가하여 1998년도 돼지고기 소비량은 전년도 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 산지 돼지가격은 추석을 전후하여 다소 회복되고, 이후 과다사육으로 16.5원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1/4분기에 가격이 다소 높았으므로 연평균 산지가격은 18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 두당 소득은 1997년도에 39천원이었으나, 1998년도에는 23천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영비 상승률은 중규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지지만, 가격수준이 경영비를 상회하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 | | | |
|---------|--------------|---|------------------------------------|
| - 사육두수: | (’97) 710만두 | → | (’98) 772만두로 8.7% 증가 전망 |
| - 생 산: | (’97) 74.1만톤 | → | (’98) 76.1~79.4만톤으로 2.7~7.2% 증가 전망 |
| - 소 비: | (’97) 73.0만톤 | → | (’98) 74.1~77.4만톤으로 1.5~6.0% 증가 전망 |
| - 수 출: | (’97) 5.1만톤 | → | (’98) 7만톤으로 37% 증가 전망 |
| - 수 입: | (’97) 6.5만톤 | → | (’98) 2.5만톤으로 감소 전망 |

표 2-21 양돈 소득 전망

단위: 천원

	100두미만	100-500두	500두 이상	평균
가격(조수입) 전망	180			
경영비(추정)	152	163	156	157
소득(추정)	28	17	24	23

주: 가축비는 1998년 5월 자축가격을 적용함.

3) 양 계

가) 현 황

- 육계가격과 계란가격은 상승 후 2~3월 이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육계가격은 1997년 11월 생체 kg당 969원에서 1998년 3월에는 1,662원으로 상승하였으나, 1998년 5월에는 1,280원으로 하락한 바 있다. 계란 농가 수취가격은 1997년 11월 대란 10개당 796원하던 것이 1998년 1월에는 1,067원으로 상승하였다가 다시 1998년 5월에는 679원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 소비자가격은 상승하였다.

	<u>1997. 11</u>	<u>1998. 5</u>
· 계란 농가수취가격(원/대란10개)	796	678
· 계란 소비자가격(원/대란10개)	933	1,030

나) 영 향

- 육계의 경우 산지가격이 생산비에는 못 미치지만 경영비는 보상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부업농가는 규모를 현상 유지 내지 확대하고 있지만, 계열화 농장을 비롯한 중규모 이상의 농가는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IMF

구제금융이 있는 1997년 11월 이후 계열화업체의 경영난으로 계약농가에 대한 대금결제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사료 등 생산요소가격 인상으로 경영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 산란계의 경우 계란가격이 경영비에도 못 미쳐 경영이 어려운 상태이다. IMF 구제금융이 있는 1997년 11월 이전에 산란계 농가가 전업농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으로부터 다액의 시설리스자금을 차입하였으나, 환율상승으로 인해 환차손이 크게 발생하였다. 산란계 3만수 규모의 A농장(평택 소재)의 경우, 1997년 2월 환율이 달러당 858원으로 55만달러(월 10,258달러씩 상환)의 시설리스를 하여, 6개월분 환차손만 3,336만원에 달한다.
- 계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6월 3일부터 1개월간 부화장에서의 생산을 중단할 정도로 어려움이 나타났다. 산란계 농가는 시설의 리스에 의한 환차손 때문에 자금압박을 크게 받고 있으며, 경기도 좋지 않아 후반기에 부도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육계의 경우 전년 동기에 비해 가격상승률은 13.8%로 경영비 상승률 34.6%에 못 미치고, 소비도 12.2% 감소하여, 육계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표 2-22 육계 및 닭고기 생산, 소비, 수입 동향

	생 산		소 비 ³⁾ (백만수)	수 입 (톤/월)
	가 격 (원/수)	경영비 (원/수)		
1997. 1~5	1,229	949 ¹⁾	129.0	5,760
1998. 1~5	1,399	1,277 ²⁾	113.3	4,530
증감 (%)	13.8	34.6	-12.2	-21.3

주: 1) 1997. 1~5월의 경영비는 「1997년도 생산비 조사결과」 보고치임.

2) 추정치, 3) 도축실적임.

자료: 축협중앙회, 「축협 조사월보」 및 「축산물 생산비조사보고」.

다) 전 망

- 닭고기의 수급을 전망해 보면, 사료비 상승과 생산조절로 국내 양계농가가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수입은 2만 5천톤 내지 3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닭고기 소비량은 1997년 수준이거나 약간 증가하여 29~31만톤이 될 전망이다.
- 계란의 경우 환율 상승으로 난가공품 수입이 감소되어 국내산 계란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3월 이후 환율의 안정화 경향과 사료 수급이 안정화됨으로써 사육심리가 다시 일어나 계란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상승으로 난가공품 수입은 감소하고, 1998년 3월 이후 사료공급과 환율의 안정화로 사육심리가 부활되면서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 육계 : 소비량 : ('97) 27.9만톤 → ('98) 29~31만톤
수 입 : ('97) 1.8만톤 → ('98) 2.5~3.0만톤

표 2-23 양계 소득 전망

	계란(원/대란 10개)				육계(원/수)			
	5,000수 미 만	5,000~ 15,000수	15,000수 이 상	평 균	5,000수 미 만	5,000~ 20,000수	20,000수 이 상	평 균
가격(조수입) 전망	700~800				1,400			
경 영 비 (추 정)	814	803	774	797	1,315	1,269	1,265	1,277
소 득 (추 정)	-114~ -14	-103~ -3	-74~ -26	-97~ -3	85	131	152	123

주: 가축비는 1998년 5월 자축가격을 적용함.

- 육계가격은 1998년 2~3월 이후 약보합세이나, 수입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여름철 성수기와 상반기 종계 입추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후반기에 육계가격은 1,400원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계란가격은 1998년 2~3월 이후의 약보합세가 계속되어 700~800원(대란 10개)이 될 전망이다. 계란가격이 하락하자 부화장은 1998년 6월 3일부터 1개월간 생산을 중단하였는데, 생산중단 효과는 2년 정도 후에 나타나게 되어 1999년 말 이후 산란계 및 계란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 육계 생체 kg당 소득은 1997년도에는 129원이었으나, 1998년에는 123원으로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계란 소득은 대란 10개당 1997년 68원이었으나, 1998년도에는 3~97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계란의 경우 가격수준이 경영비를 하회하여 어두울 전망이지만, 육계의 경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낙 농

가) 현 황

- 1998년 1월부터 원유가격이 18.4% 인상되었으며, 유제품 가격도 20% 인상되었다. 소비 증대를 위해 가격을 인하(서울우유 조합 6월 중순 유제품가격 6.9% 인하)하고, 소비홍보 활동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조금 제도 도입을 논의 중에 있다.
- 사료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1997년 이후 하락세에 있던 젖소 가격의 하락속도가 2월까지 빨라지다가 3월 이후 둔화되고 있다. 초임 만삭인 젖소 가격이 1997년 1월 201만원에서 1997년 12월 181만원, 1998년 8월 130만원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암 송아지 가격도 1997년 1월 30만원, 1997년 12월 21만원, 1998년 8월 6만원으로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 유대 인상과 수요 감축으로 분유재고 체화가 심각하다. 1998년 1월 원유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영비 상승률이 커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며, 소비 감소로 인해 재고분유가 누적되고 있다. 분유재고는 1998년 5월말 현재 1.5만톤이다. 분유재고가 축적되자 정부는 1999년부터 원유의 계획생산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는데, 낙농가는 보다 많은 쿼터량을 배정 받기 위해 사육두수를 줄이지 않고 있다.

나) 영 향

- 분유재고 누적과 위생수준이 낮은 원유에 대한 벌칙강화로 저등급 농가의 탈락이 예상된다.
- 유대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산요소가격이 대폭인상되어 경영비가 증가하였다. 소득감소와 가격인상의 영향으로 우유 소비가 21% 감소하였다.

표 2-24 우유 생산, 소비 동향

	생 산		소비 ³⁾ (천톤)
	가격 (원/kg)	경영비 (원/kg)	
1997. 1~5	494	322 ¹⁾	825
1998. 1~5	553	427 ²⁾	625
증감 (%)	11.9	32.6	-21.0

주: 1) 1997년 1~5월의 경영비는 「1997년도 생산비 조사결과」 보고치임.

2) 추정치, 3) 1~4월 통계임.

자료: 축협중앙회, 「축협 조사월보」 및 「축산물 생산비조사보고」.

다) 전 망

- 우유의 수급을 전망해 보면, 환율 상승으로 수입 유제품 가격이 상승되었으나 국내산 유제품 가격도 20% 정도 상승됨에 따라, 수입은 1997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유 소비는 1997년 대비 3.7% 감소한 234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유 소비는 전년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환율 상승으로 수입 유제품 가격이 상승되었으나 국내산 유제품 가격도 20% 정도 상승됨에 따라, 유제품 수입은 1997년 수준인 38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 | | |
|------------------|--------|-----------|--------------------|
| - 사육 두수: ('97) | 54.4만두 | → ('98) | 56만두로 3% 증가 전망 |
| - 우유 소비: ('97) | 243만톤 | → ('98) | 234만톤으로 3.7% 감소 전망 |
| - 분유 재고: ('98.5) | 1.5만톤 | → ('98년말) | 1.9만톤 |
| - 수 입: ('97) | 39.1만톤 | → ('98) | 38.0만톤 |

- 우유 kg당 소득은 1997년도 172원에서 1998년도에는 126원으로 소득이 감소되며, 특히 중규모 농가의 소득 감소가 클 전망이다.

표 2-25 낙농 소득 전망

단위: 원/kg

	10두 미만	10~30두	30두 이상	평균
가격(조수입) 전망	553			
경 영 비 (추 정)	427	430	424	427
소 득 (추 정)	126	123	129	126

주: 가축비는 1998년 5월 자축가격을 적용함. 낙농의 경우 사육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999년도 이후 경영비에 해당함.

다. 대응방안

1) 수입 쇠고기 공급물량 조절

- 농가들은 수입 약정량(18만7,000톤)이 전량 국내에 공급되는 경우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쇠고기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 1998년 약정 수입물량중 SBS분(11만2,000톤)의 일부만을 수입한다. 이 경우 통상마찰이 예상되므로 대비책을 강구한다. UR협상이 시장접근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본 이념에 따르는 것이므로, 시장에서 수입물량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논리를 전개하여 대응책을 마련한다.
- 수급조절용(7만5,000톤) 쇠고기의 수입과 통관을 가능한 한 지연하여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2) 한육우 과잉 사육두수 감소대책의 추진

- 농가 자가소비용 의뢰 도축을 허용하고 자가소비용에 대한 도축세 면제, 젖소 도태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소 사육두수를 감축한다.

3) 축산물 소비홍보활동 강화

- 대형 이벤트 행사 개최, TV방송 매체 적극 활용, 기업체에 축산물 소비 협조 요청 등의 조치를 통해 농·소·정 연대로 축산물 소비확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양시켜야 한다.

4) 원유의 성분별, 용도별, 계절별 가격차별제 도입

- 원유계획생산제 도입은 유보하고, 원유의 용도별·계절별·성분별 가격차별제 도입으로 분유재고의 해소를 유도한다.

5) 소비자 가격 인하 유도

- 정육점 판매가격 담합 및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가격의 인하를 유도한다. 쇠고기와 계란의 경우 산지가격이 하락하는 데도 불구하고 소매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있다.

- 생산자 단체를 통한 직거래를 확대하고 슈퍼,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도 식육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도 강화한다.

6) 돼지고기 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

- 수출용 거세 규격돈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격돈 구매자금을 확대한다. 수출은 양돈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내 공급량 감소로 인해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한우고기, 닭고기의 대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격화 및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며 일본 내 판매소 확대를 추진한다.

7) 계란 공판장 건설 지원

- 계란 공판장을 적극 지원,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유통경로를 형성하여 중간상인의 횡포를 방지한다.

8) 조사료 등 부존자원 이용 확대와 비용 절감

- 한육우나 젖소 농가의 경우는 배합사료를 조사료로 대체한다. 벣짚 등 농산 부산물과 농산 가공부산물, 담리작사료, 사료작물을 적극 이용한다. 정부는 부존자원을 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벣짚 암모니아 처리 및 TMR(혼합)사료 지원확대, 종자 적기 공급 등 조사료 생산대책을 강화하고, 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현행 유지율 위주의 원유가격 결정체제로 인하여 조사료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유지방 이외에 무지고형분을 원유가격 결정 요소에 추가하는 원유 성분별 차등가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사료 이용을 촉진한다.
- 저능력우는 도태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구입단가

인하한다. 가축진료비, 인공수정료를 인하하고 자가수정 교육을 실시한다.

9) 비축쇠고기와 재고분류 대북지원 확대

- 축산발전기금이 고갈 상태에 있어 이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여 대북지원을 확대한다.

10) 남은 음식물 사료화에 대한 지원 확대

- 음식물의 사료 이용은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므로 환경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3. 시설원에

가. 현 황

- 시설원에 면적은 소비의 주년화와 고급화, 정부의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왔으며, 1997년 시설재배 면적은 총 82,637ha(전체 원예작물의 22%)로 1990년에 비해 약 2배로 성장하였다.
- 원예작물 재배 시설 중 유리온실과 같은 첨단시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적인 시설로 발전하고 있다. 시설 중 겨울철 가온면적 비율은 고온이 필요한 화훼가 80%, 채소는 18.8% 수준이며 가온면적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 시설이 관행 비닐온실에서 자동화비닐온실, 경질판온실, 유리온실 등 고비용·고효율 시설로 발전하고 있다. 1997년 현재 유리온실 면적은 288ha로서 전체 시설재배 면적의 0.3%이다.

-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의 1998년 평당 설치 단가가 유리온실 50만원(25% 인상), 경질판온실 31만원(24% 인상)으로 인상됨에 따라 고비용 시설 신청 농가가 감소하고 있다. 유리온실 등 첨단시설은 시설설치에 많은 투자가 필요해서 당분간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 시설원예는 자본재 투입이 많고 광열·동력비 등 에너지 투입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증가되고 있는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등 첨단시설은 투입요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환율과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이 생산비에 반영되는 비율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유류가격 상승이 시설원예 생산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설·기자재 등 고정비용이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표 2-26 시설원예의 현황과 비중, 1997

단위: ha

	총 재배면적 (A)	시설재배면적 (B)	가온면적 (C)	시설비율(%) (B/A)	가온 비율(%) (C/B)
채 소	364,189	79,249	14,899	21.8	18.8
화 화	5,534	3,388	2,710	61.2	80.0
계	369,723	82,637	17,609	22.4	21.3

자료: 농림부, 「화훼재배현황」, 1997.

표 2-27 시설원예 품목별 주요 중간재비의 비중, 1996

단위: 천원/10a (%)

	경 영 비	중 간 재 비			
		소 계	광 열 비	영 농 시 설 상 각 비	기 타
오이(축성)	5,182 (100.0)	4,737 (91.4)	1,633 (31.5)	714 (13.8)	2,390 (46.1)
장 미	8,777 (100.0)	7,660 (87.3)	2,455 (28.0)	1,178 (13.4)	4,027 (45.9)
수 도	229 (100.0)	116 (50.4)	2 (0.7)	1 (0.5)	113 (49.2)

주: ()은 구성비임.

자료: 농촌진흥청, 「'96농축산물표준소득」, 1997.

- 시설원예정책이 유리온실 등 고비용·고효율 생산시설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정부의 재정투자 축소로 시설원예 관련 지원 규모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 지원물량 조정 등 부분적인 조정은 필요하나, 시설현대화는 원예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 특히 유리온실은 고비용 시설로서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나 관련 기술의 발전,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일정 면적은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중국에서 현대화된 유리온실 단지의 조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할 경우 중국이 한국을 수출시장으로 목표할 우려도 있다.

나. 영향 및 전망

1)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

- 환율 상승에 따른 비료, 유류, 농약, 시설기자재 등 자재가격 상승으로 시설작물의 경영비는 일반 경종작물에 비해 높게 상승하였다.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가온재배에서 경영비 상승폭이 크며, 특히 유리온실에서 주로 재배되는 작목인 오이, 토마토 등 과채류와 장미·백합 등 화훼류의 경영비 상승폭이 크다.
- 달러 당 환율이 1,400원 선에서 안정되어도 자본재 투입이 많은 시설작물의 경영비는 25%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 종묘의 해외 의존도가 큰 수출작물의 경우 종묘비 상승으로 경영에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종묘류의 자급 및 저가 장기 조달이 과제이다. 백합의 경우 구근비가 경영비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종구 자급이 현안

과제이다. 수출용 오이, 토마토 종자는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오이 품종인 히자리·샤프·앵콜의 종자비용이 10a 당 32~54만원 수준으로 국산에 비해 2~3배 높다.

표 2-28 시설원에 경영비 변화

단위: 천원/10a

	1996년 (805원/달러)	1998년 환율 수준(원/달러)		
		1,300	1,400	1,500
오 이	5,182	6,404(23.6)	6,651(28.3)	6,898(33.1)
토 마 토	3,840	4,623(20.4)	4,781(24.5)	4,939(28.6)
장 미	8,777	10,735(22.3)	11,131(26.8)	11,526(31.3)
백 합	9,297	11,705(25.9)	12,191(31.1)	12,676(36.3)

주: 1) ()안은 1996년 대비 증가율임.

2) 오이, 토마토는 축성기준임.

자료: 농촌진흥청, 「'96농축산물표준소득」, 1997.

2) 생산 및 수급

- 시설의 고정성 때문에 시설면적은 큰 변동이 없으나 겨울철 가온재배와 축성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무가온 재배와 반축성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시설작물의 재배 시기가 늦춰지게 됨으로써 늦봄 출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 생산비 상승으로 생산이 위축되고 일부 품목의 생산 집중 또는 생산 공백이 생기는 등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였으나, 5월 이후에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다. 연료비 절감을 위해 작기의 이동 및 가온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영년생 화훼는 저온재배가 늘고 있고, 휴면과 채소류는 축성재배에서 반축성재배로 나아가 조숙재배 또는 노지재배로 전환하고 있다.

- 저온성 작물 재배가 증가되고 있다. 화훼류는 안개초, 백합 등 저온에 강한 품목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채소류는 고추·오이·토마토 등 고온성 작물이 감소하는 대신에 상추·수박·봄무·봄배추 등이 증가하고 있다.

표 2-29 주요 시설원에 산지의 동향 사례

	시설작물 재배 동향	증감 비율
○ 강원도	○ 토마토 반촉성재배→조숙재배(2월 파종)	
○ 충청도	○ 시설채소 면적 감소 -꽃고추, 오이 520ha→452ha -상추, 배추 118ha→150ha	2.3% 감소 13.1% 감소 27.1% 증가
○ 전남 나주단지	○ 정식시기 1개월 지연, 반촉성·조숙재배의 증가 -작물전환 : 고추→수박, 방울 토마토→상추, 봄무 증가	
○ 충남 공주시	○ 정식시기를 1월초~1월20일→2월 20일 -촉성재배에서 반촉성재배로(오이 15ha) -딸기농가(75ha)도 출하시기를 7일 정도 늦춤 -가온기간의 단축	
○ 충북	○ 시설 촉성재배 포기 농가 증가	
- 청원군	○ 토마토·오이 촉성재배 250가구(30ha)에서 50가구(6ha)	80% 감소
- 청주시	○ 방울도마토 20가구(12ha) → 5농가(3ha)	75% 감소
- 진천군	○ 장미 가온재배 80농가(25ha)→ 30농가(9ha)	64% 감소
- 옥천군	○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60농가(20ha)→ 30농가(9ha)	55% 감소
○ 경기도	○ 가온재배의 감소	
- 고양	○ 장미 저온재배 및 휴면농가 증가, 가온면적 감소	30% 감소
- 성남	○ 화훼 비닐하우스 면적 100ha→70ha	30% 감소
- 광주	○ 시설 이용률 저하 -시설면적 173ha→ 193ha -가온재배 면적 30ha→20ha	11.6% 증가 33.3% 감소

자료: 농림부.

- 시설재배 시기의 지연으로 만기 조숙재배는 노지채소의 출하기와 겹쳐 출하량이 증가되어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저온 재배되는 작물의 경우 품질이 저하되어 가격이 낮아질 것이며, 수출작물의 규격 품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장미와 같은 영년생 작물에 휴면이 늘어날 경우 5월 이후 생산이 집중되어 가격 하락 가능성이 크다.
- 원예작물의 소득 침체로 전반적인 작목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과채류의 파프리카, 화훼류의 장미와 같은 비교적 소득이 높고, 수출이 잘되는 작목으로 생산이 집중될 가능성도 높다.

3) 원예작물의 가격과 수요

- 경기 침체와 실질소득 감소로 원예작물의 수요는 위축되고 있으며 채소

표 2-30 시설원예작물의 가격 추이, 1997. 1~98. 5

단위: 원

	장 미	백 합	오 이	토마토
1997년 1월	3,616	3,569	5,228	8,186
2월	4,443	3,135	5,108	8,186
3월	3,299	2,886	5,095	8,186
4월	2,112	2,075	4,702	8,186
5월	2,047	1,651	4,683	7,838
1998년 1월	2,339	1,881	4,843	7,181
2월	3,715	2,025	4,345	7,181
3월	3,029	2,513	4,390	7,181
4월	1,335	2,285	3,703	7,181
5월	1,646	1,476	3,203	7,138
1998. 1 / '97. 1	0.647	0.527	0.926	0.877
1998. 2 / '97. 2	0.836	0.646	0.851	0.877
1998. 3 / '97. 3	0.918	0.871	0.862	0.877
1998. 4 / '97. 4	0.642	1.101	0.788	0.877
1998. 5 / '97. 5	0.804	0.894	0.684	0.911

주: 화훼류의 경우 원/속, 오이의 경우 중품 10kg, 토마토의 경우 중품 15kg 기준임.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각 연도.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화훼공판장 사업실적 및 가격동향분석」, 각 연도.

류보다 화훼류의 소비 감소가 더 크고 동양란, 수입절화, 장미 등 고급 화훼의 소비는 평년보다 40~50%까지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 겨울철 가온재배 감소로 품목에 따라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을 것이다. 화훼 가격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렵고, 수요 감퇴로 농가소득 보전은 어려울 전망이다. 장미 주산지인 충북 진천의 1998년 7월 농가 출하가격은 전년 대비 여명(카디날) 70%, 정열(산드라) 67%, 미니장미(리틀마블) 40%가 하락하였고, 고품위 생산인 양액재배에 비해 일반 토경재배 생산물 가격 하락 폭이 크다.
- 채소류의 가격은 5월 이후에는 무가온 재배 증가로 출하 집중 현상이 발생하여 가격이 하락되고 있으며,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우려된다.

4) 유가 상승에 대한 농가 대응

- 1997년 초 ℓ 당 292원이던 면세 경유 가격이 1997년 12월 548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 보충 난방시설을 설치하거나, 난방시설을 저가연료 시설로 대체하는 농가가 증가하였다. 경유 가격은 1998년 3월 ℓ 당 437원으로 인하되었으며, 이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소규모 비닐온실 농가는 난방기를 연탄난로·화목 보일러 등 저가 시설로 대체하고 있으며, 자동화 온실은 보조 에너지를 설치하고 있다.
- 대체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별로 20~80%까지 난방비 절감이 가능했으며, 복합적으로 시설을 했을 경우 절감율이 크다. 유리온실과 같은 첨단시설은 난방시설을 대체하면 자동화 시설 운영이 어려워 온실 온도를 적정 온도보다 낮춘 저온재배가 증가하고 있다.
- 유가 상승에 따라 난방시설을 대체한 농가가 증가하였으나 시설의 성능

과 경제성이 규명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난방비 절약은 가능하였으나 생산성이 떨어지고 저품위 상품이 증가하고, 연탄 난로 사용 시 유해가스로 인해 농작물 생육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아울러, 대체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이 발생(갈탄 보일러 예 : 1,000평당 약 1,200만원)하며, 시설의 지속적 사용 여부도 불투명하다. 보조 및 대체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첨단 자동화 시설의 효율적 사용에 문제점이 발생하며 고품질 규격품 생산에도 장애가 발생하고, 성능과 경제성이 검증 안된 난방기의 보급으로 시설농가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표 2-31 농업현장의 에너지 절약 사례

	시 설 원 예 에 너 지 절 감 사 례
○ 재배 방법 개선	○ 에너지 절약작형 보급, ○ 저온재배법, ○ 무가온 농법, ○ 부직포재배, ○ 보온덮개 이용 무가온재배
○ 시설 개선 및 보완	○ 축열 주머니 설치, ○ 지중가온시설, ○ 보온시설보강(보온덮개·커튼), ○ 제트파이프 설치, ○ 초전도 매체 열파이프 설치, ○ 하우스 지표 난방, ○ 폐열회수기, ○ 연료 절감장치 설치, ○ 수막재배, ○ 방울 물주기, ○ 벧집이용 지중난방, ○ 단동식온실의 연동화, ○ 다중터널(3중, 5중), 비닐하우스 피복·보온 자동화 시설, ○ 수평커튼막 상하 이동(난방면적 축소), ○ 반사필름 설치, ○ 자동화하우스 첨단 제어장치
○ 대체·보조 에너지 시설	○ 태양열 난방기, ○ 연탄난로, ○ LPG난방기, ○ 열펌프, ○ 산업폐열이용, ○ 온천물·지하수 이용, ○ 가연폐기물 이용, ○ 나무·경유 겸용 보일러, ○ 나무난로, ○ 화목 보일러, ○ 자동차 라디에터 이용 가온기, ○ 전기히터 이용 지온 상승, ○ 외풍 방지용 간이보일러, ○ 연탄온풍기, ○ 버너 보강 시설, ○ 코크스사용 연탄난로, ○ 심야전기 이용 축열 주머니, ○ 심야전기 이용 지중난방

자료: 현지 조사, 농업 전문지, 농협 절약형농업 100가지 실천 과제.

5) 수 출

- 환율 상승에 따라 생산비가 상승하여 수출원가가 상승했으나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시장 여건은 양호해지고 있다. 그러나 주 수출시장인 일본의 엔화 약세가 장기화되면 수출 성장이 둔화될 요인도 상존한다.
- 1998년 5월 현재 채소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으며, 화훼류는 227% 증가를 보이고 있고, 특히 장미·백합의 수출 신장이 크다. 화훼 수출은 1998년도 목표 수출액인 600만 달러를 6월 이내에 조기 달성하였다. 원예작물 수출이 엔화 하락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 1998년 5월말 현재 채소(김치 제외)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으나 수출액은 25% 증가하였다. 1998년 5월말 현재 화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4.8배로 증가했으나 수출액 증가는 3.3배에 불과하며, 업계에서는 환율이 100엔 당 900원 이하가 되면 적자수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32 원예작물 수출 실적, 1998

단위: 천달러

채 소 류				화 훼 류			
품 목	1997. 5(A)	1998. 5(B)	B/A	품 목	1997. 5(A)	1998. 5(B)	B/A
전 체	14,263.9	17,855.0	1.25	전 체	1,513.6	4,942.8	3.27
토마토	1,779.6	3,079.7	1.73	백 합	138.0	1,558.2	11.29
고 추	2,653.3	2,897.9	1.09	장 미	39.4	1,250.4	31.74
종 자	3,685.8	2,354.4	0.64	선 인 장	1,266.6	840.5	0.66
오 이	1,336.8	1,358.2	1.02	기타절화	28.2	620.2	21.99

주: 채소류 수출액은 김치를 제외한 금액.

자료: 농산물유통공사.

표 2-33 환율 상승에 따른 장미의 대일본 수출 경쟁력

단위: 원/본

	1996년 (805원/달러)	1998년 환율 수준별 손익		
		1,300	1,400	1,500
○ 수출원가(A)	757	711	711	711
- 물 품 대	459	413	413	413
- 국내경비	151	151	151	151
- 현지경비	147	147	147	147
○ 원화 환산 수출가격(B)	530	816	878	941
○ 수출손익(B-A)	-227	105	167	230

○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오이, 토마토 등 채소류와 장미·백합·선인장·양난 등 화훼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겨울철 저온재배로 고품질 규격품 수출 물량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대상국도 일본 일변도에서 캐나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지로 다변화되고, 화훼소품 분화류의 수출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미국 등 원거리 지역 수출은 항공료가 높아 수출 경쟁력이 낮다.

○ 구근류 화훼는 수입종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감소되고, 묘목류(동양란, 열대관엽)와 고급 절화류 수입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예년에는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등지에서 카네이션이 수입되었으나 1998년에는 수입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6) 시설기자재업계의 동향

○ 시설원에 관련 농기자재산업도 급격한 성장을 보여 왔으나 수요 감소와 고환율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애로에 봉착하고 있다. 온실 시공업체도 사업 물량의 감축에 따라 업체 수가 1997년 194개사에서 86개사로 56%

감소되어 구조 조정이 진행 중에 있다. 화훼 관련 자재상은 꽃 소비 부진,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매출액이 예년의 1/3 수준에 불과해서 경영 도산의 움직임이 있다.

- 시설자재 생산업체는 환율 인하로 수출 경쟁력이 강해져 비닐류, 관수호스, 점적 파이프 등 자재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일본에서 한국형 온실(1~2w)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알루미늄 스크린, 트레이, 간이 파종기 등도 수출이 유망하고, 1998년 관수자재류는 약 100만 달러 정도 수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비닐류도 300만 달러 이상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7) 시설원예농가의 경영 실태 : 시설원예 농가 530호 분석 결과

- 시설원예농가는 IMF 관리체제로 인해 경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설농업을 지속할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상당수의 농가가 작목 전환 및 품종을 교체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규모 변동상황을 보면, 화훼농가는 현상 유지 80.4%, 규모 확대 13.3%, 규모 축소 5.1%, 포기 1.3%로 나타난 반면, 채소농가는 현상 유지 72.0%, 규모 확대 14.9%, 규모 축소 7.1%, 포기 6.0%로 나타났다. 수지가 악화되어도 고정시설의 활용을 위해 생산 규모를 유지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 작목을 전환하겠다는 농가 중에서 화훼농가는 현상 유지 74.7%, 타작물 전환 17.7%(주로 토마토, 피망), 채소농가는 현상 유지 52.7%, 타작물 전환 36.9%(주로 장미, 백합, 양난)으로 나타났다. 수출품목으로 농가의 품목 전환이 집중될 경우 과잉생산 및 저가 수출의 가능성도 크다(과채류 파프리카, 화훼류 장미 등).
- 유가 상승에 따라 일부 농가는 온실 온도를 적정선으로 유지하였으나, 많은 농가가 저온재배를 하거나, 가온을 중단하였다. 적정 온도를 유지

한 농가는 주로 영년생 작물 및 수출 농가이다.

- 화훼: ① 저온재배(51%), ② 적정온도 유지(28%), ③ 가온중단(15%),
- 채소: ① 저온재배(49%), ② 적정온도 유지(26%), ③ 정식 늦춤(11%),
④ 재배 포기(5.3%)

○ 시설농가가 당면한 애로는 원예작물의 가격 하락이 가장 크며, 이외 운영 자금의 부족과 시설 운영기술의 부족, 판로 문제, 시설 불량 등 경영상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으며 시설경영에 적응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다.

- 화훼: ① 운영 자금 부족(68%), ② 기술 부족(9%), ③ 판로(15%),
④ 재배 포기(5.3%)
- 채소: ① 운영 자금 부족(47%), ② 기술 부족(15%), ③ 시설 불량(19%), ④ 판로(13%)

○ 작목 및 품종 선정에서 화훼농가는 수출 전망을, 채소농가는 내수 시장성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시설농가의 약 30%가 주관과 뚜렷한 영농 목표 없이 작목, 품종을 선택하고 있다.

○ 농가의 20% 정도는 부기법에 의해 기장하고 있으나, 가계부식 간이 기록이 58%, 기록을 앓는 농가도 15%에 달한다. 시설농가의 대부분이 금년도 소득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작목 및 품종 선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시설원예농가 특히 유리온실 농가는 농가간 품목·기술 차이에 따라 소득 편차가 매우 심하며 우량농가는 고소득을 올리는 반면, 일부 부실농가는 소득이 시설 상환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1997년도 유리온실의 10a 당 소득은 화훼 669만원, 채소 632만원이나, 1998년 소득은 2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4 유리온실 10a당 소득 분포, 1997

단위: %

	0.5천만원 미 만	0.5~1 천만원	1~1.5 천만원	1.5~2 천만원	2천만원 이 상	계
화 화	55.1	24.4	9.0	6.4	5.1	100.0(78호)
채 소	60.6	18.9	11.5	3.3	5.7	100.0(122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년 시설원에 농가 경영 조사 결과.

- 유리온실 농가의 약 50%가 300평당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나, 화훼농가 중 5.1%, 채소농가의 5.7%는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 정부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설치한 시설원예 농가는 지원자금 이자율이 5%에서 6.5%로 인상됨에 따라 농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유리온실 300평의 융자금(평당 사업비의 40만원의 40%, 4년차부터 17년 분할 상환) 원금 상환액은 연간 282만원(사업비의 5.9%)이며, 유리온실 300평의 경우 연간이자 부담액은 312만원, 이자율 상승으로 75만원 추가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 융자금 상환연도를 맞은 농가는 이자와 원금을 합해 연간 10a 당 약 594만원을 상환해야 하나 현재 소득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농가가 50% 이상 발생한다. 시설설치 자부담금(300평, 24백만원)을 별도로 입체한 농가는 더욱 어려운 사정이며, 영농 1차년도 투자비용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 IMF 사태로 인해 시설원예농가는 생산비 상승, 수요 감소,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저온재배 등 에너지 절감기술의 확산과 수출마인드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겨울철에 가온해서 정상적으로 재배한 농가는 수출로 인해 정상 소득을 확보하고, 수출을 목표로 작목·품종을 선정한 농가에 비해 내수 지향 농가가 경영의 어려움이 더 컸다.

- IMF 사태 초기에는 유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영이 불안정했으나, 유가의 안정과 수출 증가로 생산이 안정되고 있다. 유류가 상승에 따라 가온시설 교체 및 보조시설을 설치한 농가가 증가했으나 1998년 가온기(10월 이후)에 보완·대체시설의 지속적 사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며, 유가가 안정될 경우 사용도는 낮아져 경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 IMF 사태로 인해 시설투자 비용 부담이 큰 시설원예농가는 수요 위축, 가격 하락으로 경영이 어두울 전망이다, 고비용 시설 보유 농가의 어려움이 더 클 전망이다.

다. 대응방안

1) 시설원에 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시설농가의 작목 선택, 기술, 시설관리 지도를 위한 지역단위 원예기술지원단 구성을 촉진하여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경영 및 세무관리 등 시설 운영을 위한 경영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정책자금 수혜농가 중 일부에서 경영부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가가 영농 중단을 원하더라도 정책자금 대출기간 동안 사업포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경영부실 농가 대책을 수립해서 고정시설의 유희화를 방지하고 경영 안정을 기해야 하며 유리온실 등 정부 지원시설을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 경영의욕은 있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한 농가는 경영상태와 능력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재배기술이 부족한 농가는 기술지원으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 경영이 개선될 가능성이 적은 부실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매각 및 제3자 인수 등 경영 정상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시설원예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 생산비 상승, 수요 감소, 가격 하락으로 시설화·현대화 초기 단계인 시설원예산업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생산유통지원사업 수혜농가는 물론 기존 시설 보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책사업 지원자금의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
- 경영기술 교육 이수 농가 등 준비된 농가와 수출 지향농가에 우선 자금을 지원하고, 융자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서 융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종묘비·추가시설비 등 초년도 투자를 '농기업경영자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며, 융자기간도 현행 1년에서 더 연장하여 초기 경영 안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감대책 수립 및 농업용 면세유 지속적 공급

-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등 에너지 다소비형 시설농가에 대해 난방시설의 교체, 저온재배 기술의 보급 등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고 농업용 면세유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기술 및 저온재배 기술을 확산하며 저가·고효율에너지 시설을 보급한다.
- 유류 절감을 위해 대체시설(갈탄 보일러, 나무 보일러, 연탄 난로, 폐자재 보일러 등)을 농가에서 수용하고 있으나 시설의 규격, 효과에 대한 검증이 실시되어야 한다. 에너지 절감과 시설개선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열효율 개선시설 희망 농가에 설치 자금을 지원한다.

4) 시설기자재업계의 육성

- 원예 기자재 시판상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기자재의 규격화·표준화 유도, 품질과 성능에 대한 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원예용 기자재의 국산화와 저비용 한국형 온실 개발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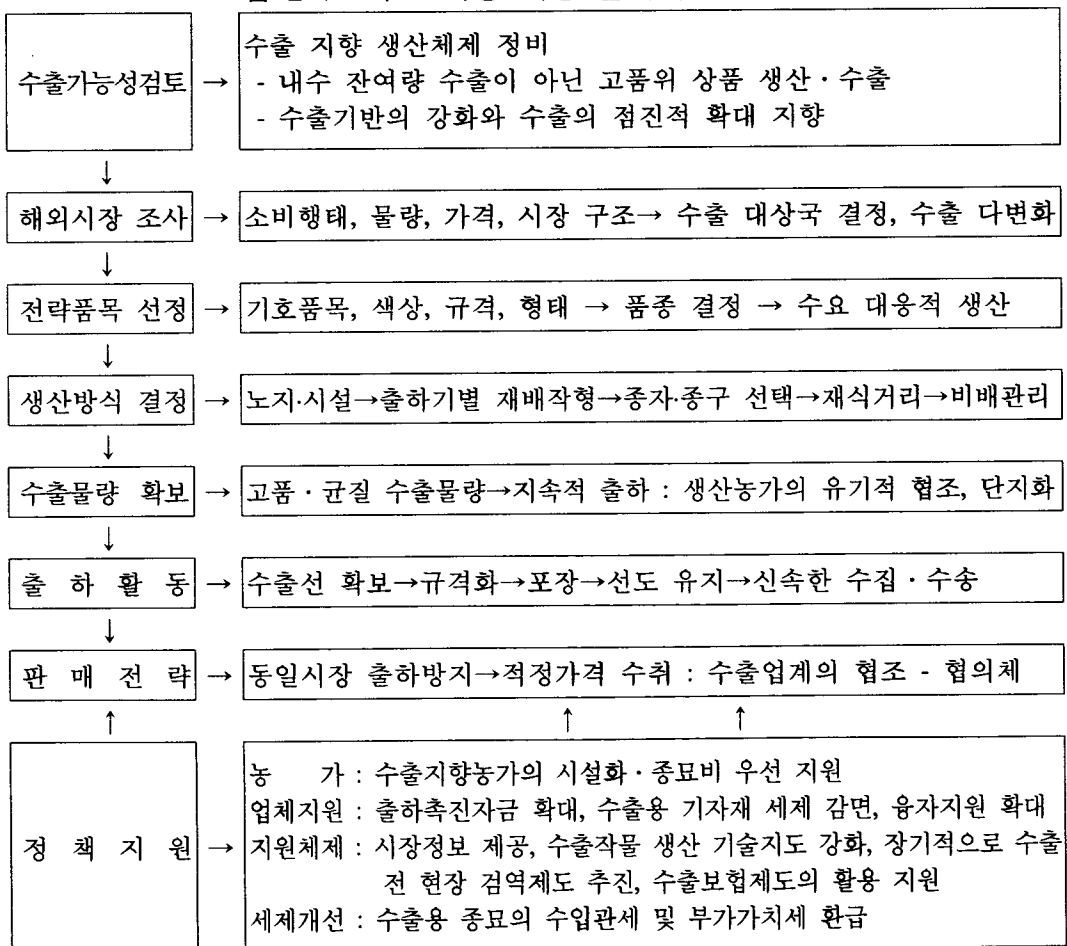
- 온실 시공업체의 도산에 따른 시설 하자보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제도」를 실시(1996년)하기 이전에 시공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한온실산업협회의 사후봉사 지정점 지정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지원한다.

5) 수출 촉진

- 수출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① 종자·종묘비의 절감 ② 물류비용 절감(항공료가 44~100% 인상되었으며 수출액에서 물류비용이 40~50% 차지), ③ 지속적 물량 확보(수출단지의 분산과 영세성), ④ 규격화 미진과 저급품 생산(토마토 50% 이하, 오이 70~80%), ⑤ 수출전문업체 부족, ⑥ 수출시장 지향 생산체제의 미흡, ⑦ 수출정보 수집의 체계화 미진 등이다.
- 시설작물의 내수 감소와 가격 하락에 따라 수출촉진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채소, 화훼의 일본 도매시장 상장 방안을 수립하고 원거리 수출을 위한 항공료 지원 방안(항공사와 저가 장기계약 등)을 수립하며, 수출 관련업무 수행기관(농협무역,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자체 무역회사)의 역할 정립과 유기적 협조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화훼 수출 증가로 1998년 화훼판매촉진사업비 중 수출보조금(상자당 7,400원) 4억 7천만원을 약 9억원(수출 물량 100% 이상 증가 전망)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채소 판매촉진사업비(포장비 보조)도 1998년 한도를 30% 정도 높여야 한다.
- 수출 품목의 품종 육성의 장기적 추진과 종자 국내 번식체계의 정립을 위한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화훼류 종묘·종구의 자급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 수출업체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수출업체에 대한 담보 융자 비율의 상향 조정과 농지의 담보 제공을 허용하며, 수출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 수출대상국의 다변화와 목표시장 대응한 전략적 수출체계를 수립, 추진해야 한다. 수출시장의 요구에 따라 품목·품종·생산방식을 결정하고, 고품·균질 상품의 지속적 수출과 수출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 2-1 목표 시장 대응 전략적 수출체계도



6) 화훼 소비 촉진

- 화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내수 촉진이 필요하며, 꽃이 사치품 내지 과소비라는 정부 방침은 소비자가 민감히 반응하므로 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중 화환·화분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공공기관내 화훼 반입 금지’, ‘난 안보내기 운동’, ‘졸업식날 화훼반입 금지’ 등 화훼소비위축정책 및 운동을 지양하여야 한다.
- ‘화훼박람회’, ‘건전한 꽃 생활화 촉진대회’ 등 건전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캠페인 전개와 저가 꽃 판매 전략수립으로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 포장의 거품 제거, 직거래로 마진을 생략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저가 소품류, 캐주얼 화훼 등을 보급해 소비를 다양화시키고 내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7) 시설원예정책의 전환

- 시설현대화는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나 단기적으로는 경영부실 농가(특히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비와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설원예 생산·유통사업의 지원체계를 포함한 원예산업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가격이 하락하나 작목전환이 어려우므로 전업농체제의 강화가 활로이며, 다품목 소량생산체제에서 소품목 전문화와 품질 고급화로 전환해야 한다. 화훼 및 고급 채소시장이 앞으로 2~3년간 불황일 전망이므로 수출만이 활로로서 고품질 생산과 수출 강화를 위해 시설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 정책사업은 자금 동원 능력보다 경영마인드를 중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속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대규모 시설농가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경영체별 문제점과 생산·유통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

책을 수립한다. 지역별 산·학·연 전문가로 컨설팅팀을 구성해서 경영체를 지도하며, 전북지방 ‘농업경영진단사업’, 전남지방 ‘영농현장기술지원단’, 충북 충주지역 ‘농업기술개발단’ 등 지방 컨설팅 단체와 중앙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농림사업은 신규 설치사업보다 기존시설의 보완과 개보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의 시설 지원과정에서 패키지 지원보다 농가의 작물, 경영방법을 고려해서 기본시설 외 농가 희망시설을 별도 사업으로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온실에도 지원해야 한다.

표 2-35 시설원예사업의 정책 전환 방향

	종 전	개 선
○ 사업량	○ 물량 공급, 규모화 추진	○ 사업량 축소, 기존시설 보완 - 시설 개보수 지원
○ 지원 방법	○ 설치 위주	○ 운영자금·재배기술·경영기법 - 종합자금제 도입 - 컨설팅 강화
○ 수혜 경영체	○ 법인 경영체 중심 - 자금 능력 우선 감안	○ 가족농 중심 - 경영 능력 우선 감안
○ 선정 방법	○ 지역 안배	○ 사업자 선정·사후관리 강화
○ 유리온실의 용도	○ 농민 자율 결정	○ 첨단시설:공정육묘장·수출품목·화훼 - 유리온실은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 - 내수용은 자동화 비닐온실 - 시설별 작목 선택 제한
○ 지원 시설	○ 패키지 지원	○ 수익성을 고려한 시설·장치 - 시설·장치 선택 사양제 도입 - 기존시설 첨단장치 추가 지원

Ⅲ. 농업관련산업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안

1. 농업자재산업

가. 농기계산업

1) 업계 동향

- 1997년 현재 경운기 95만대, 트랙터 13만대, 이앙기 30만대, 콤바인 7만대 등 총 333만대의 농기계가 보급되어 있으며 농기계 시장규모는 1조 5백 억원에 이르고 있다.
- 기종별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경운기가 대동이 단독업체로서 80.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트랙터는 대동을 비롯한 상위 3사가 74.8%를 차지하고 있다. 이앙기의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은 87.2%이며 콤바인은 대동, 국제 등 두 업체가 67.8%를 점하고 관리기는 아세아의 점유율이 63.1%에 이르고 있다.
- 농기계 산업은 환율 및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농기계 제조원가가 앙등하고 채산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있다. 농기계 산업은 필수 생산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환율 상승으로 환차손이 클 뿐 아니라 금리상승으로 인한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표 3-1 주요 농기계 공급실적의 변화, 1997~98. 4

단위: 대

	1월			2월			3월			4월		
	'97 (A)	'98 (B)	B/A %	'97 (A)	'98 (B)	B/A %	'97 (A)	'98 (B)	B/A %	'97 (A)	'98 (B)	B/A %
경운기	6,324	3,841	60.7	7,031	1,791	25.5	8,414	2,272	27.0	8,186	2,217	27.1
트랙터	2,354	3,080	130.8	2,962	2,645	89.6	4,638	3,704	79.9	3,416	3,871	113.4
이앙기	5,526	3,362	60.8	6,443	4,434	68.8	8,828	4,778	54.1	6,199	2,183	35.2
콤바인	4	23		17	3	17.6	71	53	74.6	449	836	186.2
관리기	6,415	1,288	20.1	5,464	1,323	24.2	7,635	905	11.9	5,864	364	6.2

자료: 농기구협동조합.

- 농기계 산업은 IMF관리체제 이전에도 기업규모의 영세성, 기술수준의 저위, 수요의 계절성으로 인한 가동률의 저위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소량 다기종 생산방식, 수출전략의 부재, 품질관리 활동의 미비와 같은 경영상의 문제점도 이미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경영적 문제점은 IMF 관리체제를 맞아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 있으며 특히 농업예산의 감소를 비롯한 농업기계화 지원 예산의 감축으로 농가 구매력이 저하됨으로서 수요가 위축되고 농기계 산업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다.

2) 농기계 수급 현황

-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의 소형기종의 수요가 급격히 저하하고 있는 반면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기종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소형 농기계의 급격한 수요 저하는 IMF 관리체제로 인한 농가의 구매력 감소에도 원인이 있지만 1997년 말 종결된 농기계 반 값 공급에 의해 1998년도 농기계 수요분을 반값보조를 통해 구입한 것에도 큰 원인이 있다.

- 농기계는 소량다품종 수요(1,284모델)에 의해 농기계 개발비용이 크게 소

표 3-2 농기계 OEM 생산 현황, 1998

업 체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기업	아세아종합기계	LG 기계
기종수	8	10	7	7	6

자료: 농기구협동조합.

요되고, 이것이 생산원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랙터의 경우 7개사에서 67개 모델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라인에 대한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있다.

- 기술제휴선 다양화에 따른 농기계 부품의 표준화가 어려워 농가의 A/S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농기계 부품 표준화가 어려운 원인으로는 기술제휴선이 다원화되어 있고, 표준화 부품 사용을 위한 설계 제작비용이 과다하며, 표준화 부품 생산 기업을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IMF 관리체제하에서 OEM(주문자 상표부착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농기계 산업의 경영혁신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3) 영향 및 전망

가) 농기계 원가상승 요인의 증대

- 농기계 생산 원자재업체로부터의 가격 인상 및 현금결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즉, 철판의 경우 30%, 주물 20~25%, 유화제품 50%정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농기계의 수요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농업용 난방기 등에서의 수요 감소가 현저하다.
- 농기계 부품생산은 경운기, 관리기 등 소형기종에 있어서는 거의 국산화

되었으나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기종의 부품의 해외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환율인상에 따른 원가상승 압박은 대형기종일수록 큰 실정이며 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외주업체의 부품 생산 부진에 의해 농기계의 조립지연(전년 대비 50% 수준 생산)현상도 발생하고 있으며, 외주 업체의 부도에 따른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리점 부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부실 채권 및 차입금 증가에 따른 경영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나) 농기계 산업의 구조조정의 가속화

- IMF 관리체제로 인하여 농기계 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환율 및 금리상승에 대응하는 경영혁신 방안으로서 업체간에 기종생산 전문화 등의 구조조정 노력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며, OEM등을 통한 경영혁신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4) 대응방안

가) 농기계 산업의 구조조정

- 기종별 생산 전문화를 도모하고 농기계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기종별 시장 점유율 1, 2위 기종 생산업체에 대한 생산비축자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OEM 생산 기종에 대한 융자 지원이 시행되어 부품 및 규격 통일을 촉진시키고 시설과잉을 억제하도록 한다.

나) 부품 국산화 촉진

- 부품 국산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산화율 70% 이하 기종에 대한 개발자금을 중점 지원하고,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국산 고유모델 개발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 국산화 부진 기종에 대해서는 농기계 공급 시 용자 등 정부의 지원을 하향 조정하여 국산화·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국산화율 50% 이하 기종은 일정액으로 고정 지원함으로써 국산화를 유도해야 한다.

다) 농기계 부품 표준화 및 재고품 소진 정책의 실시

- 농기계 부품 표준화 추진을 위해서 표준화, 공용화 부품 구매자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공용화 부품 개발비를 지원한다.
- 재고품 소진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부품 재고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율 안정 시까지 대형농기계의 부품 수입을 보류 및 억제하도록 한다. 농기계 중고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을 통한 중고 농기계 거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라) 농기계 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

-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 주력기종에 대한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고 수출 촉진을 위한 비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수출 가능 국가 및 수출 가능 기종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업체별 수출 전략 기종을 구분 선정하여 전략적 기종에 특화하는 대책을 구조조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나. 비료산업

1) 현 황

- 1997년 화학비료의 생산규모는 약 6,5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내수가 65%, 수출이 35% 수준이다. 생산업체는 남해화학 등 대규모업체가 3개, 중소업체가 5개소로 총 8개에 이르고 있다.
- 비료산업은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에너지 사용이 많아 환율변동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이며,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결제자금의 증가 및 금리상승으로 자금압박이 가중됨으로써 원가상승의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 내수용 비료는 약 80%가 농협을 통해 판매되며 해마다 농협과의 가격협상을 거쳐 납품가격이 결정된다. 정부는 농가의 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91년 이후 일반재정에서 가격차를 보전하고 있다. 1997년의 재정보전액은 1,090억원이다.
- 1998년 비료판매와 관련한 정부의 재정지원규모는 1,065억원이며, 이러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비료가격 인상요인의 35.5%를 흡수하였다. 1998년부터 신규 유기질비료의 가격을 40% 보조 공급함에 따라 실제 비료가격 인상률은 29.4%에 이르고 있다.
- 정부의 비료에 대한 재정지원은 최근 환율이 당초 기준환율보다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정부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주문배합비료 등 3종의 비료가격을 소폭 인상(8.7~16.3%)하고 1종을 인하(-7.5%)하여 1998년 4월 8일 현재 전년대비 평균 31.6%(유기질 포함 시 30.1%임)가 인상되었다.
- 농협의 비료 구매가격은 연간 1회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비료 판매가격은 연중 불변가격으로 적용되어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분을 전부 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표 3-3 비료가격 인상과 정부 재정보조, 1991~98

	단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P)
가격인상요인	%	25	2.0	1.9	-10.4	11.2	10.9	11.7	74.8
가격인상률	%	0	5.0	0	0	3.5	0	3.9	29.4
재정보전액	억원	342	444	554	277	557	866	1,090	1,065

자료: 농림부, 생산지원과.

2) 영향 및 전망

가) 비료가격

- 비료는 원자재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상승에 따라 비료가격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 1998년 비료가격 결정을 위한 환율적용은 농가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당초 추정 1,450원/달러보다 하향 조정된 1,280원/달러를 기준으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실 환율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다. 즉 실제 환율은 1,900원/달러를 상회한 적이 있고 아직도 1,400원/달러에 머무르고 있어 비료가격 추가인상 요인이 있다. 비료가격의 추가 인상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비료제조업체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인상요인을 흡수하고 현행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 1997년말 재고예상량은 약 64만톤, 1998년 신규 구매계획량은 156만 8천톤이며, 재고물량 및 신규물량에 대하여 평균 인상률을 추계하면 인상요인은 6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 비료 수출입

- 금융권의 연지급 수입신용장(Usance L/C) 개설의 회피로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원자재 수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금융권의 내국신용장(Local L/C) 수출환어음(매입) 회피로 종합상사 대행에 따른 수출대금 결제의 지연과 수출비용의 증가로 판매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다) 국내 비료 수요 감소 및 수출시장의 불안

- 비료가격 인상에 따라 농가의 비료소비는 10~20% 감소될 전망이다.

-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환율 불안정으로 수출수요가 감소되는 등 국제 비료 시장이 불안하여 이에 따른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3) 대응방안

- 단기적으로는 환율상승에 따른 비료가격의 대폭적인 인상 억제를 위해 당분간 가격차에 대한 재정보전을 계속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보전의 폭을 줄이고 환율연동 개념을 도입하여 비료가격을 현실화한다.
-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유기질 비료의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유기질 비료 공급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유기질 비료에 대한 생산지원과 품질 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농협이 완전 인수한 남해화학을 다운 사이징과 함께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다. 농약산업

1) 현 황

- 농약산업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고급인력이 풍부한 우리 여건에 적합한 유망산업이나 국내 신물질 개발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농약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원제의 60%를 수입하고, 원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합성원제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 농약제조업체는 32개사로 완제품제조회사가 15개, 원제합성회사가 17개사이다. 1996년 농약 시장규모는 6,159억원으로 이중 수도용이 19.6%, 과수 원예용 48.0%, 제초제 28.9%, 기타 농약이 3.5%를 차지하며, 금액면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물량면에서는 정체상태에 있다.

표 3-4 환율 상승에 따른 농약 제조원가 인상요인

단위: %

	1,200원/달러	1,400원/달러	1,600원/달러
환율 상승율 ¹⁾	49	74	99
재료비 인상요인 ²⁾	24	36	47
제조원가 인상요인 ³⁾	35	48	60

주 : 1) 기준환율 805원(1996년 연평균 환율) 기준, 2) 원제 인상요인만 반영(재료비 비중의 48%), 3) 원제 이외에 각 경비 인상요인 감안.

- 환율 상승에 따른 농약 재료비 인상으로 인한 제조원가 인상요인은 약 24~47% 수준이고 여타 경비의 증가를 감안하면 농약 제조원가는 35~60%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 농약의 수급 현황

- 농약의 소비는 농가의 구매력 감소와 가격인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1998년 1/4분기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였다.
- 환율의 불안으로 원제 구매협상이 지연되는 등 원제의 적기 확보가 불투명하여 농약의 안정적 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적기 방제를 어렵게 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의 감소와 흉작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
- 일부 시장규모가 협소한 품목의 채산성 악화로 이들 품목의 생산을 제조업체가 중단할 경우 품귀현상 및 가격 폭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중 농약상들에 의한 매점매석의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외국 원제공급사의 연지급 결제 조건의 회피 내지 원료대금의 현금 결제 요구와 금융기관의 대출억제로 농약업체의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표 3-5 농약 소비 현황, 1996~98

단위: 톤(성분 중량)

	분 기	1996	1997	1998
수 도 용	1	1,434	1,497	1,886
	2	2,590	3,297	
	3	1,038	1,645	
	4	11	87	
	소 계	5,073	6,526	
원 예 용	1	5,485	4,492	3,922
	2	3,870	3,904	
	3	823	815	
	4	312	756	
	소 계	10,490	9,967	
제 초 제	1	2,853	2,788	2,224
	2	2,595	2,825	
	3	468	382	
	4	46	48	
	소 계	5,962	6,043	
기 타 제	1	794	577	404
	2	1,287	857	
	3	600	640	
	4	435	204	
	소 계	3,116	2,278	
합 계		26,641	24,814	
1/4분기 증감			9,354	8,436

주: '97, '98 수도용 농약 증가추세는 벼멸구, 물바구미 다발생이 원인임.
 자료: 농약공업협회.

3) 영향과 전망

가) 농약 가격

- 농협의 계통판매 농약 구매 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36.1% 인상('98.2.24)되었다. 농약은 원자재의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이 크게 발생되고 있다. 1998 농약가격 결정 시 적용환

율은 1,500원/달러로 정하여 수입원자재의 환율상승분만 반영하고 기타 제조경비 판매관리비 등의 상승분은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 다만, 1998년 4월중 평균환율이 1,400원/달러 이하 시 가격을 인하키로 납품업체와 합의하였다. 환율상승분만 적용시 농약가격 인상요인이 37.9% 였으나, 업체가 인상요인을 일부 흡수토록 하여 인상률을 36.1%로 조정하였다.

나) 외국의 농약산업의 국내 진출

- 자본자유화에 의한 외국 기업의 국내 농약산업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IMF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이 농약산업의 후발국 접근이라는 전략 구사가 가시화되어 다국적 기업의 국내기업 흡수, 합병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4) 대응방안

가) 농약 수급대책

- 농약의 수급불안으로 인하여 적기 안정적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농약의 재고파악과 농약 소요량이 조사되고, 부족 농약 및 제조업체의 생산 기피 품목에 대한 농약 공급 대책을 마련한다. 돌발 병해충에 대비한 원제나 농약을 비축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행정기능을 강화한다.

나) 농약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

- 농약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과거 실적을 감안하는 실수요량 생산으로 재고비용을 경감하고, 포장 자재 개발 등을 통하여 물류비용의 인하를 도모한다.

다) 농약 신물질 연구 개발의 촉진

- 연구개발 투자 강화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농약의 자급 기반을 구축하고 신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자금을 지원한다.

라. 종자산업

1) 현 황

가) 종자업계 동향

- 채소종자의 시장규모는 1,600억원 정도이나 종자산업은 부가가치가 크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다. 무, 배추, 고추 등 일부 채소종자는 육종 기술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어 수출 유망산업이기도 하다.
- 1997년 현재 종자회사는 50여개사이나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는 5개사이고 나머지는 자본력과 기술수준이 낮은 군소업체들이다.
- IMF 관리체제이후 은행차입의 곤란, 고금리 등으로 종자업체의 경영수지 및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환율 상승에 의한 수입비용 상승, 해외채종시 비용 부담 증가로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일 경우 종자업체의 추가부담은 83억원에 이른다.
 - 수입종자는 환율상승을 반영하여 판매가격을 인상(환율이 달러당 1,500원일 경우 35.8% 인상 요인)하고 있으나, 국내종자는 종자시장의 위축으로 1997년도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종자시장의 개방과 국내 종자업체의 경영악화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 1997년 일본 사카다사는 청원종묘를, 스위스 노바티스사는 서울종묘를 각각 인수하고 일본 다끼이사는 국내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1998년에는 멕시코 세미니스사가 홍농종묘와 중앙종묘를 인수함으로써 국내 종자시장의 60%이상이 외국기업에 의해 잠식되었다.

표 3-6 환율 상승에 따른 종자업체의 추가부담액과 가격상승 지수

	1997년 891원/달러	환율 시나리오(원/달러)		
		1,300	1,400	1,500
환율상승지수	100	145.9	157.1	168.4
○ 추가부담액(억원)	-	55.7	69.3	83.0
- 해외채종	-	23.6	29.3	35.1
- 순수입	-	32.1	40.0	47.9
○ 가격상승지수	100	124.1	129.9	135.8
○ 경영비상승지수	100	101.2	101.5	101.8

주: 경영비중 채소종자의 비중 5% 적용.

- 종자업체의 인수·합병은 세계적인 추세로 세계 종자시장이 다국적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첨단 유전공학기술에 의한 신품종개발이 상업화되고 있다. 세계 종자업체 4위인 미국의 몬산토사가 데칼브 제네틱스사 등 2개사를 인수함으로써 파이오니아사를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나) 종자 수급

- 1997년 채소종자 소비량은 3,289kl로 국내채종이 31.8%이고, 나머지 68.2%는 해외채종과 순수입 등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 국내채종지의 부족 등 여건 악화로 해외채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해외채종의 증가와 더불어 해외 채종지의 오염에 의한 저질 종자생산의 가능성과 수입대목의 소득 미흡 등 종자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 무, 배추, 고추 등 국내종자는 재고량이 충분하고, 양채류와 토마토, 메론 등 기호성이 강한 과채류는 해외 의존도가 높기는 하나 재배면적의 감소로 당분간 수급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종자 수출입

- 1997년 채소종자 수출은 1,225만달러, 수입은 1,929만달러로 7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으나, 물량면에서는 1996년에 비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였다. 특히 배추, 고추, 호박종자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 환율 상승으로 수출여건이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동남아시아의 경제여건 악화, 엘니뇨 현상에 의한 파종면적 감소로 1998년 전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에 비해 수출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2) 영향 및 전망

가) 외국 종자업체의 국내 종자시장 진출

- 환율 상승으로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하기가 용이해짐에 따라 국내 종자시장이 2~3개 다국적 기업에 의해 국제 종자시장으로 편입되고 있다.
- 외국 종자회사의 진출은 국내 종자산업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긍정적 영향: 첨단육종기술 및 종자처리기술의 개발 촉진, 종자 유통체계의 선진화 촉진, 국제 종자시장과의 교류 활성화, 수출시장 및 수출확대 등
 - 부정적 영향: 국내 유전자원과 품종육성 관련자료 및 우수 육종 인력의 해외 유출, 국내시장 확보를 위한 유통질서의 혼란, 종자관련 정책의 노출 등

나) 종자 수급 및 수출입

- 육묘기술의 발달, 시설재배면적의 감소로 종자수요는 정체 내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종자생산은 계속되어 종자공급은 당분간 과잉현상을 보일 수 있다. 다만 국내 종자업체의 경영수지 및 재무구조 악화로 자본력과 기술력이 약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일부 종자의 경우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종자시장이 다국적 기업에 의한 독과점 체제로 될 경우 외국업체의 경영전략에 따라 종자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나, 종자는 수출입 자유화 품목으로 장기적인 수급 불균형은 없을 것이다.
- 전반기에는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일본,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의 파종기에 의한 수요 증가로 하반기에는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환율 상승으로 수입은 정체되는 가운데 수입대체품목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양채류, 화훼종자의 육종이 활성화 될 것이다.

다) 종자 유통

- 종자업체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대리점 및 종묘상에 현금결제를 요구함에 따라 종자의 덤핑판매가 확산되는 등 당분간은 종자의 유통질서가 혼탁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1998년부터 신품종 육성자가 보호를 받게 되는 「종자산업법」의 발효와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진출 증가로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기준에 의한 보증 종자의 유통이 촉진될 것이다.
- 1999년 UPOV(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 예정으로 있어 품종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이다.

3) 대응방안

- 종자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매비축물량을 확대해야 하며, 외국업체가 종자수급에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한다.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육종소재 및 개발정보를 민간업체에 제공하고 민간업체가 국제적 수준의 자체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유전자원 보호주의에 대응하여 국내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 국공립연구소, 산업체, 민간에서 수집·보존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목록화 및 관리를 위해 상호 공유체제를 확립하고 유전자원의 보존과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신품종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우수 품종개발을 유도하고, 품종 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종자업체는 육종, 생산, 판매 등 분야별 전문화·분업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시장 진출시 업체 공동에 의한 물류 기지 확보 및 상호 정보 교환체제의 구축 등 업체간의 협력 강화로 비용절감과 경영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종자시장에서의 유통질서 확립과 대농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 축산관련산업

가. 사료산업

1) 현 황

- 배합사료원료의 해외의존도는 약 76%(1996년)수준이며, 수입곡물에 의한

국내 가공부산물이 배합사료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해외의존도는 9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제조원가중 원재료비의 비중이 75%를 차지하고 있어 환율의 변동이 사료원료 구입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사료업계는 IMF관리체제 직후의 환율급등에 따라 발생한 환차손을 아직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1997년 사료곡물의 수입량은 938만톤(US\$15.8억)이고, 가공부산물과 기타 원료가 342만톤(US\$7억)수입되었다. 환율이 1998년 1,400원대로 안정되면 약 1조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동일한 수입물량을 1997년의 환율인 950원으로 환산한 것과 비교). 환율상승에 따른 사료가격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1997년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약 40.4% 상승되었으나, 4월 이후 환율이 1,400원대로 안정되면서 8% 정도 사료가격이 인하되었다.
- 배합사료업계의 자금난은 미국 GSM-102자금의 이용으로 다소 완화되었다. 1997년 11월 이후 일람불로만 가능하던 신용장 개설이 연지급신용장으로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료원료의 L/C개설 실적은 1997년 12월 78.9백만달러에서 1998년 1~5월말까지 632백만달러로 증가되었다.
- 미국 GSM-102 자금 10억 달러 중에서 사료원료구매에 3억4천, 옥수수구매에 1억3천7백만달러가 배정되었다. 1998년 6월까지 계획대비 약 50%정도가 CCC(미상품신용공사)에서 승인되었다.
- 동남아시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사료곡물의 1~5월의 국제시세는 하락세를 보여,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옥수수가격은 11.9% 하락되어 환율상승의 영향을 일부 상쇄하고 있다.
- 1997년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도 수준인 1,580만톤이었으나, 1998년 1~

4월까지 배합사료 생산량은 461만톤으로 전년 동기간의 511만톤에 비해 9.8% 감소되었다. 단미·보조사료 이용실적은 1998년 Ⅳ분기에 791천톤으로 전년 동기간의 937천톤보다 15.6% 감소되어 배합사료 생산량보다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 부산물원료 및 사료첨가제 가격이 상승하여 품질이 낮고 가격이 싼 원료로 대체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료효율이 낮은 사료가 공급됨에 따라 사육농가는 급여량을 증가시켜야 하므로 사료비 인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농가가 현금으로 사료를 구매할 때는 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사료업체의 외상거래기간 연장은 금리의 상승으로 인하여 외상거래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 영향 및 전망

- 미국 GSM-102 자금의 1999년 배정금액은 회계연도 초에 사료업체와 한국정부의 자금 필요성, 한국정부의 지급보증 및 은행 신용상태, 국가 신용도, 미국내 자금사정에 따라 결정되고, 배정액중 사료업체에 할당되는 자금액에 따라 사료곡물의 안정적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GSM-102자금은 자금기간이 2년이고 6개월마다 상환되므로 연지급신용장보다 사료업체의 자금부담이 감소되나 일부 업체의 경우 신용보증 및 담보설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축산물 소비 위축과 생산비 상승으로 가축사육두수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사료의 수요가 감소되어 1998년도 배합사료 수요는 전년 대비 9~12% 감소되면서 배합사료업체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료곡물의 수입도 14%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1997년도 배합사료의 시장규모는 약 4조원으로 1998년도의 시장규모는 수요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환율상승에 의한 사료가격 인상으로 약 12~27%의 매출액 신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차손과 금리인상에 따른 압박과 생산비의 상승으로 업체의 수익성이 호전될 전망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 배합사료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수요감소와 축협사료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업체간 시장경쟁이 치열해져 기존업체의 소멸 또는 업체간 합병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료제조업체의 채산성 확보와 국내의 원료공급 및 현지 생산판매를 위한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활성화될 전망이다.
- 전축종 일괄 사료생산에서 제조업체별로 제품 생산이 특화될 전망이다.

3) 대응방안

가) 사료곡물의 안정적 공급 방안 수립

- 미국의 수출신용보증자금(GSM-102), 수출자신용공여외상수입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료곡물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지속한다.
- 1977~84년에 시행된 바 있는 사료안정화기금의 설립으로 사료곡물의 수입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나) 사료 원료에 대한 세율의 조정

- 사료 원료에 대한 저율관세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무관세로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폐지는 사료가격을 인상하여 양축농가에 전가되므로 공제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 축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육류 수출시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 환급조치를 한다.

다) 배합사료 가격 자율화 및 품질 검사 강화

- 사료가격이 환율 변동에 따라 실질적으로 업계 자율에 의해 조정되도록 하여 사료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한다.
- 사료업체 가격담합으로 인한 양축가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 배합사료의 품질 검사기능을 강화하여 사료 효율성과 생산성을 유지한다.

라) 사료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 축종별 전문사료 생산체제를 도입하여 업체·공장별 제품을 특성화하고, 배합사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유희시설을 최대 활용한다. 업체간 임가공 및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생산을 확대하여 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가동률을 향상시킨다.
- 사료원료 수입다변화 및 다양화, 사료업체간 원료의 공동구매를 확대하여 비용을 절감한다.
- 지대포장을 줄이고 무포장(Bulk)사료 공급확대로 비용을 절감한다.
- 정부 차원에서 부존 사료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나. 동물약품산업

1) 현 황

- 동물약품산업의 국내 총매출액은 약 5천억원이며, 완제품 매출액 3천억원 중 53%인 1천6백억원이 사료공장에 의해 소비되고 나머지는 동물약품 대리점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 사료공장의 동물약품 수요는 주문용 47%, 라이신 22%, 메치오닌 8%, 염화코린 4%, 기타 19%로 구성된다. 원자재의 해외의존도는 90%이상으로 제품가격은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생산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연평균 매출액은 50~60억원 수준이며, 가동률은 40~50% 정도에 그치고 있다.
- 동물약품 판매량은 1997년 11월까지 1996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환율 상승으로 인한 제품가격 인상이 예상되자 가수요가 발생하여, 1997년 12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약 30%의 판매량 증가를 보였다. 1998년 1월 이후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하였다.
- 판매가격은 1997년 12월까지 평균 6% 내외로 상승하였으나, 1998년 1월에는 환율 상승부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어 전년대비 평균 40%이상 상승되었다.

표 3-7 1998년 1월 인상 이후의 주요 동물약품 소비자 가격

제 품 명	단위	변동전	변동후	인상률	제 품 명	단위	변동전	변동후	인상률
네오스트레스	kg	22,000	38,500	75.0	임피실린10	kg	30,800	58,300	89.3
락토라제	g	1,650	2,200	33.3	오바론	ml	1,650	2,200	33.3
린코마이신	ml	3,300	4,400	33.3	타이로신200	ml	4,400	6,050	37.5
바이아민	ml	6,600	8,800	33.3	펜부록	g	4,400	6,600	50.0
비타AD3E	ml	1,650	2,750	66.6	포비딘	L	33,000	66,000	100.0

자료: 동물약품협회 내부자료.

2) 영향 및 전망

- 축산업의 위축에 따라 동물약품의 판매량 감소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1998년 판매량은 하반기에 더욱 감소되어 전년대비 약 40%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료의 원가 절감을 위하여 아미노산제의 소비가 감소되고, 항생제는 저가제품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 1998년 3월 이후 평균 판매단가는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환율의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 국내 축산경기 부진과 가격 상승으로 동물약품의 수요가 감소되어 동물약품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부진 및 대금 수금지연 등 경영조건의 악화로 중소기업체들의 연내 도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특히 사료첨가제 생산업체들의 불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 질병예방에 필요한 백신 및 비타민제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나, 항생제나 영양제 등 사료첨가제의 소비는 줄어들 전망이다.
- 열악한 국내 투자여건과 사양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과잉 생산업체의 합병·인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3) 대응방안

- 공급과잉에 따른 유희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폐지로 업체의 규모화를 유도한다. 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 제도를 의무화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를 지원하고, 유통부분의 외국 투자를 제조부분의 투자 유치로 적극 유도한다.
- 생산성 및 질병예방을 위한 필수 동물약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요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출시장을 개척한다.

다. 축산기자재산업

1) 현 황

- 축산시설환경기계 시장은 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에 힘입어 1996년까지 매년 약 20~30%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1997년도에는 정체현상을 보였다. 1997년도 매출액은 약 5,3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지만, 축사시설 및 환경, 축분처리 부문은 전년대비 각각 10%, 13% 증가하였다.
- 축산시설환경기계는 농가의 구매력 상실로 1998년도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약 50%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은 낮아지고 국내산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있다.
- 약 79.2%의 생산업체가 자본금 5억원 미만, 종업원 15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으로, 수요가 제한되어 주문생산에 의존하는 등 외국제품의 모방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8 축산시설환경기계 매출액 변화, 1994~97

단위: 억원

	1994	1995	1996	1997
사양관리	755	739	1,073	987
생산물 처리	700	787	1,268	1,089
사료생산 및 조제용	277	304	339	297
축사시설 및 환경조절용	1,155	1,492	1,759	1,935
축분처리 및 작업기계	499	600	732	831
기타	250	288	188	175
계	3,636	4,210	5,359	5,314

자료: 축산시설환경기자재협회 내부자료.

- 생산가격은 수입원자재가격 및 금리 상승으로 30~40% 인상요인이 있으나 인상폭은 10~15%에 그쳐 업계자체에서 인상요인을 흡수하였다.
- 양축가의 시설지원자금 전용과 자부담 투자 축소로 인한 시설 부실화 및 생산업체의 미수금 증가로 업계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 축산시설환경기계가 HS분류에서 누락되어 있어 산업규모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영향 및 전망

- 1998년 2월까지의 축산시설환경기계 시장이 크게 감소되지 않았으나, 3월 이후 양축농가의 구매력 저하로 시설투자가 저조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매출액이 감소하여 경영난에 봉착할 전망이다. 정책지원 및 양축농가들의 시설투자가 둔화됨에 따라 축산기자재업체의 시설투자도 저조한 실정이다.
- 향후 부실업체의 구조조정으로 30~40%정도 업체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술력이 있는 업체는 규모화 될 전망이나 부실업체 처리시 사후관리가 중단되어 양축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3) 대응방안

- 축산시설환경기계 수요 증대를 위하여 축산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품목을 확대하여야 한다.
- 축산시설환경기계의 표준·규격화를 유도하고, 한국적 축사 모델 및 기계·자재를 개발토록 한다. 사후봉사체계의 확립을 위한 지역 공동 사후관리 제도를 정착시키고, 품질관리·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 축산시설환경기계에 대한 표준산업 분류가 고시되어 독자적인 산업으로 성장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 동남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한 정보 수집과 지역특성에 맞는 기계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3. 유 통

가. 현 황

1) 농산물의 소비위축과 가격하락

- IMF 관리체제 이후 환율이 급등하고 실질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력이 감소하여 과일류와 고급채소류 등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의 소비가 위축되어 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8년 1월부터 5월까지 도매시장의 청과물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약 1.5% 감소하였으며, 거래금액은 약 9.1% 감소하였다.
- 청과물의 부류별 변화를 보면 과일류의 경우 거래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약 4.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금액은 약 23.1% 감소하였으며, 채소류 역시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각각 1.2%, 4.3% 감소하였다.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우 1998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과일류와 채소류의 거래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 1.6% 감소하였으며, 거래금액은 각각 27.4%, 5.1% 감소하였다.

- 청과물의 수요감소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과일과 채소류의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1%, 3.1% 감소하였다.
- 청과물의 수요감소 및 거래의 위축으로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에서의 소매가격은 하락되지 않고 있어 소비감소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9 청과물 부류별 도매시장 거래실적, 1997~98. 5

		1997. 1~5월			1998. 1~5월		
		과 일	채 소	계	과 일	채 소	계
서 울	물 량 (톤)	83,196	731,711	814,907	77,789 (-6.5)	719,746 (-1.6)	796,535 (-2.1)
	금 액 (백만원)	138,887	639,550	778,437	100,867 (-27.4)	606,757 (-5.1)	707,624 (-10.0)
부 산	물 량 (톤)	25,964	106,566	132,530	26,980 (3.9)	108,732 (2.0)	135,712 (2.4)
	금 액 (백만원)	39,119	68,775	107,894	30,488 (-22.1)	71,310 (3.7)	101,798 (-5.6)
단가 (원/kg)		1,630.6	845.0	935.5	1,253.8 (-23.1)	818.4 (-3.1)	867.3 (-7.3)

주: 단가는 서울과 부산도매시장의 평균이며,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임.

표 3-10 청과물 부류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 1997~98. 5

1995=100

		1월	2월	3월	4월	5월
신선과일	1997	92.4	96.0	98.4	100.6	100.3
	1998	90.5	91.0	95.5	100.8	108.6
신선채소	1997	104.7	105.7	102.9	111.3	100.7
	1998	116.8	116.5	115.2	122.0	115.9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표 3-11 주요 청과물의 품목별 가격 변동, 1997~98. 5

단위: 원

품 목	1997.1~5월 (A)	1998.1~5월 (B)	증감율 (B/A)	품 목	1997.1~5월 (A)	1998.1~5월 (B)	증감율 (B/A)
감귤(15kg)	21,929	13,033	-40.6	호박(10kg)	7,562	6,850	-9.4
사과(15kg)	18,850	17,530	-7.0	양송이(2kg)	7,786	5,885	-24.4
배(15kg)	30,321	25,185	-16.9	상추(4kg)	4,640	3,231	-30.3
감(15kg)	32,600	25,840	-20.7	당근(20kg)	11,920	9,690	-18.7
풋고추(10kg)	36,299	29,560	-18.6	배추(5톤)	1,172	1,101	-6.1
오이(15kg)	21,105	17,855	-15.4	양상추(8kg)	14,990	7,590	-49.3
대파(1kg)	570	616	8.1	무(5톤)	1,218	1,106	-9.2
양파(5톤)	2,387	2,084	-12.7	토마토(15kg)	19,244	19,986	3.9
마늘(1kg)	3,360	4,580	36.3	바나나(12kg)	15,456	20,550	32.9
수박(5kg)	6,738	5,943	-11.8	파인애플(12)	12,110	17,161	41.7
참외(15kg)	47,049	44,082	-6.3	레몬(18kg)	34,462	56,467	63.9
딸기(1kg)	2,643	2,569	-2.8	오렌지(18kg)	56,610	46,417	-18.0

주: 서울과 부산도매시장의 동기간 평균치이며, 배추·무·양파의 단위는 천원임.
 자료: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부산 엄궁동 도매시장.

2) 축산물에 대한 영향

- 축산물의 시장동향은 축종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소의 경우 1998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도매시장 거래두수는 전년동기 대비 평균 18.3% 증가하였으나, 돼지의 경우는 9.7% 감소하였다.
- 환율급등에 따라 수입사료 가격의 폭등 등 생산비가 크게 증가되면서 한우의 시장출하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소비자의 실질소득 감소로 쇠고기 소비가 감소됨으로써 산지가격은 크게 하락하였다. 돼지의 경우 환율급등으로 수출여건이 호전되어 수출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1월부터 5월까지의 도매시장 거래두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표 3-12 소 및 돼지의 도매시장 거래두수 변동, 1997~98. 5

단위: 두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소	1997	30,283	23,547	23,040	22,708	22,404	121,982
	1998	32,458	24,530	29,437	29,276	28,634	144,335
		(7.2)	(4.2)	(27.8)	(28.9)	(27.8)	(18.3)
돼지	1997	291,817	230,087	263,810	269,097	247,096	1,301,907
	1998	257,705	206,288	236,969	236,973	237,761	1,175,696
		(-11.7)	(-10.3)	(-10.2)	(-11.9)	(-3.8)	(-9.7)

주: 전국 11개 축산물 도매시장의 실적치이며, ()내는 전년동기 증감율임.
 자료: 축협중앙회.

표 3-13 한우 및 돼지의 가격변동, 1997~98. 5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한 우	산지가격 (천원/수500kg)	1997	2,506	2,450	2,416	2,411	2,421
		1998	2,185	2,148	2,120	2,101	2,097
			(-12.8)	(-12.3)	(-12.3)	(-12.9)	(-13.4)
	소매가격 (원/정육500g)	1997	8,330	8,172	7,500	7,500	7,500
		1998	8,068	8,040	8,040	8,040	8,047
			(-3.1)	(-1.6)	(7.2)	(7.2)	(7.2)
돼 지	산지가격 (천원/100kg)	1997	177	175	169	174	179
		1998	164	200	201	186	170
			(-7.3)	(14.2)	(18.9)	(6.9)	(-5.0)
	소매가격 (원/정육500g)	1997	2,500	2,462	2,300	2,300	2,300
		1998	2,360	2,832	2,900	2,900	2,900
			(-5.6)	(15.0)	(26.1)	(26.1)	(26.1)

주: 소매가격은 서울지역 평균이며,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임.
 자료: 축협중앙회.

○ 축산물도 청과물과 마찬가지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변동이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축산물 수요감소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소의 산

지가격은 크게 하락하였으나 소매가격은 오히려 상승하였으며, 돼지는 산지가격의 상승 폭에 비해 소매가격의 상승 폭이 크다.

3) 유통업자의 매출액 감소와 경영난 심화

- 소비자의 실질소득 감소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유통업자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유통업자들간의 미수금이 증가하였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운영자금 차입이 어렵고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유통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표 3-14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수입 변화, 1997~98. 5

단위: 백만원

	'97. 1~5월			'98. 1~5월		
	과 일	채 소	계	과 일	채 소	계
총거래금액	161,476	556,532	718,008	118,242 (-26.8)	530,206 (-4.7)	648,448 (-9.7)
법인 영업수입	6,118	28,619	37,196	6,375 (-25.7)	25,212 (-11.9)	31,587 (-15.1)

주: 서울과 부산지역 공영도매시장의 법인의 영업실적이며, 서울지역 법인의 영업수입은 총거래금액에 의한 추정치임. ()내는 전년동기비 증감율임.

자료: 부산 임곡동 도매시장 내부자료.

- 서울과 부산지역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1998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청과물 총거래금액은 과일과 채소가 전년 동기대비 26.8%, 4.7%가 감소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과일류와 채소류가 각각 25.7%, 11.9% 감소하였다.
-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경우 농산물을 대량으로 납품하는 기업체의 부도가 속출하고 일반소비자의 구매력이 위축되어 1월부터 5월까지의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평균 20% 정도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중도매인의 점포

내 물량이 적체되고, 농산물의 구매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결과 경영압박으로 부도가 나거나 거래가 중단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 서울과 부산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의 1998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월평균 거래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과일류와 채소류가 각각 23.8%, 7.3%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중도매인 1인당 영업수익은 과일류와 채소류가 각각 21.4%, 5.5% 감소하였다. 중도매인의 영업수익 감소는 매출액의 감소 뿐만 아니라 대량 납품업체의 부도에 따른 회수불능의 미수금 증가가 더욱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산 도매시장의 경우 전체 중도매인의 7~10% 정도가 대량 납품업체로부터 회수불가능한 1억원 이상의 미수금을 가지고 있다.

표 3-15 과일, 채소 중도매인의 영업수익 변화 비교, 1997~98. 5

	'97. 1~5월			'98. 1~5월		
	과 일	채 소	계	과 일	채 소	계
중도매인 거래금액 (백만원/월)	63	55	59	48 (-23.8)	51 (-7.3)	50 (-15.3)
중도매인 영업수익 (만원/월)	215	183	192	169 (-21.4)	173 (-5.5)	171 (-10.9)

주: 서울과 부산지역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영업실적이며, 서울의 경우 총거래금액에 의한 추정치임. ()내는 전년동기비 증감율임.

자료: 부산 임궁동 도매시장.

4)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량 및 거래량 감소

- 환율상승과 농산물 소비위축으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량과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식품가공용 원료농산물의 대부분을 수입품으로 충당해 온 식품가공업체들이 수입원가 부담으로 인해 국내산으로

대체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1998년 1월부터 5월까지 도매시장의 수입농산물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으며, 시장별로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과 부산 엄궁동 도매시장의 수입농산물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52.1%, 38.5% 감소하였다.

표 3-16 도매시장의 수입농산물 거래실적, 1997~98. 5

단위: 톤

	'97. 1~5월 (A)	'98. 1~5월 (B)	B/A(%)
서울	29,688	14,242	-52.1
부산	5,355	3,296	-38.5

자료: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부산 엄궁동 도매시장.

5) 유통경로의 다양화 및 직거래 확대

- 농산물의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연동되지 못하여 과도한 유통마진이 발생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1997년 12월 이후 침체된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 획기적인 유통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직거래 유형이 확산되고 있다.
- 1998년 2월부터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물류센터내 직판활동 강화, 주말장터 개설, 차량순회판매, 금융점포 내 직판, 기획판매전 개최 등 다양한 직거래 유형을 개발하여 확산함으로써 총농산물 거래량중 직거래 비중이 1997년의 5% 수준에서 1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농산물 직거래의 확산으로 유통마진 절감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산지 직구입의 증가를 통한 대형 소매점의 판매가격 인하 및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인하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나. 영향 및 전망

1) 산지단계 유통비용 증가와 농가수취율 하락

- IMF 관리체제 이후 환율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물류비용을 포함한 유통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산지 출하단계의 경우 유류대, 교통세, 각종 포장재 등의 물류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농가수취율이 하락함으로써 농가소득의 감소가 전망된다. 환율이 1,400원(1997년 평균 930원에서 50% 상승시) 수준일 경우 청과물의 유통비용은 IMF 관리체제 이전 대비 7.2%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청과물의 농가수취가격은 평균 3.3%의 하락이 예상된다.

표 3-17 환율변동이 출하단계 유통비용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단위: %

	1,300원	1,400원	1,500원
유통비용 증가	6.4	7.2	8.2
농가수취가격 하락	3.0	3.3	3.8

2) 소비지단계 유통비용 증가와 소비자 지불가격 상승

- 환율상승은 산지 출하단계 뿐만 아니라 소비지단계(도매 및 소매단계)에도 영향을 미쳐 도매 및 소매단계에서의 유류대, 각종 포장재, 인건비 등을 포함한 유통비용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소비자 지불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이 1,400원일 경우 8.5% 정도의 소비지단계의 유통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4.8% 정도의 소비자 지불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표 3-18 환율변동이 소비지단계 유통비용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단위: %

	1,300원	1,400원	1,500원
유통비용 증가	7.7	8.5	9.3
소비자지불가격 상승	4.2	4.8	5.4

3) 농산물의 소비위축 지속과 농가소득 감소

- IMF 관리체제가 지속되면 소비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조세부담율이 증가되어 농산물의 소비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과일류 및 고급 채소류 등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소득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가수취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감소는 과일류와 시설원예농가가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생산과 공급의 조정이 비교적 단기간에 가능하면서 수요의 소득탄성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고급채소류의 경우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이 지속되면 단기적으로 재배면적 감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수입농산물의 감소와 가공원료의 국내산 농산물 대체

- 환율이 일정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량과 거래량의 감소가 지속될 것이며, 고급 열대과일류 및 가공업체 원료농산물의 수입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가공원료의 수입가격이 상승하여 식품가공업체들이 가공원료를 수입품에서 국내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일부 국내산 원료농산물의 소비확대

와 가격지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가공업체의 국내 농산물에 의한 가공원료 대체정도는 환율상승에 의한 수입원가의 증가와 국내산 원료농산물의 가격수준 및 원료농산물의 품질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1998년 1~5월 도매시장에서의 수입농산물 거래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하여 52% 감소한 사실을 감안하면, 환율이 1,300~1,400원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수입농산물의 거래량은 약 5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도매시장 자금난 심화와 출하자에 대한 정산 곤란

- IMF 관리체제가 지속되고 소비자의 실질소득이 감소되면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거래가 위축되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자금압박이 심화되면서 농산물 출하자에 대한 대금 정산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매출액 감소, 미수금의 증가, 외부차입의 어려움, 이자부담의 증가로 출하자에 대한 원활한 정산이 어려워지고, 농산물 출하자들은 정산이 원활한 출하처를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 5월말 현재 도매시장법인의 외상미수금은 전년 동기대비 15.5% 증가하였으며, 순매출액에 대한 외상미수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외상회전율은 1997년 5월말 20.0%에서 1998년 5월말 7.0%로 하락하였다.
- 농안기금 차입금은 전년 동기 대비 35.8% 감소하였으며, 은행차입금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은행 지급 보증율과 보증보험 보증수수료율이 크게 증가하여 법인의 이자부담률이 IMF체제 이전의 17~18.5%에서 23~24% 수준으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도매시장의 경영난과 자금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9 도매시장법인 자금운용 실태 비교, 1997. 5/1998. 5

	'97. 5월말(A)	'98. 5월말(B)	증감율(B/A)
외상미수금(백만원)	7,235	8,359	15.5
외상회전율 (%)	20.0	7.0	-13.0%P
농안기금차입금(백만원)	4,169	2,675	-35.8
은행차입금(백만원)	-	873	-
은행지급보증율 (%)	1.0	2.0	1.0%P
보증보험보증수수료(%)	1.2	3.0	1.8%P
이자부담율 (%)	17~18.5	23~24	5~6%P

주: 부산지역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자금운용 실태임.

자료: 부산 임궁동 도매시장 내부자료.

-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경우 매출액과 영업수익의 감소, 대규모 거래처의 부도속출, 미수금 증가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어 농산물의 구매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청과물 중도매인의 약 10% 정도가 부도에 직면하여 탈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매인의 경영난 가중과 탈락은 거래규모가 영세한 지방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 최근에 개장된 도매시장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6) 새로운 유통경로에 대한 수요 증대

- 농산물 구매력의 저하, 유통비용의 증가 등으로 생산자의 농가수취율이 하락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도매시장 유통경로외 유통단계의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이 가능한 새로운 유통경로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전망이다. 그 결과 직거래 등을 포함한 농산물 유통경로의 다양화가 촉진되어 도매시장의 거래량 증가율은 둔화되고, 물류센터와 대형 소매점의 거래비중이 빠르게 증가될 전망이다. 농산물을 취급하는 소매업체의 대형화와 체인화는 민간유통업체 및 생산자 단체의 물류센터 건설을 촉진시켜, 이들 물류센터를 통한 직거래 형태의 거래비중이 증가될 전망이다.

7)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규모 축소와 도매시장 부정거래 증가

- 당분간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과 농업부문의 재정지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산물 유통개선 투자사업의 축소와 각종 유통시설건설사업의 지연이 예상되며, 특히 효율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산지 유통시설의 설치사업이 지연되거나 투자비의 축소가 예상된다. 농산물 포장센터 등 산지유통 개선을 위한 필수 유통시설과 물류센터 등 농산물 직거래 추진을 위한 소비지 유통시설에 대한 건설사업의 지연과 투자규모 축소가 예상된다. 유통시설에 대한 건설사업 지연과 유통개선사업 투자에 차질이 발생하면 도·소매유통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과 조세부담률의 증가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치와 중도매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치가 폐지될 경우 법인과 상인의 경영수지를 악화시켜 시장내 각종 수수료율의 상승과 부정거래행위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세제상의 특혜를 받고 있는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에 대한 특례세율이 상향조정되거나 폐지될 경우 생산자단체의 유통사업이 위축되고 전반적인 경영압박 요인이 될 것이다.

8) 농산물 소매유통구조의 급속한 재편

- 자본자유화 조치에 따라 농산물 소매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국내 유통업체의 농산물 유통업에 대한 진출이 증가하면서 소매시장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외국의 다국적 유통업체가 국내시장에 급속히 진입하여 농산물을 취급하는 소매점포를 규모화·체인화하고, 국내 유통업체들이 대형 소매점을 중심으로 농산물 소매유통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소매시장 구조의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물가상승과 소비자들의 실질소득의 감

소로 농산물의 소비패턴이 대형소매점을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래시장이나 영세점포의 거래가 위축되고 영업수지가 악화되어 영세상인의 도산과 탈락이 예상된다.

다. 대응방안

1) 산지단계 직거래기반의 조기구축과 유통시설 확충

- 산지단계에서 유통비용을 줄여 생산자가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 중심의 농산물의 직거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직거래 추진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산지에서 규격품의 대량 공동출하로 상적기능과 물류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지포장센터 등과 같은 산지 유통시설을 조기에 확충한다.
- 직거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산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적합한 직거래 모델을 선정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규격품의 대량 공동출하와 브랜드화를 위한 거점시설로 육성한다. 공동출하형태는 현재의 단순 공동수송단계에서 공동계산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직거래의 비중은 타 유통경로에 대한 견제기능이 가능한 전체 농산물의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 산지유통시설 중 투자규모에 비해 가동률과 활용성이 낮은 유통시설의 경우 신규투자를 중단하고, 지역적으로 적정수를 선정하여 농산물 포장센터 등 직거래 시설로 전환한다.

2) 소비지단계 직거래 기반구축과 유통시설 확충

- 소비지단계에서 농산물의 유통비용의 절감과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산지단계와 동시에 도시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거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유통경로간 경쟁촉진과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키

고 산지와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 유통업체의 농산물 물류센터건설을 촉진시켜 경쟁여건을 조성한다. 물류센터는 민간유통업체의 물류센터를 포함하여 2005년까지 전국에 약 20여개소 이상을 건설하여 직거래의 빠른 정착을 유도한다.

-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의 소비지 유통시설을 대형화, 전문화하여 민간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여건을 조성한다. 생산자단체 유통시설의 경우 농·수·축산물은 부류별로 개별적인 직거래 추진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형태로 추진한다. 또한 생산자 단체와 물류센터간의 직거래 형태 외에 선진국에서 주요한 유통경로로 정착되어 있는 생산자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간의 직거래 추진을 위해서 법적·제도적 준비를 조속히 추진한다.

3) 도매시장 거래제도 및 고비용구조 개선

- 건설중인 공영도매시장은 계획대로 적기에 건설·개장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가격형성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빠른 기간 내 유사도매시장 등의 비제도권 시장을 최대한 제도권 시장으로 흡수한다.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 경매제도 위주에서 지역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의매매 허용 등으로 다양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직거래 등 다른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 규모가 영세한 도매시장법인을 통폐합하고 중도매인의 법인화와 규모화를 추진하여 유통업자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해야 한다. 도매시장에 대한 철저한 평가결과에 따라 법인을 통폐합하거나 운영이 부실한 법인은 재지정시 제외시켜야 한다. 거래규모가 영세하여 고비용을 발생시키는 중도매인의 통합을 유도하고 법인화를 추진하여 도매거래의 규모화를 통한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도매시장내에서 발생하는 고비용구조를 철저히 분석하여 제수수료 및 비용을 저비용구조로 조정한다.

-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는 시장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새로 건설되는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관리·운영의 일원화하고, 시장내 참여주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한다.

4) 도매시장 자금난 완화와 출하자에 대한 정산의 원활화

- 도매시장의 심각한 자금난을 완화하고, 출하자에 대한 정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농안기금의 단기지원 및 융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지원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화 해야 한다. 중도매인의 자금사정을 완화시키고 분산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규모화된 중도매법인을 지원해야 한다.

5) 물류표준화 및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 산지단계에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를 위해 포장규격, 수송·하역장비, 물류시설 등을 물류표준화체제에 맞게 정비하고,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단위화물 적재시스템(ULS)으로 전환하여 일관 하역수송체제를 구축한다.
-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지, 도매시장, 물류센터를 연계한 물류정보망을 포함한 종합적인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이 물류표준화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전국의 공영도매시장간 유통정보 전산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출하자 등에 대한 전국적인 유통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산지의 농산물 포장센터, 소비지의 도매시장, 물류센터 및 대형유통업체간 전자 상거래시스템(EDI/EC)을 조기에 구축한다.

6) 급변하는 소매유통구조에 대한 대책강구

- 농산물의 소매유통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소비지 대형유통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생산자와의 거래 교섭에서 우월한 거래교섭력을 행사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가 이들과의 거래에서 대등한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표준규격화된 농산물의 대량 공급체제를 갖추도록 산지를 조직화하여야 한다.

7)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정부의 홍보기능 강화

- IMF 관리체제하에서 소비자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의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어 공급과잉이 되거나 농가소득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해서 홍보기능을 강화한다.

4. 수 출

가. 현 황

- 농산물 수출은 대부분 가공된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선채소, 과일, 화훼류 등 신선 농산물 수출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축산물 수출은 돈육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산물 수출은 임산부산물(버섯, 밤 등)과 목재류가 대부분이다. 1997년 농산물(축산물과 임산물 포함) 수출은 18억 4,700만 달러이며 품목류별로는 농산물이 65%, 축산물이 17%, 임산물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 농산물 수출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8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6억 5,052만 달러이다.
- 1998년 1월부터 5월까지 농산물 수출의 특징은 수입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의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 그리고 수출물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
- 화훼류, 인삼류, 돈육, 임산부산물(버섯, 밤 등) 등 농가소득과 직결된 농

산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나 수입 원료농산물 의존도가 높아 농가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공식품의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다.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업자가 수출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단가는 크게 하락하여 수출물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감소하였다.

- 수출이 증가한 농산물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은 화훼류 205.3%, 임산부산물 74.3%, 홍삼 46.9%, 돼지고기 24.7% 등이다.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연초류와 과실류로 각각 35.0%, 42.1% 감소하였다.
- 주요 가공식품의 수출액 감소율은 과자류 36.1%, 면류 8.4%, 커피류 17.9%, 코코아 21.1% 등이며, 이들 품목은 수출물량도 감소한 경우가 많다.

표 3-20 농산물 수출동향, 1998. 1~5월

단위: 천톤, 백만 달러, %

	농림 산물	농 산 물						축 산 물		임 산 물		
		계	채소	과실	화훼	과자류	면류	계	돈육	계	목재	부산물
수출량	652	484	15.4	23.1	0.7	30.0	25.0	62.8	34.3	105	70.0	1.5
전년동기 대비증가율	22.0	29.2	66.3	-23.1	313.4	-22.6	8.2	39.0	89.2	-8.1	64.6	99.3
수출액	651	430	33.7	15.5	4.6	63.9	49.5	137.9	106.4	82.2	46.7	10.0
전년동기 대비증가율	-4.5	-7.5	3.2	-42.1	205.3	-36.1	-8.4	20.2	24.7	-18	2.8	74.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영향 및 전망

- 농산물 수출은 작황,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상황, 환율 변동, 무역

금융 체계의 안정성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나 신선농산물의 수출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가공식품 수출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의 수출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과실류의 경우 작황 부진, 수출규모가 큰 대만과의 구상무역 문제 미해결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다른 신선농산물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인삼과 연초 수출은 담배인삼공사의 수출실적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금년도 담배인삼공사의 연초류 수출목표는 지난해에 비해 2.5배 증가한 7,300만 달러, 홍삼은 30% 증가한 5,800만 달러 수준이다. 그밖에 인삼협동조합과 일반 인삼가공업체들의 수출증대 노력으로 수출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돈육은 일본의 내수 침체로 안심과 등심 등 고급육의 수출 전망은 밝지 못하나 전지와 후지 등 저급육의 수출 물량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하반기에 들어서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나 수출 목표 7만톤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액 증가율은 물량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 농산물 수출목표의 달성은 가공식품 수출에 좌우될 것이나 금융위기에 따른 업체들의 경영악화, 높은 수입 원자재 의존도, 무역금융의 불안정 등으로 가공식품 수출은 크게 증가하지 못할 전망이다. 농심, 오리온, 롯데 등 대형 수출업체들은 금년도 주력 상품의 수출목표를 20~30% 높게 설정하고 있으나 5월까지의 수출 실적은 부진한 상태이다.
- 임산물의 수출 전망은 밝은 편으로 송이버섯의 경우 양호한 기상조건과 해거리 현상에 따른 생산량 증가, 내수부진 등으로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수출은 일본의 경기침체와 수요정체에도 불구하고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 수출의 문제점

1) 수출액 감소

-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5월 현재 달러로 평가한 수출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 1998년 농산물 수출목표는 전년도에 비해 20% 증가한 22억 달러로 설정되었으나 수출물량(65만 2,000톤)이 크게 증가(22.0%)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4.5% 감소하였다.
- 수출감소의 주요 원인은 수출단가 하락, 무역금융 체계의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 및 수출대금 결제의 어려움, 일본의 경기침체와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다.
- 과자류, 면류, 당류, 커피 등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의 수출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 수출단가의 하락

- 바이어들의 수출단가 인하 요구, 수출 과당경쟁, 내수 부진에 의한 밀어내기식 수출 등으로 수출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21.8%나 하락하여 수출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단가 하락율은 주요 농산물의 경우 돈육 34.1%, 과실류 24.7%, 채소류 38.0%, 화훼류 26.2% 등이며 가공식품의 경우 과자류 17.5%, 면류 15.3%, 당류 13.5% 등이다. 임산물도 목재류와 임산부산물의 수출단가가 각각 37.5%, 12.6% 하락하였다.
- 이러한 수출단가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은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 시장 편중으로 수출가격 협상력이 약한 것을 들 수 있다.

3) 금융비용 및 거래 위험성 증가

- 이자율 상승과 금융경색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자금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Usance L/C와 후불 송금방식이 늘어 수출업체의 금융비용과 거래 위험이 증가하는 한편 환율 변동에 대한 규제 폐지로 수출업체의 환차손 위험이 증가하는 등 수출업체의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라. 수출 대응방안

1) 종합대응방안

가) 수출단가 하락에 대처

- 농산물 수출업체 및 관련 기관의 기능 재정립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시장개척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수출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도록 “한국농림수산물수출입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출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품목별 또는 지역별 수출조합을 조직하여 협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적 성격의 기관이 운영하는 수출업체는 실적위주의 수출을 자제하고 새로운 시장개척과 홍보 등 수출기반조성 기능을 병행하여야 한다.
-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가격협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박람회 참가, 해외시장 정보 수집 및 홍보, 시식회, 바이어 초청 행사 등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시장별, 수요층별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해외교포 조직을 통한 시장개척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시장개척 활동 강

화를 위해서 지역별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품목별, 지역별 수출조합의 조직을 통해 생산, 유통, 가공, 수출의 종합적 관리와 계열화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수출의 일관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예, 목우촌, 참다래 조합).
- 생산자와 바이어간의 직거래 형태 수출 확대를 통해 수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자의 이윤을 증대시켜야 한다(예, 경기도 화훼수출협의회 소속 금난원). 영세한 수출농가들의 외국 바이어와의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외국 바이어 초청, 농산물 박람회 참가, 홍보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품목별로 “수출 자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용 농산물 구매계약 이행을 촉진하고 수출의 안정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 가격상승위험 보험 등 농산물 수출보험의 요율을 낮추고 보상한도를 높여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수출의 안정성을 제고시키며 농수산물 수출보험에서 “Rejection 보험”을 취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 농산물 수출업체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용 농산물 구매비촉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융자조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 정부보조에 의한 시설물의 담보제공 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보조시설물을 담보로 용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생산자의 경영자금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재경부 소관).

다) 수출단지 및 수출품목 육성

- 수출단지 육성 및 수출품목 발굴 사업은 새로운 품목보다는 내수 기반이 튼튼하고 우리의 특성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인삼, 밤, 김치, 버섯, 장류 등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전통적인 수출 농산물 위주로 시장개척 활동과 신제품 개발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 새로운 단지 육성보다는 기존 단지에 대한 운영자금 등 후속지원을 강화하여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경영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유리온실 설치 등 수출단지 지원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단지별 특성과 작목을 고려하여 지원을 차등화하여야 한다(예, 유리온실 설치 등에 대한 획일적 보조).

라) 가공식품 수출증대 지원

- 원료 농산물 수입의 원활화를 위해 신용장 개설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 및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수출자금 지원 등을 일반 가공식품 업체에도 확대하여 전통식품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바이어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식의 개발 및 서류발급 업무를 지원(보건복지부 소관)하고 수입국의 검역 및 통관제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 통상외교의 강화

- 환율 상승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수출 시장 및 주요 교역국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특히 위조 또는 변조된 중국삼에 의한 피

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 대만 등 관련국과의 통상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

- 신선 농산물의 대미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 허용 품목 확대를 위한 대미 통상외교를 강화한다.

2) 품목별 대응방안

가) 김 치

(1) 현 황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김치 소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출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1997년 일본의 김치 생산량은 12만톤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1998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였다. 김치의 종류와 소비층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식 정통김치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의 김치 수출은 최대 수출실적을 올린 1995년 이후 부진하여 1997년에는 1995년에 비해 수출액이 22%(1,100만달러)나 감소한 바 있다.
- 이러한 수출 감소는 일본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수출업체간의 과당경쟁, 수출 및 유통과정에서의 선도 유지 곤란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2) 대응방안

- 새로운 수요의 창출을 위해 제품을 다양화(맛, 종류 등)하고 일본 시장에서 계절별로 특성있는 김치 판촉행사 등 홍보를 강화한다.

- 수출단가 유지, 품질관리, 업체별 수출 과당경쟁 방지 등을 위해 김치 수출업체의 수출조합 가입을 권장하고 조합의 기능을 강화한다.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출업체는 실적위주 수출을 자제하고 시장개척 활동을 강화하는 등 공익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 선도유지를 위한 포장, 운송 기술의 개발 및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나) 인삼

(1) 현 황

- 인삼의 수출여건은 인삼 조제품 수요의 증가, 환율 상승에 따른 경쟁력 향상 등 수출증가 요인과 동남아 시장의 불황이라는 수출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인삼제품보다는 홍삼, 백삼 등 원형삼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시장도 홍콩, 대만 등의 시장으로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110여개의 인삼가공업체가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다양한 인삼제품의 개발과 홍보, 판촉활동에 한계가 있다. 인삼산업법에서 가공품은 제외되어 인삼가공업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 생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생산비가 많이 들고 자금압박이 심한 관계로 원료삼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995년 담배인삼공사 출범 이후 인삼제품에 대한 해외시장 광고, 시장개척 등의 활동이 부진하고, 품질관리 및 수출가격 통제기능이 약화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대응방안

- 시장 다변화와 다양한 제품 개발이 요구된다. 시장을 수출 잠재력이 큰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시장과 카자흐스탄 등 유럽지역으로 다변화하고, 이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 업체에 독점 수입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인삼의 향과 맛을 다양화하여 새로운 수요층을 창출하여야 한다.

- 국산 인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세미나 및 해외 바이어의 국내공장 및 삼포 견학을 확대 추진하고 고려인삼에 대한 상표권보호와 지리적표시제도 시행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원료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식재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 사업과 인삼재배 가능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 양직묘(良直苗) 생산을 위한 종묘상 육성, 인삼재배용 유기질비료 공급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다) 시설채소

(1) 현 황

- 국내 시설채소 생산면적의 증가, 재배기술의 발전, 정부의 지원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환율 상승으로 주요 경쟁국에 비해 수출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 그러나 수출기반이 빈약하고 수출규모가 영세하여 안정적 수출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규모의 영세성으로 수출 부대비용이 과다하고 국내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들의 수출계약 불이행으로 수출이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대응방안

- 국내 채소류 가격안정사업을 강화하여 수출의 안정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자 단체의 활성화와 관측정보 제공 사업의 강화를 통해 재배면적과 출하물량 및 시기 조절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생산자(작목반 등)와 조합의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고 수출단지와 수출업체간의 계약재배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 선도유지를 위한 저온유통시설 지원과 생산자에 대한 경영기술, 정보화 교육강화, 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 사업 지원, 컴퓨터 교육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화 훼

(1) 현 황

- 외환위기 전에는 수출물량 확보가 어려웠으나 내수부진과 환율 상승으로 물량확보의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되는 등 국내의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름철(6~9월) 비수기, 일본경제의 침체 등으로 가격하락과 수출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 수출업체를 통해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포장비 등 물류비 지원이 수출물량 증대로 소진되고 있어 신규 수출물량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
- 수출업체가 난립하여 품질관리와 이미지 제고가 어려워 고품질의 화훼도 수출시장 경매 상장 시 현지산 가격의 70%선에서 상장되는 등 품질관리가 어렵다.

(2) 대응방안

- 고품질, 수출규격품 생산을 위해 생산단지를 규모화, 조직화하고 재배기술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일본의 경기침체와 비수기에 대비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시장개척에 대한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출하촉진자금 지원을 예년과 같이 월별로 지원하고 상반기에 이미 소진된 수출관련 물류비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되는 화훼 종자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를 환급하는 등 수출용 화훼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 선인장의 양액재배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생산비를 낮추고 수출경쟁국의 출현에 대비하여 품질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마) 돈 육

(1) 현 황

- 일본의 경기침체와 냉동돼지고기의 재고증가로 향후 대일 돈육 수출은 둔화될 전망이나 수출목표(물량)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까지 안심, 등심, 후지 등의 냉동육 수출이 대부분이며 수출시장이 일본에 편중되어 있고 규격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 양돈농가는 대규모화, 현대화되어 있지 않고 사육환경과 급여사료가 상이하여 균일한 품질의 수출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없으며, 수출을 위한 규

격돈 생산에는 국내출하시보다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므로 양돈농가에 대한 출하지원금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일본의 위생검사기준과 도축장 위생기준에 미달하여 고부가가치 냉장육 수출에 애로가 있다. 또한 수출업체의 영세성과 과당경쟁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대응방안

- 균일한 수출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계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료업체, 수출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일반 규격돈 생산농가에 대한 출하지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규격돈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 기업형 농가는 수출에, 일반 농가는 내수시장에 전문화한다.
- 냉장육 수출확대를 위해 냉장유통시설을 확충하고 가공기술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지속적인 돈육 수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 등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단기적으로 톱밥 공급의 원활화, 정화시설 설치 및 가동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밥

(1) 현 황

- 농촌 노임의 하락과 노동력 증가, 내수부진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과원 관리가 강화되고 수확과 가공에 따른 비용이 감소하여 생산량의 증가와 가격경쟁력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 그러나 일본 시장의 수요 정체와 경기침체,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시장이 일본에 편중되어 있고 제품

이 다양하지 못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의 정체 또는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2) 대응방안

- 밤 가공품 개발, 생밤 수출 등을 통한 시장 다변화와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밤의 저장 및 포장방법 개발, 검역관련 정보 등 해외시장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밤을 이용한 다양한 조리 방법을 개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일본과 중국의 생산, 소비 등 밤 관련 해외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여 시장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Ⅳ. 농업 재정 · 금융부문의 영향과 대응방안

1. 농업 재정

가. 영향과 전망

1) 자원 조달

- 긴축 재정이 농림부문에도 적용된 결과 1998년 농림부문 추경예산¹은 7조 7,324억원으로 1998년 당초 농림예산보다 7,952억원이, 1997년 예산에 비해서는 3.1% 감소한 2,474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표 4-1 국가예산과 농림예산의 변화, 1992~98

단위: 억원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당초)	1998 (추경)
국가전체예산(A)	361,710	433,320	493,680	572,440	666,690	740,480	754,636	740,804
농림부문예산(B)	30,209	37,060	55,370	76,151	79,060	79,798	85,276	77,324
B/A	8.3	9.0	11.2	13.3	9.3	8.1	11.3	10.4

주: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와 재특회계의 합이며 농림예산은 일반회계, 재특회계, 농특회계의 합으로 순계로 표시된 것이다.

자료: 농림부, 「예산개요」, 각 연도.

¹ 1회 추경예산을 나타내며 이는 일반회계와 재특회계 및 농특회계를 합한 것으로 순계규모로 표시된 것이다. 현재 기업구조조정 비용과 실업대책 등으로 재정부담이 추가되어 2회 추경예산 80조 804억이 국회심의 중에 있다.

표 4-2 농림부문 추경예산의 기능별 변화 추이, 1997~98

단위: 억원

	1997(A)	1998(B) (당초)	1998(C) (추경)	C - B	C - A
1. 사업비	79,236	82,703	74,967	△ 7,736	△ 2,269
· 순사업비	58,126	62,711	52,797	△ 9,914	△ 5,329
·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7,437	5,621	6,387	766	△ 1,050
· 채무상환	7,887	6,368	7,931	1,563	44
· 비료계정 적자보전	2,841	1,667	1,380	△ 287	△ 1,461
· 양곡지원	945	6,336	6,472	136	5,527
2. 기본적 경비	2,562	2,573	2,357	△ 216	△ 205
3. 계	79,798	85,276	77,324	△ 7,952	△ 2,474

자료: 농림부, 「1998 추경예산 개요」, 1998. 3.

- 1998년 농림부문 추경예산의 순 사업비는 1997년의 5조 8,126억에서 9.2%가 감소한 5조 2,797억이며 이처럼 사업비 비중이 감소된 이유는 양곡증권채권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양곡지원을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1998년 추경예산도 예년과 같이 채무상환,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양곡지원, 비료계정적자 보전 등 사업비 이외의 비중이 높다. IMF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농림예산이 과거 농정결과를 보전하거나 채무상환에 사용되고 있다.
- 1998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목적세인 농특세를 폐지하여 일반조세화하고, 농림부문 조세감면을 축소하며, 농지전용부담금은 2000년까지 유지하고, 농지조성비는 계속 유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1998년 세

제개편 검토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향후 현행 수준의 농림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1993~98년간 연평균 농림예산 7조 856억원 중, 이차보조상당액을 제외한 융자금과 채무상환액 예산이 전체의 29% 수준인 2조 379억원이었으며, 갈수록 농림예산에서 양곡증권 발행에 따른 상환, 농특회계 채무상환 증대, 추곡수매 지원자금의 부족 등 고정지출경비가 확대되고 있다.
- 1994~97년간 농특세의 세수결손액은 6,566억원이었으며 1997년에만 농특세 세수결손액이 2,832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2,000억원 가량 농특세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여 농림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2) 농림부문 예산회계제도(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용

- 농림부문의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용목적은 농림업 구조개선과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대별할 수 있으나, 품목별·사업부서별로 별도의 자금이 조달되고 관리됨으로써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농림부문과 관련된 특별회계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농촌구조개선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국유림관리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 등 5개가 있으며, 기금으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산림개발기금, 종자기금, 축산발전기금(민간), 잠업진흥기금(민간), 인삼산업진흥기금(민간) 등 8개가 있다.
- 지원주체별로 농림부문 특별회계와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 회계구조의 복잡성, 유사기금의 중복과 불합리한 기금관리, 유사사업의 상이한 지원조건, 기금운영에 대한 법적 규정 미비, 자금운영의 자의성, 일부 기금의 적자 누증, 통화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 농림부문 기금운영과 관련되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는 (가) IMF

관리체제 이전에는 축산발전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상시 여유재원을 갖고 있었으나, IMF 관리체제 이후에는 이들 기금의 운용규모와 여유재원이 급격히 저하되어 이들 기금 운영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으며, (나) 각종 기금의 일시 보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유보되고 있는 반면, 농특회계는 2조원이 넘는 부족자금을 재특이나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기금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다) 양곡증권정리기금과 농지관리기금 등 일부 기금은 시장금리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을 차입하고 있어 1997년 말 누적 적자규모가 6조 5,784억에 달하는 등 적자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 4-3 농림부문 기금* 운용 및 여유재원 현황

단위: 억원

	1997 운 용 규 모			1996말	1996말
	계	투 자	용 자	조성잔액	여유재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17,900	5,485	12,415	18,236	2,315
축산발전기금	9,521	3,211	6,310	25,299	4,585
산림개발기금	479	34	445	1,350	34
농지관리기금	11,750	8,266	3,484	32,237	1,057
잠업진흥기금	98	54	44	95	70
인삼산업진흥기금	114	41	73	140	73
종자기금	562	562	-	217	-
합 계	40,424	17,653	22,771	77,574	8,134

주: *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성격은 양곡증권 상환을 목적으로한 기금이므로 이 표 4-3 작성에서는 제외하였음.

자료: 농림부, 「1997 예산개요」, 1997.

3) 1998 농림부문 추경예산의 투융자 방향

○ 1998년 농림부문 추경예산편성의 특징은 (가) 직접 영농지원사업, 유통개

선사업, 쌀 생산기반확충사업은 일부 증액 또는 감액을 최소화하며, (나) 중장기 계속사업인 생산기반확충사업은 사업별로 적정규모를 조정하며, (다) 1997년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투자규모가 큰 신규 설치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폭 감액하는 것 등이다.

- 1998년 추경예산의 사업별 투자내역과 방향은 표 4-4와 표 4-5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 4-4 농림사업별 투자내역, 1997~98년(추경)

단위: 억원

	1997예산(A)	1998 (당초)	1998(B) (추경)	B-A
· 생산기반조성	24,775	27,123	22,394	- 2,381
· 농업기계화	4,463	4,183	3,638	- 825
· 생산 및 유통개선	11,593	12,262	10,628	- 965
· 기술개발 및 정보화	816	786	666	- 150
· 인력육성	4,725	4,909	4,455	- 270
· 소득원 개발 및 농가 자금지원	4,540	5,851	4,502	- 38
· 생활환경개선	1,551	1,551	1,302	- 249
· 기타사업	196	153	176	- 20
사업비 총계	52,659	56,818	47,761	- 4,898

자료: 농림부, 「'98 추경예산 개요」, 1998. 3.

표 4-5 1998년 농림부문 추경예산의 투자 방향

사 업	투융자 감소	투융자 증가
생산기반조성사업	경지정리사업, 방조제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기계화	농기계구입자금 농기계생산비축자금지원	농기계사후관리지원
유통가공산업	도매시장건설, 가공산업육성, 물류센터, 수출지원	미곡종합처리장
기술개발 및 정보화	농림수산물기술개발	
인력육성	후계자, 농수산물계 학교 지원, 전업농, 선도농업체	과실·채소·특작 생산 유통지원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농산물포장센터
소득원개발 및 자금지원	농촌특산단지 육성, 농촌 관광휴양자원개발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생활환경개선	정주 생활권개발, 농촌생활용수개발	

자료: 농림부, 「'98 추경예산 개요」, 1998. 3.

나. 대응방안

- IMF 긴축재정시대에 농림부문 예산운용의 기본방향은 점차 축소되고 불안정해지는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향과 확보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가)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나)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나) 투융자사업의 우선순위 재조정, (다)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 (라) 경영성과 평가를 토대로 한 사후관리, (마) 투융자제도 개선, (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와 정책 시행의 자율성 제고, (사) 자금수혜자 편의를 고려한 자금배분, (사) 교육·훈련 및 정보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설정한다.

1)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 농림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림예산에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늘여 나가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와 국채관리기금의 차입금 규모를 축소하여 고정지출분을 축소하며, 농특세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 1998년 세제개편시에도 농특세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만약 농특세를 폐지하여 일반조세화할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설립하여 기존의 농특세 세수를 농림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 현재 양곡증권 장기채 상환이 농림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므로 특정 시기에 양곡증권 관리기금의 적자를 해결한다.
- 농특회계의 융자사업은 기금으로 편입시키고, 각종 기금은 기능에 따라 단순화하여 통합·정비한다.

2) 투융자 우선순위의 조정

- 투융자 우선순위는 (가) 경제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투자사업 규모를 선정하며, (나) 장기투자를 요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연기하고, (다) 파산 위기에 있는 농가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거나 원금과 이자상환을 연기하며, (라)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는 분야,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분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마) 과거 성과가 미미한 사업이나 농업인 직접지원사업에 대한 투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 상기 기준에 따라 투융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농림사업을 열거하면 표 4-6과 같다.

표 4-6 농업 투융자 규모의 조정 방안

투 융 자 조 정	농 립 사 업
확 대	농업경영자금 융자, 중소농 지원사업, 환경보전형 농업, 기술개발 및 정보화 사업, 직불제 확대,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농산물 품질 향상, 농업관측, 동식물 검역, 에너지 절약형 농업,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
유 지	농업인력 육성, 생산기반정비사업(밭기반정비, 기계화확포장로사업,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사업, 토양개량제 지원), 생활환경개선과 농촌 복지 증진, 물류센터,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 등
축 소	경지정리사업,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도매시장 건설, 대단위농업개발 사업, 간이집하장, 유리온실사업, 농공단지조성, 관광농원사업, 농산물 가공산업, 임도정공장 통폐합 등

3) 농림부문의 특별회계와 관련 기금의 정비

- IMF의 긴축재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의 원천이 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해야 한다. 농림부문 기금통합의 기본방향은 재정기능의 정상화와 공공재원의 배분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기금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다른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설정한다.
- 일반회계에는 기본적 경비, 농가부담경비, 양곡증권정리기금 지원, 양곡수매지원 이외에도 농특회계의 채무상환을 포함시키며, 농특회계는 보조사업만을 포함시키되 융자사업은 기금으로 이전하도록 한다. 현재 품목별, 관리주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금을 통합하되 품목 중심의 운영에서 기능 중심의 운영방식으로 개편한다.
- 농림부문 기금통합을 위한 방안으로는 (1) 모든 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고 그 안에 정책목적에 따라 농업구조개선계정과 가격안정계정으

로 구분하는 방안, (2) 정책목적에 따라 농업구조개선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2개 기금으로 통합하는 방안, (3) 정책목적에 이외에 기금운영의 신축성을 가미하여 농지관리기금, 농업구조개선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3개 기금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표 4-7 농림회계제도의 정비 방안(1안)

현행	통합안
농특회계의 구조개선사업계정 보조금 농특회계의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 보조금 농안기금의 수입·수매자금外 보조금 축산발전기금의 수입·수매자금外 보조금 산림개발기금의 보조금 농지기금의 보조금 인삼산업기금의 보조금	농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특회계전출금 중 보조금	농어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농특회계의 구조개선계정 융자금 농특회계의 농특세전입금계정 융자금 농안기금의 수입·수매자금外 융자금 축발기금의 수입·수매자금外 융자금 산림기금의 융자금 농지기금의 융자금 인삼기금의 융자금	농촌발전기금(가칭) (구조개선계정)
농안기금의 수입·수매자금 축발기금의 수입·수매자금 종자기금의 수입·수매자금	농촌발전기금(가칭) (가격안정계정)
양곡증권정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2안>

- 1안과 동일하되, 1안의 구조개선계정을 농업구조개선기금으로, 가격안정

계정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농업구조개선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2개 기금으로 통합한다.

<3안>

- 2안과 동일하되, 농지기금의 보조금과 융자금을 별도의 농지관리기금으로 명칭을 부여하여 농업구조개선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의 3개 기금으로 통합한다.

4) 이차보상제의 확대 실시

- 적은 예산규모로도 종전과 같은 자금지원규모를 유지하고, 예산 운영의 경직성과 필요한 시기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경영자금과 농기계자금 등 일부 사업에 시행되고 있는 이차보상제를 확대 실시한다. 이차보상제의 확대 실시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각각 필요한 자금의 일정비율을 부담한다.

5) 농업관련조직의 경영혁신을 통한 예산지출의 효율화

- 농·축·임·삼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간의 업무 중복을 없애고, 경영 혁신을 통해 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며, 정부·생산자 단체·공기업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 농업관련단체의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고, 단체간 중복된 기능과 업무를 통합하여 농업관련 투자기관의 경영개선을 도모한다.
- 공기업 중 민간과 경쟁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업무나 분야는 민간으로 이양한다.

2. 농업 금융

가. 영향 및 전망

1) 정책 금융

- 1998년 농림정책자금의 규모는 1997년의 12조 2,970억원에 비해 2,667억원이 감소한 12조 303억원으로, 그 구성내역은 보조 3조 3,652억원, 융자 1조 9,145억원, 기금 1조 9,984억원, 자금 4조 7,522억원이다.
- 농특회계와 농·축경영자금의 금리가 평균 5%에서 3.5% 인상되어 8.5%가 되어야 하나, 1998년 추경예산에서 1,791억을 지원하여 정책금리를 6.5%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축발기금, 농안기금, 농지관리기금 등 기금 융자금의 금리는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표 4-8 농림정책자금의 규모, 1997~98

단위: 억원

	1997	1998
회계(보조 + 융자)	55,193	52,797
기금 ¹⁾	25,917	19,984
자금 ²⁾	41,860	47,522
총계	122,970	120,303

주: 1) 축발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안기금, 임업진흥기금 등.

2)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등.

자료: 농림부.

- 농업경영비 상승, 농산물의 소비 위축 및 고금리 체제로 인해 농가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나 1998년 5월 현재 정책자금의 연체비율이 3.9%로 나타나 아직까지 정책자금 연체율은 낮은 수준에 있다. 그러나 고금리 체제하에서 자금부족이 지속될 경우 재무구조가 건실한 농업인들도 다수가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
- 정부의 세입 부진으로 1998년 5월 현재 농촌구조개선사업자금의 지원실적이 15.5%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작년 같은 기간의 24.9%에 비해 9.4%나 감소된 것이다.
- 정부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6,5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특회계와 농축산경영자금의 정책자금 금리의 경우 추경예산 확보로 1.5%만 인상하고 기금 금리는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 축산농가에게는 4~6월 만기도래자금 3,185억원에 대하여 3개월 연기, 시설원예농가는 1~4월 만기도래자금 45억원에 대하여 6개월 상환연기 조치를 취하였다.
- 금년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상호금융 약 6조원의 농가 대출금에 대해 이자만 납부하면 원금 상환을 6~12개월 연기 또는 대환조치 하였고, 이미 연체된 상호금융 자금 3조 5천억에 대해서도 연체이자의 징수를 유예하였다.

2) 상호금융

- IMF 이후 금융기관으로서 단위농협의 안정성이 인식되어 상호금융의 예수금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대출금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전반적인 고금리체제하에서 상호금융의 대출이자 1997년 12월의 13.5%

에서 1998년 1월에는 16.21%로 2월에는 16.54%로 높아지는 등 상호금융의 대출금리가 16~17%까지 상승하였다.

표 4-9 상호금융의 예수금과 대출금 규모의 변화, 1997. 12~98. 4
단위: 억원

	대출금	예수금
1997. 12월	355,220	444,945
1998. 1월	349,769	447,169
2월	345,850	456,274
3월	345,669	465,504
4월	341,220	479,449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1998. 6.

표 4-10 회원농협과 시중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 변화, 1997.12~98.2
단위: %

	회 원 농 협 (A)			시 중 은 행 (B)			차 이 (A-B)		
	1997.12	1998.1	1998.2	1997.12	1998.1	1998.2	1997.12	1998.1	1998.2
예금(A)	10.65	11.27	11.06	9.00	9.20	9.00	1.65	2.07	2.06
대출(B)	13.50	16.21	16.54	15.00	16.00	16.50	-1.50	0.21	0.04
예대차 (B-A)	2.95	5.06	5.48	6.00	5.20	5.50	3.15	2.28	2.10

자료 :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동향」, 1998. 4.

3) 농업금융기관(농·축협)의 사업 현황

(1) 중앙회

○ 현재 농·축협의 BIS 기준 자기자본의 비율이 각각 9.24%와 9.26%이지만

중앙회의 회원조합 대출금에 대한 위험가중치인 20%를 상향조정할 경우 BIS 기준 자기자본의 비율이 저하될 전망이다.

- 농·축협의 조수익 중 이자부문 이익 의존도는 각각 80.1%, 65.1%로 나타나 농·축협 중앙회는 신용사업의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앙회의 총 대출금 중 정책자금의 비율을 보면 농협이 46.6%, 축협이 80.3%로 농업금융기관의 정책자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며, 총 예수금중 농·축협의 공공예금 비중을 보면 농협은 30%(금고), 축협은 20%(기금)에 달하고 있어 총 예수금 중에서 공공예금의 비중이 높다.

(2) 회원조합

- 예대마진의 축소, 차입의존도의 심화, 규모의 영세성 및 경영전문성 부족 등으로 농촌 회원조합의 경영수지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 1997년 적자조합수는 농협이 39개, 축협은 41개로 축협의 부실경영이 높다. 농협의 경우 1읍면 단위조합이 전체의 74%인 952개이며 조합당 평균 직원수가 40명으로 단위조합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다.
- 조합장 선거를 의식하여 무리한 사업추진 등 방만한 조합운영이 문제되기도 하며, 인력감축과 비용절감 등 조합의 경영개선노력이 미흡하다. 또한 출자금 조성이 부진하고 조합운영이 신용사업 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조합경영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다. 자기자본 잠식조합은 농협의 경우 1995년 11개에서 1997년 말 25개로, 축협의 경우 1995년 55개에서 1997년 말 63개로 증가하였다.
- 회원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소멸 조합당 3~7억원을 5년 거치 1~3년 상환에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 실적이 미비하다.

표 4-11 농협의 합병실적 및 계획, 1997~2001

단위: 개소

	1997	1998	1999	2000	2001
소 멸	64	200	100	250	236
존 속	1,286	1,086	986	736	500

자료: 협동조합발전기획단, 「협동조합발전방안」, 1997. 6.

4) 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운영

- IMF 관리체제하에서 금융기관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가중자산의 위험가중치가 10%(농지 담보 100, 주택담보 50)에 불과한 신용보증부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신보는 일반신보와 기술신보에 비해 보증운영배수가 낮을 뿐 아니라 대위변제율도 낮아 건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농신보 운영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12 농신보, 일반신보, 기술신보의 운영 비교

단위: 억원, %

	농 신 보	일 반 신 보	기 술 신 보
기금잔액(A)	5,395	7,052	3,266
보증잔액(B)	58,451	113,286	56,962
· B/A(%)	10.83	16.06	17.44
대위변제(C)	84	9,230	5,191
· C/A(%)	0.14	8.15	9.11

자료: 농림부.

나. 대응방안

1) 정책금융

(가) 농업금융기관의 농업인 직접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심사권 강화

-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직접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권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농업금융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농업인 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자 선정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예상되는 신용제한현상을 없애기 위해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 농업구조개선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의 공급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고객) 중심으로 전환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한다.

표 4-13 현행 자금지원방식과 종합자금지원제도와와의 특징 비교

	현행사업별 자금지원	종합자금지원제도
· 지원방식	개별사업별 분산지원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종합지원
· 대상자 선정	시장·군수(농발심의회)	대출취급기관
· 자금지원	연 1회 일괄 선정 지원	수시 선정·지원 사업평가후 추가지원
· 사후관리	채권관리 중심	경영·기술 컨설팅 중심

- 품목별·사업별로 세분하여 지원하는 방식에서 농가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자금(중장기 또는 단기 운영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영주체에게는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종합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자금지원을 경영·기술컨설팅과 연계시킨다.

(나) 농업인 지원사업의 지원조건 재조정

- IMF 관리체제하에서 경제여건과 농가경영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농업인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을 전면 재조정한다.

(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확대 운영

- 사업능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신용보증기금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개선을 위해 신용보증부 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나, 농신보는 보증운용 배수가 낮고 정책자금 대출금 중 농신보 이용률이 낮으므로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농신보의 활성화를 위해 영농자재 외상구입 등 경제사업 채권도 보증대상에 포함시키고, 보증대상자 범위를 농산물 유통 및 가공업체까지 확대한다. 일반자금, 정책자금 구분없이 연대보증인 입보 면제범위를 5천만원까지 확대하며, 운전자금은 일정기간 소요자금을 평점별로 차등화하고, 시설자금은 당해시설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보증지원하는 등 보증액 산정방법을 개선한다.
- 농신보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신보 관리기구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2) 상호금융

(가) 농림어업인의 조합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기한 연장

- 1998년 말로 종료되는 농림업인의 조합예탁금·출자금 비과세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기존 예탁금이 대거 이탈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비과세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나) 상호금융의 수지 개선

- 전자금융, 자동이체, 텔레뱅킹, 자동화기기보급 등으로 창구업무의 생력화를 추진하는 한편, 단순히 물량 위주의 성장보다는 저원가성 경영체제를 확립하도록 한다.
- 프라임 레이트(prime rate) 제도를 운용하고, 고객별로 차등금리를 적극 활용하고, 신축적으로 금리를 운용하고,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 한다.

3) 농업금융기관의 구조조정

- 금리자유화, 예대마진의 축소 등의 급변하는 농업금융의 여건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농업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농업금융기관의 전문화와 규모화를 진전시켜 농업금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현행 중앙회의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가) 현행 독립사업부서제를 강화하는 안, (나) 기능별로 분리 통합하는 안으로 농정활동과 지도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농축임삼협중앙회」 설치, 기존 각 중앙회 경제사업을 「전국연합회」 체제로 전환, 현행 각 중앙회의 신용사업을 통합 협동조합은행을 설립하는 안, (다) 현행 각 중앙회를 1개의 법인체로 통합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감

안할 때, 현재 제시되고 있는 3개안 중에서 (나)안이 바람직한 구조조정안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통합안은 협동조합 스스로가 강도높게 구조조정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농수축협외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자를 늘리거나 자산재평가 등을 통해 기본자본의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중앙회의 신용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운용수익의 극대화, 혁신적인 점포구조조정, 인력·경비절감 등 경영합리화의 추진, 복합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영합리화의 추진, 업무전산화에 대한 투자확대와 국제금융분야의 전문성 강화 등을 시행한다.
-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평가를 토대로 부실조합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합병을 적극 추진한다. 합병은 자율합병을 기본으로 하되 ‘경영성과 평가위원회(가칭)’를 설립한 뒤, 해당 조합들의 경영성과와 구조조정과정을 평가하여 추진하며, 회원조합 파산처리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V. 농촌사회 및 농가경제의 변화

1. 농촌사회의 변화

가. 현 황

1) 농림부문 취업자 증가

- 1998년 1월 이후 농림업 부문의 취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8년 5월말 현재 농림업부문 취업자는 2,725천명으로 1997년 5월의 농림업 부문 취업자에 비해 10.6% 증가하였다. 농림업 부문 취업자 증가는 주로 신규 취업자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귀농자 및 농촌 지역의 농외취업 실직자의 증가도 부분적으로 농림부문의 취업률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표 5-1 농림부문 취업률 변화, 1996~98

단위: 천명, %

	1월	2월	3월	4월	5월
1996	1,779	1,799	2,039	2,389	2,541
1997	1,719	1,752	2,043	2,353	2,464
1998	1,761	1,889	2,254	2,588	2,725
1996/1997	96.6	97.4	100.2	98.5	97.0
1997/1998	102.4	107.8	110.3	110.0	110.6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1998(6).

2) 귀농인구의 증가

- 1998년 1~5월 중 귀농자 가구는 3,513가구로 1998년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8년 1~5월 중 월평균 귀농자 가구는 1997년도와 비교하여 4.6배 증가하였다.
- 현재의 추세대로 귀농이 증가하면 1998년말까지 귀농 가구는 10,000가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나, 1998년 6월 이후 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귀농 가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귀농자의 45.1%가 영농에 대한 사전 준비없이 귀농하며, 20.4%가 영농자금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표 5-2 귀농가구 증가 추이, 1995~98

단위: 명, %

	1995	1996	1997	1998
월평균 귀농자 수	77	172	152	702
전년 대비	71.4	223.4	88.3	461.8

주: 1998년도의 월평균 귀농자 수는 1998년도 5월까지의 합계를 월별로 환산한 것임.
자료: 농림부 내부자료.

3) 농촌노임 하락

- 1998년 5월의 남자 농업노임은 전년동기 대비 2.9%, 여자 농업노임은 7.9% 하락하였다. 농업노임이 농촌 지역의 미장 등 특수노임보다 크게 하락하고 있다.
- 1997년 12월 이후 농용 유류 가격 상승, 농기계 가격 상승 등 농기계 사

용료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료는 1997년 5월의 요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5-3 농촌임료금 변화, 1997~98

단위: 원, %

	농업노임		특수 노임		트랙터사용료
	남	여	목 수	미 장	
1998년 3월	37,434	25,617	71,484	68,645	26,468
5월	37,353	25,461	70,060	67,993	26,468
1997년 3월 대비	98.1	93.3	98.2	97.1	103.5
5월 대비	97.1	92.1	95.7	96.0	101.0

주: 1) 농업노임에는 음식물비가 포함됨.

2) 트랙터 사용료는 300평 기준이며 기사 1인 포함된 요금임.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1998(6).

4) 농촌지역 농외취업 기회의 감소

- 1997년 12월 이후 농촌 지역의 농외취업자 실업이 증가되고 있다. 농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1997년 12~1998년 3월 중 농가 가구원의 농외취업 기회는 23.4% 감소하였다. 농외취업가구의 비율은 중소농층이 대농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4 농가 가구원의 농외취업의 변화, 1997. 12~98. 3

단위: 호, 인, %

	취업가구수	취업가구원 수
1997. 12(A)	87	141
1998. 3(B)	73	108
비율(B/A)	83.9	76.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조사 결과(1998. 4).

5) 농지 수요 변화

가) 영농규모 확대

- 농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1998년도 영농규모는 1997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한우의 경우는 사육두수 축소 의향을 나타냈다.

표 5-5 농가의 영농규모 변동 의사, 1997~98

단위: 평, 두수

	농가수·사육규모	농가당 영농규모		증감율(%)
		1997	1998	
수 도	116	1,953	1,966	0.7
과 수	47	6,389	6,432	0.7
시설채소	25	1,796	1,960	9.1
시설화훼	4	1,725	1,725	0
축 산				
- 한 우	33	38	37	-2.6
- 젖 소	7	42	54	28.8
- 돼 지	9	489	580	18.6

주: 수도작의 경우는 농가조사결과를 전국농가영농규모 계층비에 따라 보정한 수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241명 조사 결과(1998. 4).

- 수도작 재배면적은 영농규모가 1.0ha 미만과 1~2ha 농가계층에서 각각 4.9%, 2.8% 감소한 반면, 영농규모가 2~3ha인 농가계층과 3.0ha 이상인 농가계층에서는 각각 6.7%, 10.8% 증가하였다.
- 조사농가의 67.6%가 지난해와 같은 영농규모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영농규모 확대 의사를 밝힌 농가는 18.7%, 영농규모 축소 의사를 밝힌 농가는 13.7%로 나타나고 있다.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가 중

55.6%는 농외소득 감소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35.6%의 농가는 농기계 및 영농시설에 적합한 영농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영농규모 확대 방법으로는 농가의 75.6%가 임차를 통하여, 24.4%가 농지구입을 통하여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 중 36.4%는 영농 자재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영농소득 감소가 예상되므로 규모를 축소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33.3%는 농산물 가격보장이 안 되어서, 30.0%는 노령화 등 노동력 부족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한다고 응답하였다.

나) 임차지 면적 확대

- 농가조사 결과 1998년 호당 평균 임차농지 면적은 1,484평으로 1997년의 1,341평에 비해 10.7% 증가하였다.

표 5-6 영농규모별 임차농지 면적 변화, 1997~98

단위: 평, %

	임차농가 수	2.0ha 미만	2.0ha~3.0ha	3.0ha 이상	평 균
1997년 (A)	85	1,172.6	1,845.8	3,582.1	1,341
1998년 (B)	92	1,282.3	2,098.0	4,295.8	1,484
비율(A/B)	108.2	103.0	113.7	119.9	110.7

주: 평균 임차면적은 통신휘 조사 결과를 전국 농가계층 비례에 따라서 보정한 수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휘 조사 결과(1998. 4).

표 5-7 경영주 연령별 임차농지 면적 변화, 1997~98

단위: 평, %

	임차농가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평 균
1997년(A)	85	3,225	2,359	2,094	1,224	1,341
1998년(B)	92	4,882	2,688	2,212	1,268	1,484
비율(B/A)	108.2	151.4	113.9	105.6	103.6	110.7

주: 평균 임차면적은 통신휘 조사 결과를 전국 농가계층 비례에 따라서 보정한 수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휘 조사 결과(1998. 4).

- 임차농지 증가는 중소농 보다 대농층에서, 그리고 30~40대의 젊은 농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 임차료 상승

- 300평당 논 임차료는 1997년 249,823원에서 1998년 255,195원으로 2.2% 상승하였고, 밭 임차료는 166,635원에서 175,491원으로 5.3% 상승하였다.

나. 영향 및 전망

- 농림업 부문 취업자의 증가는 농업노임 하락, 농지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임차료 상승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귀농자 가구 증가는 농지수요 증가와 함께 농지가격 상승 및 임차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귀농자들이 기대한 영농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농촌정착에 실패하게 되면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이 안전하게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과 영농자금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도시 지역 실직자의 증가에 따라 농업노동 참여 증가가 예상되므로 농촌 노임은 더욱 하락 할 가능성이 있다. 농촌노임의 하락과 농기계 사용요금의 현상 유지는 농업경영 수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농지수요 증가에 의한 농지가격 상승과 임차료의 상승은 농가 경영수지를 압박하여 농가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대농은 임차면적 확대 등을 통해 영농규모를 확대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반면 중소농은 임차지 축소 등으로 영농규모가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농의 농업소득 감소가 대농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된다.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외취업자의 실직 증가로 농가의 농외소득이 축소되고 있다. 농외취업자의 실직에 의한 영향은 대농층보다 중농과 소농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소농의 농업소득 감소 및 농외소득 감소가 대농층보다 크게 나타나 농가 계층간 소득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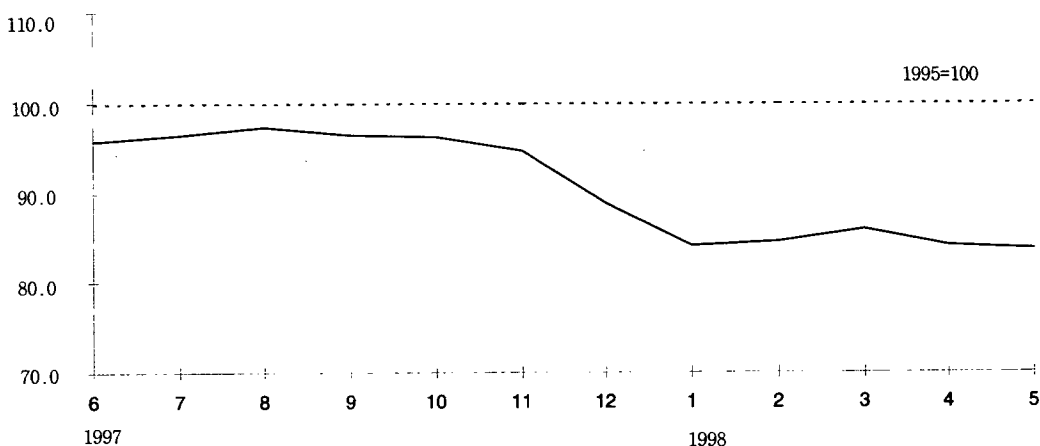
2. 농가경제의 변화

가. 현 황

1) 농가 교역수지 악화

- 1995년도의 농가 교역지수를 100으로 할 때, 1998년 5월의 농가 교역지수는 83.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7년 10월의 농가 교역지수 96.1에 비해 현저히 악화된 것이다. 농산물 판매가격에서는 서류와 우유·계란은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나머지 품목에서는 큰 가격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농가가계 부문에서는 유류비, 전기료 등 가계광열비의 상승이 농가교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쳤다. 영농부문에서는 비료, 농약, 농기구, 영농광열비, 사료, 영농자재 등이 농가 교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림 5-1 농가 교역지수 변화, 1997.6~98. 5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1998(6).

표 5-8 농가판매가격 지수 변화, 1997~98. 5

	총지수	곡 물	청과물	축산물	기타농산물	곡물제외
1997. 5(A)	102.5	115.6	98.8	91.9	106.8	96.2
1998. 5(B)	98.4	117.9	96.8	78.7	107.0	89.1
비율(B/A)	96.0	101.9	98.0	85.6	100.2	92.6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1998(6).

표 5-9 농가구입가격 지수 변화, 1997~98. 5

	총지수	가 계 용 품	농 업 용 품	농 촌 임료금	가계용 품제외	임료금 제 외	농업용품 제 외
1997. 5(A)	105.9	110.4	99.5	109.9	101.0	105.6	110.1
1998. 5(B)	117.6	117.8	119.0	107.6	117.3	118.3	126.9
비율(B/A)	111.1	106.7	119.6	97.9	116.1	112.0	115.3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1998(5).

나. 농가 수입·지출구조 변화

- 농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1997년 12월 이후 조사 농가의 27.0%가 농외소득이 감소했으며 14.4%가 도시의 자녀로부터 송금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1.0ha 미만의 중소농층에서 농외소득과 자녀 송금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ha 이상 농가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IMF 관리체제 이후 농가는 자녀교육비, 부조금지출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폭은 크지 않다. 따라서 자녀교육비와 부조금 지출은 관행에 따라 계속 높게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채총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ha 이상 영농규모의 중농과 대농층에서 부채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 문화활동비, 음식물 구입비는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문화활동비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0ha 미만의 중소농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0 농가의 수입·지출 변동에 대한 농가 조사 결과, 1998. 3/1997. 12

단위: %

		증 가	감 소	변동 없음	해당 없음
수 입	농외소득	0.4	27.0	8.0	64.6
	자녀송금	8.0	14.4	8.5	69.1
지 출	자녀 교육비	45.3	8.5	14.0	32.2
	부조금 지출	30.7	15.1	50.8	3.4
	문화 활동비	14.7	42.9	27.7	14.7
	음식물 구입비	20.6	49.6	25.6	4.2
	부채 총액	71.0	5.0	19.8	4.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241명 조사 결과(1998. 4).

표 5-11 농가 계층별 수입·지출의 변동 상황

단위: %

	1.0ha 미만	1.0~2.0ha	2.0~ 3.0ha	3.0ha 이상	평 균
농외수입 축소	77.8	82.9	70.6	69.6	76.2
농외소득 확대	3.8	-	-	-	0.1
자녀송금 축소	90.0	47.8	50.0	20.0	46.6
자녀송금 증가	10.0	17.4	30.0	40.0	27.4
자녀교육비 축소	8.3	20.0	6.5	10.6	12.5
자녀교육비 확대	58.3	60.0	78.3	66.0	66.9
부조금 지출 축소	12.0	17.4	9.4	21.8	15.7
부조금 지출 확대	16.0	32.6	37.5	30.9	31.7
문화활동비 축소	66.7	45.9	49.2	51.0	50.2
문화활동비 확대	4.7	17.6	18.6	20.4	17.2
음식물비 축소	56.0	51.2	52.4	50.0	51.8
음식물비 확대	12.0	21.4	25.4	21.4	21.5
부채 총액 증가	58.3	75.3	77.6	75.0	74.1
부채 총액 감소	-	2.5	7.4	8.9	5.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241명 조사 결과(1998. 4).

나. 영향 및 전망

- 농기계 반값 공급제의 철폐와 농기계 가격 상승으로 농업기계류의 구입이 대폭 축소될 것이 예상된다.
- 가축사료, 영농자재류, 농용유류 및 전기료 등 농업경영비의 상승은 농업 생산활동 위축, 농업소득 축소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 IMF 관리체제 하에서 나타나는 농가의 자본적 투자 축소, 농업생산활동

위축, 농외소득 기회 축소, 농가소득 감소 등은 농업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대농층과 중소농층의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소농층을 위한 소득원 개발과 함께 자녀 교육비 지원 등 복리후생 대책이 요청된다.

3. 농가의 대응과 정책 수요

가. 농가의 가계비 및 영농비 지출

- 가계비 지출에 있어서는 농가의 교역조건 악화로 소득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농가는 문화활동비, 외식비, 부식구입비 등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 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자녀 교육비와 부조금 지출은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5-12 IMF 관리체제하의 농가의 대응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

단위: %

		확 대	축 소	전과 같이	해당 없음
가 계 비	자녀 교육비	10.8	31.5	27.4	30.3
	부조금 지출	0.4	53.5	42.3	3.7
	문화 활동비	2.1	64.7	22.0	11.2
	외식비	0.4	73.0	6.6	19.9
	부식구입비	2.5	74.3	19.5	3.7
영 농 비	농지구입	9.5	15.4	7.5	67.6
	농기계구입	10.8	34.0	13.7	41.5
	노동력 고용	5.8	49.8	32.0	12.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241명 조사 결과(1998. 4).

- 영농비 지출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수지 압박을 줄이기 위하여 노동력 구입비, 농기계 구입비 등을 축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구입하기 보다 축소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자본적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농업경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농가소득 증대 방안

- IMF 시대에 예상되는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농가의 47.7%가 가계비 및 경영비를 감축하는 방안을 들고 있다. 그런 중에서도 농업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농업소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향이 28.0%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3 농가소득 증대 달성 방안에 대한 농가의 의향

	응답자	비율
○ 농외취업을 통하여	13	5.4
○ 영농규모확대를 통하여	36	15.1
○ 농업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향상을 통하여	67	28.0
○ 농가 지출규모 축소를 통하여	114	47.7
○ 농가 경영규모 축소를 통하여	9	3.8
계	239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241명 조사 결과(1998. 4).

다. 농업인의 정책 지원에 대한 의견

1)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의 우선 순위

- IMF 관리체제하에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의 우선 순위로는 부채상환기간 연장(48.1%), 쌀 수매가 인상(37.8%), 영농자금 금리 인하(30.3%), 농산물 최저가격제 실시(23.7%), 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료 인하(16.6%), 생산기반정비(15.8%), 농산물 직판장 확대설치(15.8%), 영농시설자금 지원(12.0%), 고효율 농업기술개발 보급(12.0%) 등도 중요한 정책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5-14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 조사결과

단위: %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	응답률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	응답률
1. 부채상환기간 연장	48.1	12. 농외소득원개발	10.4
2. 쌀 수매가 인상	37.8	13. 농기계구입자금 확대	8.7
3. 영농자금 금리 인하	30.3	14. 농자재 영세율 지속 적용	7.5
4. 농산물 최저 가격제 실시	23.7	14. 농산물 수출 지원	7.5
5. 농가경영안정자금 확대	19.9	16. 확대각종세금 감면	7.1
6. 의료보험료 인하	16.6	17. 농지구입자금 지원 확대	4.6
7. 생산기반정비	15.8	17. 식육점 가격 연동제 실시	4.6
7. 농산물직판장 확대	15.8	19. 대학 특례입학 확대	4.1
9. 영농시설자금 확대	12.0	20.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실시	1.2
9. 고효율농업기술개발	12.0	21. 영농정보의 신속 공급	0.8
11. 공판장 출하 수수료 인하	10.8	21. 취로사업실시	0.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조사 결과(1998. 4).

2) 품목별 농가의 정책 우선 순위

- 일반경종 농가는 쌀 수매가 인상을 정부가 우선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지적하는 반면 축산, 과수, 시설원예농가는 부채상환기간 연장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설원예농가는 부채상환기간 연장이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75.9%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보장, 경영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경영안정자금지원 및 영농자금 금리 인하, 시설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표 5-15 품목별 농가의 주요정책의 우선순위 조사결과

단위: %

우선 순위	일반경종농가	축산농가	과수농가	시설원예농가
1	쌀수매가인상(50.9)	부채상환연장(59.2)	부채상환연장(44.7)	부채상환연장(75.9)
2	부채상환연장(37.9)	쌀수매가인상(34.7)	경영자금지원(34.0)	최저가격실시(55.2)
3	자금금리인하(33.6)	자금금리인하(26.5)	최저가격실시(25.5)	자금금리인하(41.4)
4	생산기반정비(21.6)	경영자금지원(26.5)	쌀수매가인상(23.4)	경영자금지원(20.7)
5	의료보험인하(19.8)	최저가격실시(24.5)	의료보험인하(21.3)	시설자금지원(17.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조사 결과(1998. 4).

3) 경영주 연령별 정책 우선 순위

- 30~40대의 비교적 젊은 농가 경영주들은 부채상환 기간 연장과 농가경영을 위한 자금지원과 금리인하, 농산물의 최저가격제 실시 등 상업화 영농과 관련된 경영 및 유통에 관한 정책을 바라고 있다. 특히 30대의 젊은 농가 경영주들은 부채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요구가 80.0%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시설영농과 농업의 상업적 경영을 위주로 하는 30대 농가 경영주층의 영농자금 압박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 반면에 50대 이상의 농가 경영주들은 쌀 수매가 인상을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채상환기간 연장을 들고 있다.

표 5-16 농가경영주 연령별 주요정책의 우선순위 조사결과

단위: %

우선 순위	30~40 미만	40~50	50~60	60세 이상
1	부채상환연장(80.0)	부채상환연장(62.9)	쌀수매가인상(39.3)	쌀수매가인상((60.5)
2	최저가격실시(45.0)	최저가격실시(30.3)	부채상환연장(33.9)	부채상환연장(32.9)
3	자금금리인하(35.0)	자금금리인하(29.2)	자금금리인하(26.8)	자금금리인하(41.4)
4	시설자금지원(30.0)	경영자금지원(24.7)	경영자금지원(25.0)	의료보험인하(22.4)
5	쌀수매가인상(30.0)	쌀수매가인상(19.1)	생산기반정비(19.6)	직판장확대 (21.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조사 결과(1998. 4).

VI. 외국의 금융 · 외환위기와 농업정책

-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당시의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영국 및 인도의 공통점은 외화유동성의 부족 때문이었으며, 미국의 대공항도 금융부문에서 발생하였다.

표 6-1 국별 IMF 자금지원 규모

	멕시코	태 국	인도네시아	인 도	영 국
지원시기	1995. 2	1997. 8	1997. 11	1991. 7	1976.
지원규모	516억 달러	172억 달러	400억 달러	30억 달러	32억 파운드

주: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는 지원예정 규모, 영국과 인도는 지원금액임. 1976년 1파운드는 1.77 달러임.

1. 멕시코

가. 금융 · 외환위기 배경

- 1994년 말의 금융위기는 경상수지적자의 확대, 인위적인 환율 안정 및 정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1992~1994년에 발생한 국제수지적자의 누계는 775억 달러였다.

- IMF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 개혁정책의 추진 및 수출 촉진 등에 힘입

어 1996년 2/4분기부터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경제성장률은 1995년 -6.9%에서, 1996년 5.2%, 1997년 7.0%로 높아졌으며, 농업성장률도 1995년 -3.8%에서 1996년 1.2%, 1997년 5.8%로 높아졌다.

나. 금융·외환위기 전후의 농업

- 1997년 GDP대비 농업부문의 비중은 7.5%, 노동력 중 농업부문 비중은 25%를 점유하고 있다. 멕시코 농업은 3차례(1976, 1982, 1994)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의 실천성과 연속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 금융·외환위기 이전의 농업 부문에는 생산양식의 이중구조라는 문제가 상존하였으며, 1994년 치아파스주의 농민봉기는 외환위기 발생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또한 유통 및 농촌하부구조가 미비한 가운데 가속화되는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의 추진은 농업 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 급속한 시장 개방과 폐소화의 과대 평가는 주요 작물의 경쟁력을 상실케 하였으며, 금융위기이후 농업부문 재정긴축, 환율상승, 금리 및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부문은 침체국면을 맞이하였다.
- 재정긴축으로 농업 투자는 감축 내지 선별 투자로 전환하였으며, 이자율 상승은 농가 부채 급증, 영농의지 약화 및 생산비 증가를 초래하였다. 환율상승은 옥수수, 콩 등의 수입농산물과 농자재 가격 상승을 야기하였으며, 반면에 야채류, 과일류, 커피 등의 수출은 증가하였다. 농업부문의 변화로는 총체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농업성장률의 둔화, 곡물생산량의 감소, 이농 현상의 둔화, 농가의 실질 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 1995년과 1996년의 농업생산지수는 1981년(모라토리엄 선언 전년도) 수준에 미달하였다. 즉, 1996년의 곡물생산은 2,685만톤으로 2,800만톤을 기록한 1981년의 96%수준이었다.

- 외환위기 이후 옥수수과 밀 생산은 위축되었으며, 쌀, 야채류, 콩 생산은 증가하였다. 축산업의 경우 수입육류와의 경쟁, 사료가격의 인상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였다.
- 주식인 옥수수의 자급률은 90% 수준이며, 소비자를 위하여 가격보조를 운용하고 있다. 빈곤층에게는 양곡구호제도의 일종인 플라스틱 스마트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 농가부채는 1998년 현재 30억 달러 수준(연간 곡물생산액의 50%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농가부채가 급증하면서 농가의 채무변제능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 농산물 교역에 있어 전통적인 교역대상국은 미국이었으며, NAFTA 가입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폐소화의 평가절하로 1995년의 수출은 전년대비 95% 증가하면서 1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996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1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과채류와 커피는 주요 수출상품으로 성장하였고, 가금육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 외국자본의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내업체의 도산이 증가하고 있다. 농축산업체의 구조조정은 NAFTA 체결 이전부터 이루어졌으나, 외환위기 이후 도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양계와 냉동야채 가공회사의 폐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인 Purina, Anderson-Clayton 등은 멕시코의 사료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다. 금융·외환위기 전후의 농정변화

- 외환위기 이후 “국가개발계획: 1995년~2000년”에 의거 연방정부, 주정부 및 민간부문의 투자 재원으로 식량증산을 목표로 하는 “농업재건을 위한 동맹 프로그램(PROCAMPO)”를 운영 중이며, 1995년 6월에는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 및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업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 직접지불제를 모든 농작물 및 축산업, 그리고 환경친화적 영농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직접지불제 시행 첫해인 1994년의 직접지불제 예산은 농업예산의 27%를 점유하였으며, 1995년에는 면적 기준으로 정보 당 70 달러가 지불되었고, 작물별로는 옥수수에 가장 많이 지원되었다. 1996년에는 직접지불제의 실시기간을 향후 15년 까지로 정하였다.
- 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이 마련, 보완되고 있다. 단기정책으로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가부채를 재조정하고, 채무지불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투자 규모가 작은 하부구조의 개보수 등을 들 수 있다. 중장기정책으로는 농지규모화 사업, 도로, 통신, 관개설비 투자,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 확충 등의 농업하부구조에 민간투자 유치, 농외소득 증대, 직접지불제 보완 및 확대, 농업금융지원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GDP의 2%에 달하는 농업신용기금 마련, 보험제도(작물 및 재해보험) 보완 및 확대 등이다.
- 기타 정책에는 주요 작물의 가격지지제도의 탄력적 운용, 개도국 지위를 이용한 고율관세 부과, 긴급구제조치, 국내 식량증산정책, 수출증대정책 등 제반 조치의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태 국

가. 금융·외환위기 배경

- 수출지향적 정책을 추진하던 태국 경제는 1996년부터 엔화 약세와 중국

산 저가품의 공세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경상수지의 악화와 경제 성장의 둔화를 초래하였다.

- 1980년대 초반 이후 경제의 급성장과 더불어 부동산가격의 거품현상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과 대형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되었다.
- 경상수지적자의 확대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1997년 5월 중순경부터 바트화의 가치하락을 우려한 바트화 투매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경상수지적자 확대와 외채증가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1997년 상반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로 금융기관들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바트화가 평가절하 되는 과정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경제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

나. 금융·외환위기 전후의 농업

- 경제발전과정에서 GDP 대비 농림수산업 비중은 1996년 36.6%에서 1995년 10.9%로 감소하였다. 태국은 수출지향적 성장정책을 시행중이며, 무역액은 GDP의 70% 수준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쌀 위주의 농산물과 섬유류 등 경공업제품이다. 쌀은 베트남 등 주변국들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태국 쌀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축산은 국제 밀가격의 상승과 사료 수입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돈업의 경우 사료가격 상승과 수요위축으로 타격이 심각하며, 사료업체는 대두박 등 특정 사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바트화의 평가절하로 수출은 증대할 전망이며 특히 냉장 닭고기와 새우의 수출이 증대될 전망이다.

다. 금융·외환위기 전후의 농정변화

- 바트화 하락으로 인한 경쟁력 우위를 이용하여 쌀 수출 증대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며, 사료업체의 수입관세 인하 요구에 대해 수입규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검토 중에 있다. 수입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비료가격 상승 및 품질 저하에 대처하여 단비 공급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농업 협동조합이 단비를 매입하여 농가에 판매함으로써 20~40%의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정부는 농가 비료 판매가격의 안정을 위해 6.4억 바트의 지원을 하고 있다.

3. 인도네시아

가. 금융·외환위기 배경

- 1980년대 후반에 진행된 금리자유화와 민간상업은행의 설립자유화로 금융기관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부실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절한 규제가 부족하였다.
- 1980년대 후반 외국인투자의 증가로 시작된 경기과열과 함께 거품경제로 인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주식시장의 외국자금 의존도 과다하였다.
- 주력 수출품인 섬유, 목재제품 등의 수출 증가율이 1996년부터 현저히 둔화됨으로써 경상수지가 악화되어 대외채무가 크게 증가하였다
- 국내기업의 거품경제 발생, 경상수지적자 확대로 외화차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부실로 금융산업이 위축되고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IMF 프로그램에 의한 경제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

나. 금융·외환위기 전후의 농업

- 루피아 가치의 급격한 하락은 국내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수반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생산물에는 40~50%의 수입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루피아의 평가절하는 국내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주식인 쌀을 비롯한 주요 식량작물은 국내소비 목적으로 주로 생산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생산이 감소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쌀의 경우 1994년 가뭄과 엘니뇨 현상의 피해로 생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바, 1997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3.6% 감소한 49.2백만톤을 기록하였다. 미국 정부는 엘니뇨 현상을 감안한 쌀 생산량에 기초하여 1998년의 부족량을 300만톤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밀과 옥수수 등 식용 및 사료용 곡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1995년 전체 수입액 중 농축수산물의 비중은 6.1%이며, 농축수산물 수입액 중 곡물수입 비중은 50.7%이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화 부족으로 쌀 수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청하였다. 미국정부는 빈민층 구제를 위하여 5,600만 달러(무상식량원조 2,500만 달러 포함) 상당의 식료품과 의료품을, 세계은행은 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도 10년 거치 30년 현금/현물 상환조건으로 쌀 50만톤의 지원을 결정하였다.
- 루피아의 평가절하와 사료가격 상승으로 전체 17,600 축산농가 중 적어도 80%가 축산을 포기한 상태이다. 금융위기로 축산농가의 사료 수요가 급감함으로써 사료생산업체는 수입된 옥수수 비축분을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으로 재판매하고 있다. 국내산 옥수수도 재고비용의 상승으로 사료업체가 구매를 기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위축으로 국내산 옥수수 가격의 폭락이 예상된다.
- 식량 부족과 함께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 농작물 감산, 화재로 인한 산림지역의 황폐화 등으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 1998년 2월 물가상승률은 12.8%에 달하며, 1월의 6.9%를 감안한다면 두 달 동안 약 20% 상승하였다. 2월중 식료품가격은 16.1% 상승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소비자물가지수가 40-50%로 올라가는 현상)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 금융·외환위기 전후의 농정변화

- 1998년 2월 3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격정책에 의해 쌀 생산 증대를 기하고자 생산자가격을 kg 당 535 루피아에서 600 루피아로 14.2% 인상하였다.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증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 정부는 1998년 3월 옥수수의 최저가격제(floor price)를 도입하였는 바, 이는 국산 옥수수의 가격하락으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가격을 kg당 550 루피아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료업체는 국산 옥수수가 수입산보다 수분함량이 높아 구매를 회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 수확기에는 250 루피아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다. 중소 축산농가를 위해 특별융자계획과 사료구입 보조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1998년 2/4 분기 말에는 쌀, 설탕 등 9개 기본 식료품의 가격 및 수급 안정 도모를 최우선시 하였다. 매점매석의 방지대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쌀의 국제가격 상승 시 수출용으로 매점매석하는 경우 국내 부족 현상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입업자를 5,000명으로 고정하고 불법수출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수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역업자나 식료품 공급업자는 3개월 이상 재고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는 금융위기의 결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낮아지고 약 500만 명에 달하는 극빈자의 경우 식량구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또한, 유통구조상의 문제도 발생하였는바, 즉 국영물류국(the State

Logistics Agency)을 통한 필수품의 적정공급은 이루어졌으나 소매단계에서 공급부족현상이 발생하였다.

- 농산물 수입을 독점하여 왔던 BULOG사는 식량보장 차원에서 쌀과 설탕의 수입독점권만 남기고 기타 농산물은 자유화였으며, BULOG사의 독점 포기 이후 소맥분, 대두, 마늘 등에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다.

4. 인 도

가. 금융·외환위기 배경

- 1980년대 후반 라지브 간디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정책은 과도한 재정적자 및 인플레이션, 인위적인 환율 고평가 등으로 해외부문의 적자와 국제신용도의 하락을 초래하였다. 1990년대 초에도 인플레이션, 재정 및 해외부문 적자, 국제신인도의 하락 등으로 총체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하였다.
- 1991년 7월 초 인도의 라오 신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으며, 당시의 외환보유고는 불과 2주간의 수입액에 해당하는 약 1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IMF의 권고에 따라 무역자유화를 확대하고,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으며, 정부 규제를 완화 및 철폐하는 등 시장지향적 경제정책을 표방하면서 본격적인 경제구조 개혁을 시작하였다.

나. 금융·외환위기 전후의 농업

- 1991년 단행한 경제구조조정(SAP: Structural Adjustment Policy)은 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기술도입 등을 통한 세계경제와의 접목과 함께 국내기업의 투자환경조성 등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개혁도 포함하고 있다.

- 경제개혁 이후 수출 증대와 외자 유입으로 인해 1992~97년 연평균 6.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고평가되어 있던 루피아화의 환율은 아시아권 통화의 폭락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1997년 8월부터 평가절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구즈랄정부 퇴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평가절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어 1998년에는 달러 당 평균 40 루피아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 금융위기 이전의 농업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및 가격 통제하에 있었으며, 농민들은 증산 의욕을 상실한 상태였다. 정부의 농업 부문에 대한 규제는 크게 국내부문과 대외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 거래에 대한 농업 부문의 대표적인 규제는 북서부 지방(Punjab, Haryana, 서부 Uttar Pradesh)의 밀 저장 및 보관에 대한 규제, 인도식량공사(FCI)의 쌀 및 설탕에 대한 강제징수가격제도, 콩과 두유에 대한 계절적 거래 제한(Gujart 지방), 그리고 FCI에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한 민간업자의 철도 사용 차별 등이 있었다. 이러한 규제는 경제개혁이 시작된 1991/92년에 비농업 부문의 규제가 철폐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완화 내지 철폐되었다. 대외 규제로는 농산물 수출입의 엄격한 규제를 들 수 있다. 수입의 경우 민간업자에게 허용하는 두류를 제외하고는 엄격한 규제 하에 있었으며, 수출은 경제개혁이 진행되고 있던 1991/92년에도 지속적으로 통제되었다.
- 이 결과 농업 부문의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국민들의 구매력 부족으로 정부의 곡물재고는 증가하였고, 농촌지역의 실업 및 빈곤도 증가하였다. 곡물생산량은 1980/81년의 129.6백만톤에서 1992/93년에는 179.5백만톤, 1993/94년도에는 184.2백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쌀 생산량의 증가는 괄목할 만 하며, 이는 경제구조조정 이후 지역간 쌀거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역간 비교우위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 인도 농업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경제구조조정책은 쌀을

표 6-2 인도 경제개혁의 주요분야 및 내역

주요부문	주요내역
재정 안정화 - 경제개혁 성공의 필수선행조건으로서 가장 중점이 주어진 분야	- 수출보조금 철폐 - 비료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조정 - 부실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점진적 삭감 - 사회간접자본 등 개발지출의 축소
산업정책 및 외국인투자 - 경제개혁 프로그램 중 가장 혁신적으로 변화 및 개혁이 수행된 분야	- 기업의 진입과 퇴출의 장애요인 제거 - 사회기간산업의 민간부문 참여 허용: 전기발전, 화학비료산업, 항공교통 분야 등 34개 분야에 외국인 투자지분 51%까지 상향조정 - 외국환 관리법(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개정 및 다자간투자보장(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가입
무역 및 환율 정책 - 최종소비재부문 제외한 시장개방 확대 - 제한변동제(Pegged Floating system) 환율채택	- 수입금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의 자유화 - 수입쿼타 철폐 및 수입관세인하(200%(1991년)→65%(1994년)) - 평가절하 및 단일환율제 정착을 위한 이중환율제 일시도입
조세개혁 - 경제왜곡회피, 재정강화를 위한 조세 - 수입 증대를 위한 신제도 도입 - 직접세(소득세)의 단순화 - 점진적 관세인하, 물품세를 종가세(advalorem)로 전환	- 개인의 최대한계소득세율 인하(56%→40%) - 금융자산 저축에 대한 유인체계 강화 - 법인소득세율의 단일화 및 인하: 46% - 관세율 인하세 및 물품세 삭감(21%→10%) - 부가가치세 도입검토
공공부문 - 가장 개혁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	- 철저한 민영화 대신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 부실공공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삭감
금융부문 -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 억제	- 정책금융의 축소 - 국내외 민간은행 신규 진입허가 - 대출이자체계의 간소화 - 자본시장의 활성화
농업부문 - 농지와 관계시스템 대대적 투자 - 개량 종자 보급 - 농촌 신용 및 금융제도의 개혁 - 소작제도의 안정화	- 중앙정부 개입 최소화 및 주정부로 권한 대폭이양 - 농업금융 부문 개혁: 이자율 현실화 및 상업은행제도 도입 등 금융업무 강화 - 협동조합의 금융업무 개선
노동시장 부문 - 과잉 보호되어 있는 노동시장	- 공공부문 고용인력감축 - 국립갱신기금(National Renewal Fund)에서 해고 근로자 보상 - 호전적 노동조합 규제

자료: Ahluwalia, M.S. (1995), "India's Economic Reforms", in R. Cassen and V. Joshi (eds.), India: The Future of Economic Reform,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pp. 12~29.

비롯한 곡물생산량의 증대에 성공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쌀 이외에도 식용유, 사탕수수, 차 등 환금작물의 생산량 증가는 가격 및 행정규제 축소 및 철폐로 인한 농가의 환금작물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등의 시장지향적 정책에 기인하였다.

- GDP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 부문의 성장률은 1997년에 엘니뇨 현상의 여파로 0.5%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재정 긴축에 따른 비료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및 철폐, 관개수로시설 및 농사용 전기 사용료에 대한 보조금 축소, 가격왜곡 시정, 정부의 독과점 및 개입 축소,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배분제도(PDS) 축소 등이 발생하였다. 반면에 무역규제 철폐 및 환율평가절하로 농산물의 수출이 증대하는 등 경쟁력 제고 현상도 나타났으며, 수입규제의 완화도 경쟁력 제고에 일조하였다.

다. 금융·외환위기 전후의 농정변화

- 경제구조조정 프로그램하의 농업부문 구조조정은 생산의 효율성 증대 및 증산에 초점을 두었으며, 구체적인 목표로는 자연재해의 최소화 및 방지를 위한 농지와 관개시설에 투자 확대, 종자의 개량으로 다수확 품종의 보급 확대; 이자율 정상화를 통한 저축증대 등 농촌금융제도 개혁; 소작제도의 안정화를 통한 농가의 장기적 영농투자 보장; 수입규제 완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율의 평가절하로 농산물의 수출을 증대하는 것이었다.
- 농업 부문의 개혁은 인구의 70%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부분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부문의 효율성 증대 및 증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생산기반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농업 부문의 구조조정은 정부간섭의 최소화와 농산물 가격정상화의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5. 영 국

가. 금융 · 외환위기 배경

- 1970년대 영국은 재정적자, 국제적지의 적자 및 물가상승이라는 3중고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임금상승을 요구하는 노동운동도 격심하였다. 1973~77년에 발생한 국제수지적자의 누계는 £70억(이하 £는 파운드로 표시함)에 도달하였으며, 37억 파운드 정도가 북해유전 투자에 사용되었다. 국제수지적자에 따른 외화차입에도 불구하고 외화유동성의 부족이 심화되자 IMF로부터 1976~77년 중 32억 파운드 이상의 자금지원을 받았으나, 1978년부터 상환하기 시작하였다.
- 한편, 영국 정부는 심각한 위기 국면을 타파하고자 정부가 관여하는 영역을 축소함으로써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IMF가 영국 정부에 요구한 PSBR(Public Sector Borrowing Requirement)의 삭감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BP(British Petroleum: 영국석유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79년부터 정부조직의 개편 및 공기업의 민영화 등 정부혁신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정부혁신 작업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금융 · 외환위기 전후의 농업

- 영국의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GDP기준으로 2.5% 수준이었다. 즉, 영국이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시작한 1976년의 GDP 대비 농업 부문의 비중은 2.6%이었으며, 그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면서 1980년에는 2.1%를 기록하였다. 한편, 금액기준으로 본 식량자급

률은 1976년 51.5%에서 1980년 59.4%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나타냈다.

- GDP 성장률은 1976년 1.9%이었으며, 이후 1979년까지 3%의 성장을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負)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한편, 농업 부문은 1976~77년 기간에 부(負)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생산의 위축기에 있었으며, 그 원인은 1974~76년의 이상기후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1977년에 기후가 정상화됨에 따라 생산은 회복세를 보였으며, 1978년에는 10.1%, 1980년에는 16.1%의 고도 성장을 기록하였다. 1978~80년은 생산의 호황기로서 농업 부문의 성장이 전체 경제의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표 6-3 영국 농업의 주요 지표 변화, 1975~81

단위: 10억 파운드

	GDP(A)	농업부문GDP (B)	B/A(%)	재급률(%)
1975	95.8	2.392	2.5	53.9
1976	113.8	2.947	2.6	51.6
1977	129.2	3.153	2.4	49.6
1978	148.9	3.416	2.3	53.1
1979	171.6	3.746	2.2	53.1
1980	199.6	4.144	2.1	59.4
1981	217.8	4.681	2.1	62.0

주: 재급률은 영국내 식품소비액중 영국에서 생산된 식품의 가치비율임.

자료: Burrel, Alison, Berkeley Hill and John Medland, "AGRIFACTS: A Handbook of UK and EEC Agricultural and Food Statistics", Harvester Wheatsheaf, 1990.

- 1978~82년에 농업 투입물 지출비용은 경상가격으로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비료, 종자의 경우 변동이 적으나, 농약은 증가 추세, 기계류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편, 1976~81년 중 농산물 가격은 경상/실질가격 기준으로 증가 추세를 기록하였다.

표 6-4 영국의 농업투입물 지출, 1977~82

단위: 백만 파운드(경상)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비료	1,827	1,774	2,089	2,188	2,282	2,615
종자	216	193	212	200	217	236
농약	80	96	169	175	159	246
기계류	453	493	593	668	743	833
고용노동	705	796	910	1,023	1,100	1,180

자료: Burrel, Alison, Berkeley Hill and John Medland, "AGRIFACTS: A Handbook of UK and EEC Agricultural and Food Statistics", Harvester Wheatsheaf, 1990.

표 6-5 영국의 농산물 가격 추이, 1976~81

단위: 파운드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밀	72.2	83.3	85.7	95.9	99.3	108.9
보리	72.5	78.0	78.3	89.6	92.8	100.5
감자	143.4	69.9	40.0	58.9	51.2	63.0
사과	191	305	235	194	258	334
토마토	346	411	440	387	492	485
소	52.4	56.9	66.3	75.2	76.7	88.7
돼지	67.3	72.6	80.0	81.4	86.6	93.7
닭	63.6	76.0	81.1	82.1	91.1	91.6
우유	9.4	10.2	10.6	11.6	12.8	13.8
계란	27.8	31.2	27.0	32.8	37.4	40.7

주: 밀, 보리, 감자, 사과 및 토마토는 톤당 가격이고, 소, 돼지 및 닭은 kg당 가격이며, 우유는 리터당, 그리고 계란은 Dozen당 가격임.

자료: Burrel, Alison, Berkeley Hill and John Medland, "AGRIFACTS: A Handbook of UK and EEC Agricultural and Food Statistics", Harvester Wheatsheaf, 1990.

다. 금융·외환위기 전후의 농정변화

- 영국은 1973년 1월 1일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에 가입함으로써 농업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였고 가격체계를 공동농업정책(CAP)의 체계로 조정하였다. 즉, 품목별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은 국내 생산자를 위하여 고정된 가격이 위협받을 경우에만 허용하였다.
- 영국은 회원국으로 가입 시 5년간의 과도기를 통하여 농정을 CAP에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식품가격을 EEC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하였다. 한편 영국의 가격이 다른 회원국의 수준까지 강제적으로 상승해야 한다면 수요가 붕괴될 것을 우려하여 소비자에 대한 가격 보조가 계속되었다.
- 영국 농업은 대륙국가들과 비교하여 자본화되고 생산성도 높았기 때문에, EEC가입으로 영국의 농민들은 혜택을 받았다. 즉, 시장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내부 보조금은 CAP하에서 불법이었기 때문에 영국 농민들은 자국 농업이 번영할 수 있다는데 대하여 만족하였다.
- 영국은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과도기 협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품에 대하여 농업부과금의 형태로 EEC에 기여할 것을 요구받았다. 1973년 재무부는 영국에서 EEC로의 지출이 1980년까지 3.8억 파운드일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하였다. 이러한 지출규모에 대하여 영국과 EEC는 재협상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업부과금으로 영국이 지불하는 금액의 60%를 영국으로 환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결과 영국의 농민들은 혜택을 받았다.
- IMF 체제하의 영국 농정의 변화를 요약하면, IMF와 영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에 농정에 관한 사항이 없었으며, EEC 가입으로 농정은 CAP 체제로

전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권이 제한되었고, 따라서 농업정책상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6. 미국의 대공황

가. 대공황 전후의 농업

-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공황이 시작되었으며, 1929년 말 3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산업지수와 상품가격은 하강세를 보였다.
-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인 1923~29년은 전대미문의 풍요로운 번영기를 구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낙농업자, 과수업자, 야채 재배농은 호황을 누렸다. 이는 비타민의 유용성 발견으로 셀러리, 시금치 등의 수요 증가하였으며,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수송법 발견으로 신선 야채의 연중 소비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 옥수수, 면화등의 재배업자는 불황기를 맞이하였다.
- 농업 부문의 경우 연방농무성은 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밀을 매입하였으나 공급과잉을 유발하였다. 농무성은 2억 부셸(Bushel)의 밀을 매입하면서 자금이 고갈되었으나 가격은 계속 하락하였고, 밀 수확에 돈을 대부했던 수백개 은행들은 파산하였다. 밀 가격(시카고)은 1929년 1.35 달러에서 1930년 76센트로, 농산물 패리티 가격지수(1909~14=100)는 1929년 138에서 1932년 57로, 농업소득은 1929년 97.6억 달러에서 1933년 46.6억 달러로 각각 하락하였다.

나. 뉴딜 정책(농업부문)

- 뉴딜정책은 루즈벨트의 대통령 취임(1933.3.4) 직후부터 100일 동안에 공

황 극복을 위한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Recovery(회복), Relief(구제), Reform(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다.

- 뉴딜정책 중 농업정책의 핵심은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AAA)에 있으며, 목표는 농업위기의 원인이 농민의 구매력 저하에 있다는 인식 하에 농업인의 구매력을 戰前(1909~14) 수준으로 제고시키고자 하였으며, 그 수단으로는 물가상승을 통하여 부채를 정리하고 생산제한으로 공급과잉을 억제하고 감산으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러나 1936년에 AAA의 생산제한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제2의 AAA(신농업조정계획)를 제정하였으며, 그 기본방향은 前과 동일(생산제한 → 가격인상 → 구매력 증대)하였다.
- 이와 함께 농민구제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여 농가부채의 감소, 농촌부흥사업, 소작문제 등을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은 상승하고 농업인의 구매력은 증가하였으며, 농가부채의 감소, 자작농의 증가, 농촌 안정 등의 효과를 구현하였다.

7. 시사점

- 정치·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멕시코의 경우 1994년 농민봉기가 외환위기 원인 중의 하나였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는 농산물수급 불안으로 물가가 폭등하는 등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고조되었다.
- 농업생산이 일단 침체되면 단기간에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다. 멕시코는 1982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농업생산이 장기간 침체되었다가 1996년에 와서야 비로써 1981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미국의 대공황시기도 제2차

세계대전 시까지 농업생산이 장기간 침체되었다.

- 인도는 농업부문 구조조정에서 규제 완화, 농산물 가격의 현실화 및 생산기반의 강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였다.
- 농업에 대한 투자 강화와 생산성 제고로 경쟁력있는 농업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자본화 내지 높은 생산성을 보유한 경쟁력있는 농업구조로 국내경제의 위축 시에도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 저가의 농산물 가격 유지가 필요하다. 미국은 대공황 중에도 국민들에게 저가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 농정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 미국정부와 국회는 AAA법의 위헌 판결 이후에도 농민의 구매력 제고를 위해 제2의 AAA법을 제정하였다.
- 농업투입재의 가격안정이 보다 필요하다. 각국 공통으로 사료, 농약, 종자 등 농업투입재의 가격 상승은 축산, 사료산업, 농약산업, 식품가공산업 등의 분야에 피해를 초래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동민, 최세균. 1997. 7. 「수출농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명환 외. 1998. 4.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 외. 1997. 12. 「원예특작부문의 중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 1997. 8. 「채소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농림부 채소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공청회 자료.
- 김상노. 1998. 1. “우리 나라의 금융위기와 정책과제,” 「산은조사월보」, 제506호, 한국산업은행.
- 김종현. 1979. 「경제사」, 경문사.
- 김현욱. 1995. 11. 우유품질개선방안, 우유품질향상과 낙농산업 발전방향, 심포지움 결과보고서.
- 김형용. 1998. “귀농자의 실상과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의 정부 농정개혁과 발전 방향」, 1998년도 여름학회 학술발표회 및 심포지움, 한국농업정책학회. 1/2월호.
- 김형주. 1998. 3. 「폐소화 사태 이후 멕시코 기업의 대응 전략」, LG경제연구원.
- 낙농제도개선위원회. 1996. 5. 「활동보고서, 건의안·분과위원회 발표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개혁 대책단. 1998. 5.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수립 참고자료집」.
- 농림부. 1998. 「1997년 농산물생산비통계」.
- 농림부. 1998. 「양정자료」.
- 농림부. 1998.3. 「1998 추경예산 개요」.
- 농림부. 각 연도. 「예산개요」.

- 농림부. 각 연도. 「농림업 주요 통계」.
- 농림부. 1997. 「화훼재배 현황」.
- 농림부. 1997. 3. 「'97 우유 및 유제품 수급대책」.
- 농림수산부. 1994. 11. 「축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 농림부·축협중앙회. 1996. 2. 「세계육우 및 낙농시장-OECD의 중·단기 전망」.
-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각 연도. 「화훼공판장 사업실적 및 가격 동향분석」.
- 농촌진흥청. 1997. 「1996 농축산물표준소득」.
- 농촌진흥청. 1998. 「1997 농축산물 표준소득」.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8. 「농협조사월보」 각월호.
- 외교통상부. 1998. 4. 「월간 중남미 정보」.
- 유관희 외. 1994. 「농기계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기계학회.
- 유철호 외. 1995. 12.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331.
- 윤호섭. 1998. 3.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 3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호섭. 1998. 2. “IMF자금지원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1997년도 동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농업정책학회.
- 이두순, 김기선. 1997. 8.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농림부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공청회 자료.
- 이두순 외. 1997. 12. 「화훼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두순 외. 1994. 12. 「종자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병오. 1995. 11. “우유품질개선방안,” 「우유품질향상과 낙농산업 발전 방향」, 심포지움결과보고서.
- 전국귀농운동본부. 1998. 5. 「귀농정책세미나」 발표 자료.
- 조록환. 1998. “귀농자의 생활 실태 분석” 「농촌생활과학」, 제19권 제11호.

-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A Journey through Economic Time*; 조규하역. 1994.
「갤브레이스 교수와 함께 떠나는 경제사 여행」. 고려원.
- 天間 征. 1995. 10. “WTO출범이후 세계 낙농의 변화와 정책의 전개,”
「낙농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한국낙농학회.
- 최세균, 김동민. 1997. “한국 농림수산물 수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 최윤국, 1994. “멕시코의 경제구조와 전개과정,” 「중남미문제연구」, 제12
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 최지현. 1997. 8.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농림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공청회 자료.
- 축협중앙회. 1997. 「축산물 생산비조사보고」.
- 축협중앙회. 1997. 「축산물 수급 및 가격자료」
- 축협중앙회. 1998. 5. 「‘98. 3월 축산관측(안)」.
- 축협중앙회. 1994. 10. 「축산정책자료」.
- 축협중앙회 조사부. 각 연도. 「축산물생산비 조사보고」.
- 통계청. 1997. 11. 「APEC 국가의 주요 통계지표」.
- 통계청. 1998. 6. 「한국통계월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2. 「IMF관리체제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과 대응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2. 「1998년 농업전망과 정책과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농림사업 2단계 중간평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6. 「농어촌 발전대책 중간평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시설원에 농가 경영 조사 결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4. 통신원 조사 결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6. 통신원 조사 결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농발위대책자료」.
- 한국산업은행. 1998. 1. “외국의 금융위기 사례분석,” 「산업경제」, 제97호.
- 한국은행. 1998. 「조사통계월보」, 각월호.

- 허길행 외. 1997. 6. 「21세기에 대응한 농수산물 유통개선대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1998. 2. “IMF체제하에서의 축산업 전망” 「축산경영학회 발표논문집」.
- 吉田 忠 外. 1987. 3. 「肉用牛一貫經營確立のための技術的・經營的研究」, 文府省科學研究成果報告書.
- 日本農林水産省. 1983. 「農業經營(構造改善)調査報告」.
- Ahluwalla, M.S. 1995. “India’s Economic Reforms”, in R. Cassen and V. Joshi (eds.), *India: The Future of Economic Reform*,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Allen, F.L. *Only Yesterday*: 신범수역. 1992. 고려원.
- Ball, James. 1998. “The British Economy at the Cross Roads”, *Financial Times Management*.
- Burrell, Alison, Berkeley Hill and John Medland, 1990. “AGRIFACTS: A Handbook of UK and EEC Agricultural and Food Statistics”, Harvester Wheatsheaf.
- Cairncross, Alec. 1995. *The British Economy since 1945*, Blackwell Publishers.
- Calva, José Luis. 1996. 11. “La economía nacional y la agricultura de México a tres años de operación del TLCAN”, NAFTA 3국간 투자 세미나 자료.
- Chavez, Luis Felipe. 1995. *Privatization of Mexican Ejidos*, <http://www.aad.berkeley.edu/95journal/LuisChavez.html>.
- Holderness, B. A., “British Agriculture since 1945”,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5.
-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1998. *Agriculture in the United Kingdom 1997*.
- OECD. 1997.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in Mexico*.
- OECD. 1995. *MEXICO*, OECD Economic Surveys.
- OECD. 1998. *MEXICO*, OECD Economic Surveys.

Schwentesius, Rita. 1996. 5. “La cartera vencida del sector agropecuario”,
Internet 제공.

Internet Web Site

<http://www.banxico.org.mx>(멕시코 중앙은행):

[mexi2000.htm](#); [public_html/inveco/infecon/cuadros/civ-2.html](#);

<http://www.sagar.gob.mx>(멕시코 농림부):

[organigrama/sagar.htm](#); [eventos/proyecto.htm](#); [users/firco/mecaniza.htm](#);

<http://www.shcp.gob.mx>(멕시코 재무부):

[esp-ind.html](#)

<http://www.inegi.gob.mx>(멕시코 통계청):

[estad/estad.htm](#)

<http://www.maff.go.jp>(일본 농무성):

태국: 970501; 970515; 970617; 970801; 970915; 971001; 971015;
971104.

인도네시아: 971118; 971201; 980115; 980201; 980215; 980301.

멕시코: 970720; 970425; 970510; 970805; 971005; 971020; 971120;
971205; 971220; 980120; 980220;

빈

면

P30

IMF 관리체제하의 농업동향과 대응방안

등록 제5-10호(1979. 5. 25)

인쇄 1998년 9월 28일 발행 1998년 9월 30일

발행인 박상우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965-8401

인쇄 (주)문원사 02-739-391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